

경기학광장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하는 계간지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자 합니다.

경기학광장

Vol. 27 2025 겨울호



부천무릉도원수목원의 생태연못

경기함광집

Vol. 27 2025 겨울호



People & Culture

08

칼끝으로 되살린 조선의 숨결, 무예사 박사 1호 최형국

14

도예가 방호식, 이상훈, 이종구, 김정옥 씨가 들려주는
막사밭 실크로드를 개척한 도예가, 김용문

24

'사진신부'로 인연을 맺어 조국광복에 헌신한
'수원신부' 차인재와 '화성신랑' 임치호

30

추사 김정희와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만남, 어떤 일이 펼쳐질까?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기획 경기학센터
발행일 2025년 11월
주소 (우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8542
홈페이지 www.ggcf.or.kr
편집디자인 디자인이즈

본 계간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글과 사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rip & Healing

36

이동갈비의 원조, 김미자할머니갈비

42

우리나라 첫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48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을 찾아서

54

오색찬란(五色燦爛)한 부천 자연생태여행

Research & News

64

경기도 시군의 '○○팔경'에 보이는 나무와 꽃

72

기전지역 조선개국공신의 무덤과 조선초기의 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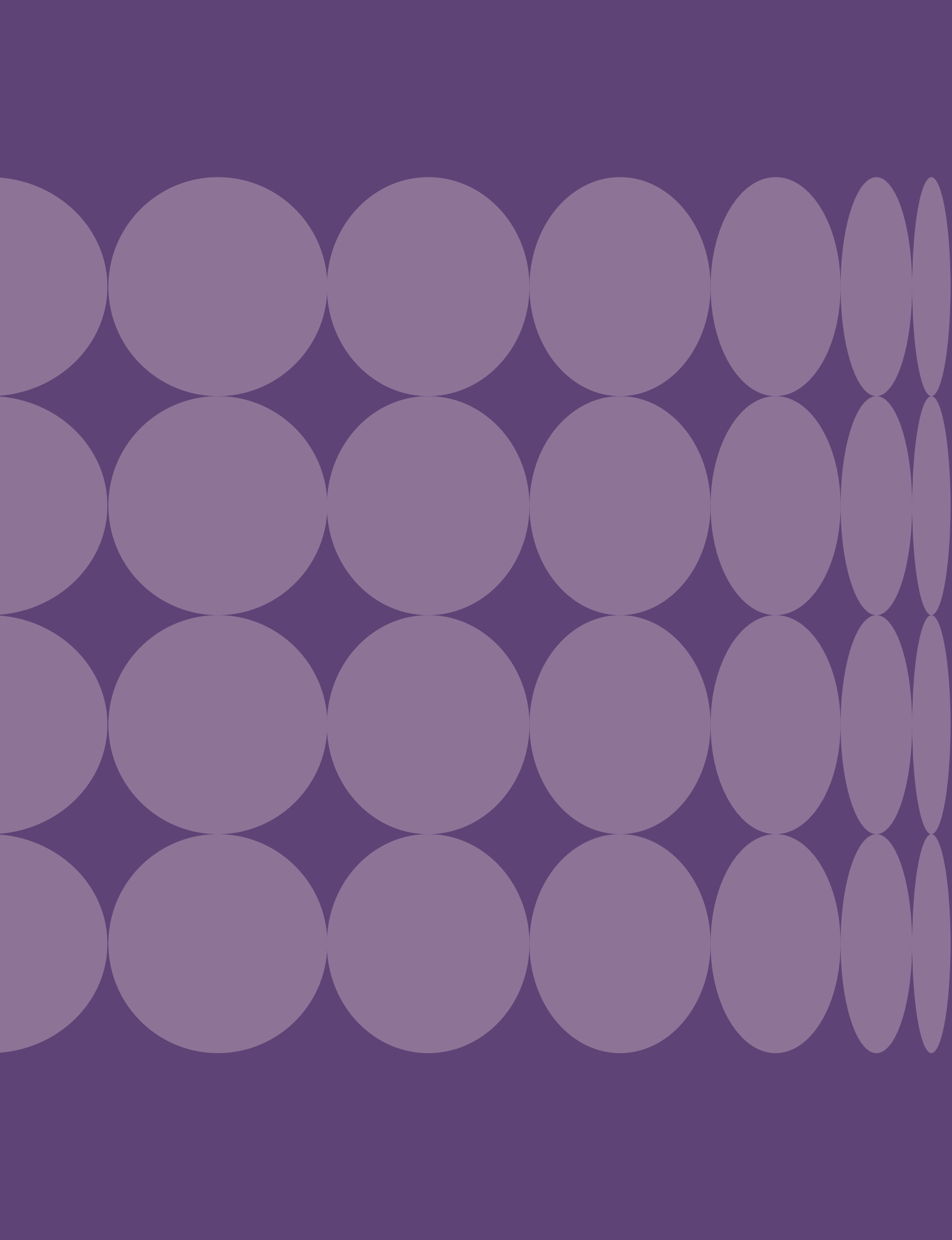
85

신·구 지적도 비교·고찰을 통한 지역 공간구조 변화 연구

92

경기도 근대기 소방시설: 소방망루, 수총기, 사이렌탑을 중심으로





People & Culture

칼끝으로 되살린 조선의 숨결, 무예사 박사 1호 최형국

도예가 방호식, 이상훈, 이종구, 김정옥 씨가 들려주는
막사발 실크로드를 개척한 도예가, 김용문

‘사진신부’로 인연을 맺어 조국광복에 헌신한
‘수원신부’ 차인재와 ‘화성신랑’ 임치호

추사 김정희와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만남, 어떤 일이 펼쳐질까?

칼끝으로 되살린 조선의 숨결, 무예사 박사 1호 최형국

박숙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넘보는 디지털 시대에 몸을 부대끼며 자신을 수련하는 무예(武藝)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30년간 묵묵히 한국 전통 무예의 명맥을 지켜온 그가 있다. 대한민국 '무예사(武藝史) 박사 1호' 최형국. 그는 무예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독보적인 인물로 통한다. 단순히 옛 무술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武)' 속에 담긴 인문학적·철학적 가치를 발견하고, 현대사회에 접목하고 계승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 화성(華城)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그의 연구·수련실에는 고서와 자료, 그리고 손때 묻은 도검(刀劍)과 각종 무기들이 그의 치열했던 시간을 증명하고 있다. 국내 무예·전쟁사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그는 경영학도에서 역사학자로, 무예 연구가이자 시연자로 끊임없이 변신하며 척박한 땅에 무예라는 씨앗을 심고 가꿔왔다. 그의 삶은 전통 무예의 맥을 좇는 구도자의 여정 그 자체였다. 그의 삶은 조선의 병법서와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속에 잠들어 있던 우리 무예의 정신과 가치를 현재로 불러내는 치열한 과정이었다.

마치 조선시대에서 불쑥 튀어나온 듯한 강직한 모습으로 오늘도 무예 연구와 연마에 전념하는 최형국 박사. 하나의 문화유산이 소멸되지 않고 후대에 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무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갈 길을 들여다보았다.





경영학도, 탈춤을 추다 운명처럼 칼을 잡다

최형국 박사의 이력은 독특하다. 역사학 박사지만 학부 전공은 경영학이었고, MBA 과정까지 마쳤다. 그런 그가 무예의 길에 들어선 것은 1990년대 초반, 대학가를 휩쓸었던 우리 문화 찾기 열풍 속에서였다.

“원래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대학 생활을 하면서 ‘탈패’ 활동을 했어요. 탈춤 추고 풍물 악기 다루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커졌죠.”

탈패 활동을 하던 그는 우연히 ‘경당(扁堂)’이라는 곳에서 우리 전통 검술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접했다. 고구려 시대에 상무 정신을 바탕으로 간부를 양성하던 민족 무예 학교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으로, 당시 광주에 본당을 두고 민족 무예를 수련하는 대학 연합 동아리 형태로 명맥을 잇고 있었다. 그는 방학마다 광주 본당으로 내려가 수련에 매진했다.

“처음엔 순수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검을 잡는 순간, 무예가 가진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죠.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재미있었고, 무예를 통해 세상에 봉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그를 이끈 또 하나의 힘은 스승인 고(故) 임동규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수로 옥살이를 했던 임 선생은 출소 후

다시 무기수로 투옥돼 쌍무기수로 있으면서 『무예도보통지』를 번역하며 연구하기 시작했다. 1988년 느닷없이 석방 조치가 떨어져 극적으로 출소한 후 ‘내 몸을 살리는 민족 무예’ 보급 운동에 헌신했다. 엄혹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지식인이 자신의 몸을 수련하며 세상에 보답하려는 모습은 젊은 최형국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스승의 모습에서 그는 무예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몸과 마음을 수련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임을 어렵פות이 깨달았다.

황무지를 개척한 무예 박사 1호의 탄생

무예에 깊이 빠져들수록 학문적 갈증은 커져만 갔다. 그는 무예의 본질을 파고들고 싶었다. 전투 기술로만 여겨지는 무예의 인문학적 가치를 제대로 연구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는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경영학’의 길을 버리고 역사학 박사과정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주변에서는 ‘미친 놈’이라며 모두가 말렸다.

“석사 지도 교수님께서도 ‘왜 굳이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나. 괜찮은 연구원이나 대기업 가서 편하게 살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무예에 미쳐 있었어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전은 가시밭길이었다. 학부 전공이 달랐기에 편견의



벽은 높았다. 무려 5수 끝에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짜 고난은 그때부터였다.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한문 실력으로 조선시대 원전을 읽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밥 먹는 시간 빼고 역사책만 봤어요. 따로 한문 선생님을 모시고 천자문부터 다시 공부했죠. 낮에는 사범으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의 연속이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말이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세부 전공은 ‘조선 후기 전쟁사 및 무예사’다. 특히 그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기병(騎兵)’과 ‘마상무예(馬上武藝)’에 천착했다.

“아무도 안 하니깐요. 그나마 보병 무예는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말 위에서 펼치는 기병 무예는 완전히 불모지였습니다. 나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2002년부터 사비를 털어 승마장에서 말을 타며 직접 마상무예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이 지난한 노력은 2011년 ‘조선 후기 기병 전술과 마상무예’라는 논문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무예사 박사 학위라는 결실을 맺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도 최소 10년간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학계에 보답해야 한다는 양심으로 연구를 지속했다. 매년 논문 2편, 단행본 1권이라는 엄격한 목표를 스스로 부과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50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15권의 단행본을 펴냈다.

그의 학문적 성과 중 백미는 4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완역해 낸 『정조, 무예와 통하다-정역 무예도보통지(正譯 武藝圖譜通志)』의 출간이다. 군사적 배경 지식 없이 이뤄진 기존 번역본들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군사사와 인문학적 관점을 결합한 바른 해석, 정역(正譯)을 완성해 냈다.

“되게 어려운 작업이죠.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만 풀어낼 수 있기에 계속 내공의 부족함을 느끼죠. 군사사와 무예사를 동시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군사 편제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서 사용하는 명칭이나 단어들이 쉽게 안 보여요. 그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하면 되게 난감한 결과를 만들어 내죠.”

이 책은 2021년, 출판계의 큰 상인 ‘롯데출판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번역서 중 학술성과 전문성을 공인받았다.

무예 철학과 무예 인문학

최형국 박사는 무예를 단순히 ‘싸움의 기술’로 보는 시각을 경계한다. 그가 정의하는 무예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종합적인 수련 체계다. 그는 무예의 세 가지 핵심 속성으로 야성, 지성, 영성을 꼽았다.

“야성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힘입니다. 전

투에서 이기려면 가장 야성적이어야 하죠.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분석하고 나를 아는 지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뛰어나다는 오만함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고 그를 인정하는 속에서 비로소 나의 길이 보이는 법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가 말하는 영성은 특정 종교의 믿음이 아닌, ‘나에 대한 믿음’, 즉 굳건한 자존감이다. 수많은 의심을 잘라내고 수련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가는 행위가 바로 무예라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고서는 그 어떤 싸움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는 현대사회의 병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 무예라고 힘주어 말한다.

“마음을 다스려 몸을 채우고, 건강한 몸과 마음이 모여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투적 기술로서의 무예는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쏘아지는 시대에 의미가 없습니다. 핵 단추를 누르는 마지막 손가락은 결국 인간입니다. 놀려야 할지, 말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인간이 인간다워야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무예는 바로 사람다움을 기르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고차원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는 ‘무예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무예를 단순한 군사 기술이나 몸을 쓰는 기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를 찾아야만 더 오랫동안 수련하고 그 가치를 음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수련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분야로 무예가 자리를 잡는다면 세상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수원 화성의 잠자는 혼을 깨운 ‘무예 24기’

최 박사의 학문적 성과는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1999년,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한 정조무예전의 연출을 맡으며 정조가 조선 무예를 집대성한 『무예도보통지』의 ‘무예 24기’를 수원화성에서 대중에게 처음 선보였다. 무예 24기는 지상 무예 18가지와 마상무예 6가지를 합한 24가지 군사 무예를 총망라하는 것으로 병장기와 맨손 무예를 통칭한다. 장창, 죽장창, 당과, 기창, 낭선, 쌍수도, 예도, 왜검, 교전, 제독검, 본국검, 쌍검, 마상쌍검, 월도, 마상월도, 협도, 등패, 권법, 곤방, 편곤, 마상편곤, 격구, 마상재 등 총 24가지 무예가 속한다.

‘무예 24기’는 정조의 친위부대였던 장용영(壯勇營)의 공식 훈련 과목으로 수원화성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핵심 콘텐츠였다. 그는 1997년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을 때부터 수원화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콘텐츠로 무예를 주목하고 있었다.

“보통 수원 사람들은 수원화성을 아름답다고만 느껴요. 근데 그 본질은 왕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쌓은 것이고, 이는 곧 백성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란 말이죠.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정조대왕의 마음이 무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수원화성이라는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예가 될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는 2003년, 경영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쓴 ‘수원화성의 전통 무예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 전략’을 200권 복사해서 수원시청에 뿌리며 무예 공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원화성이라는 하드웨어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지만,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화



성에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왔지만 무예를 관광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때였죠.”

마침 그해에 화성행궁 복원이 이뤄졌고, 수원시청의 요구로 2003년부터 화성행궁 신평루 앞에서 무예 24기 상설 시범 공연이 시작되었다. 이는 현재 매일(월요일 제외) 오전 11시에 펼쳐지는 수원화성의 대표 명품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킹덤’의 ‘K-갓’ 열풍, 그의 손끝에서 시작되다

그의 전문성은 대중문화에서도 빛을 발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전투 및 전술 자문을 맡아 조선시대의 군사 시스템과 무기, 복식을 생생하게 재현해 냈고, ‘K-갓’ 열풍의 숨은 주역이 되기도 했다.

“좁비가 공격해 오면 조선군은 어떤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도 단위로 확산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차단을 하고,

세자의 군권과 국왕의 군권이 충돌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지휘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풀어가느냐. 갓부터 전립, 복장까지 조선시대의 근거 사료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자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케데헌의 갓 쓴 모습은 ‘킹덤’에서 주지훈 배우가 쓴 갓 때문에 하나의 스타일로 형성되었을 정도로 그의 자문은 디테일했다. 드라마 ‘한성별곡’에는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최 박사는 현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도 심화하고 있다. 곧 출간될 책은 단순한 성웅의 이미지를 넘어, 임진왜란 이전의 삶부터 노 젓는 병사(격군) 한 명 한 명까지 아우르는 이순신의 전인적인 모습을 조명한다. 통영의 병선마당에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 시 ‘외로운 장군’이 아닌 ‘함께 싸운 부대’의 모습을 형상화하도록 자문한 일화는, 역사는 영웅 혼자만 아님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이 담겼다.

“이순신 장군의 힘만으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판옥선에, 거북선에 노를 젓던 사람들 하나까지도 소중하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에 타지 않았어요. 판옥선에서 지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칼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기록을 보면 활을 가장 많이 쏘셨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는 작은 무예의 씨앗

화려한 이력 뒤에는 깊은 고충이 따랐다. 30년 가까이 무예의 길을 걸어왔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무예를 배우려는 사람 또한 드물고, 한때 대학에 개설되었던 무예과마저 폐과되는 등 전통 무예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멋있다고는 하지만, 자기 자식을 시키려는 사람은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는 대신 씨앗을 심기로 했다. 현재 수원시립공연단 무예 24기 시범단 조연출을 맡고 있는 그는 몇 년 전부터 수원 남창초등학교, 연무초등학교 등 지역 초등학교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있다. 당장 무예의 대가가 나오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예’

라는 씨앗 하나를 심어주고 싶을 뿐이다.

“어릴 때 배운 무예가 자신을 지켜준 소중한 마음이었다고 기억해 준다면, 언젠가 그 아이가 다시 무예를 찾으러 올 수 있겠죠. 먼바다로 나갔던 연어가 알을 낳으러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최근에는 수원 정조대왕 능행차 축제에 ‘어린이 무예 시범단’을 이끌고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고, ‘무예 인문학 답사’를 통해 수원화성 성곽을 직접 걸으며 각 시설물이 전투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생생하게 설명하고 직접 시범을 보이는 등 전통 무예를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밖에도 각종 강의와 저술, 학술행사, 무예 전시, 공연, 고증, 자문 등 전통 무예를 알리는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조선이 500년을 버틴 것은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쩌면 그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무예의 정신’에 있는 것은 아닐까. 최형국 박사는 오늘도 모두가 외면하는 길 위에서 묵묵히 칼을 베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다. 그의 고독한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

글 박숙현

서강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공공감사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사주당의 태교신기, 김윤후, 처인성 등 지역학을 연구하고 있다.

도예가 방호식, 이상훈, 이종구, 김정옥 씨가 들려주는 막사발 실크로드를 개척한 도예가, 김용문

김예옥



막사발 도예가 김용문(1955-2025).
막사발로 한국에서 튀르키예까지 실크로드를 개척한 인물이다.
사진 조문호.

눈을 감았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필자는 ‘김용문’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이종구 씨와 여러 도예가들을 만나면서 필자는 비로소 김용문의 생전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김용문은 막사발에 미쳐있던 사람이다. 그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시작해 중국을 거쳐 튀르키예까지 우리의 전통 장작가마를 만들어 막사발을 굽고 그것을 유럽에까지 전파하는 ‘세계 막사발 장작가마 실크로드’를 실행하고 있었다. 그가 개최한 막사발 심포지엄은 한국에서 30회, 중국에서 22회, 튀르키예에서 15회였다. 목숨을 담보로 실크로드를 개척하다 결국 쓰러진 것이다.

오산에서 태어난 김용문은 홍익대와 대학원을 나와 오산에서 빗재가마를 열어 세계 막사발 장작가마 페스티벌을 시작했다. 그 후 전북 완주 삼례에 내려가 작업을 했고 2011년 튀르키예의 하제테페대학교 도예과 교수로 초빙받아 그곳에서 활동해왔다. 2023년, 담도암이 발병해 몸이 극도로 약해졌고 지난 7월 3일, 앙카라에서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혔다.

김용문과 인연이 있었던 도예가 방호식, 이상훈, 이종구, 김정옥 씨를 만나 김용문이란 인물과 그의 예술세계를 알아보았다.

막사발 도예가 김용문(金庸文, 1955~2025)은 ‘전설’이었다. 35년 전 그를 한두 번 행사장에서 봤던 필자는 기이하고 거친 행위예술을 하던 인물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자리를 가진 ‘김용문’이란 이름이 거론되었다. 그는 왜 ‘불멸’의 이름이 되었을까? 늘 궁금했다.

지난 9월, 광주 곤지암으로 도예가 이종구 씨를 만나러 갔을 때 이종구 씨는 ‘김용문’이란 도예가가 죽었는데 그것도 튀르키예에서



김용문의 막사발

“막사발! 막사발! 막! 사! 발!”

방호식 (59 · 전북 완주에서 ‘장자요’ 운영)



김용문 선생과 언제 처음 만났나?

2006년 중국에서 열린 ‘세계 막사발 장작가마 심포지엄’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지금까지 막사발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30회, 중국에서 22회, 튀르키예에서 15회를 개최했다. 세 군데 모두 그가 우리나라의 전통 장작가마를 지어서 그릇을 굽는 행사를 한 것이다.

그렇게 오랜 기간 개인이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그렇게 했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일이다. 그곳이 한국이든, 중국이든, 튀르키예든 행사가 열리는 곳에서 그는 주최자가 되어 행사를 주도했다.

정말 대단하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보통 막사발이라면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막 쓰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김용문 선생이 말하는 막사발은 어떤 것인가?

우리말로 ‘막’에는 두루두루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해서 막사발이라고 한 것이다. 밥그릇도 되고 국그릇도 되고 술잔도 되고.

막사발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나?

우리가 막사발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김용문 선생이 순수동호회로 가자고 했다. 그는 탈지역, 탈연고를 내세우고 전국의 도예가들을 불러모았는데 그들이 막사발 회원이 됐다. 우리나라 도예과 교수들도 거의 한 번씩은 참여했다. 단국대, 서울산업대, 명지대, 경산대, 경일대, 계명대, 백제예술대, 원광대, 전남대, 전남도립대, 전남과기대, 평택국제대까지. 처음에는 김용문 선생이 전업작가여서 여주·이천이나 문경지역의 도예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보통 대학에서 행사를 치른다고 해도 10년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만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김용문 선생은 행사를 매년 치르다 보니까 점차 마이너스가 되어 세상을 뜬 지금도 몇억 원의 빚이 남아있다. 예전에 문중 땅이 개발되면서 받은 3억 원도 다 행사비로 썼다. 행사



방호식(왼쪽), 이상훈 도예가. 둘은 김용문과 전북 완주에서 막사발 활동을 같이 했다.

를 20년 이상 치렀으니 늘 돈이 없었고 그래서 평소에 돈돈 했다.

김용문 선생이 작품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했나?

그분이 2016년 전북 완주 삼례에 왔을 때 통장을 보니까 몇십만 원의 돈도 없었다. 당시 너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중고 벽돌을 사서 가마를 만들면 1백만 원 가량의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새 벽돌을 사서 가마를 만들었다. 자기 양심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다. 남들한테는 거지행세를 하면서도 작품 앞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20년간 그와 일하면서 그의 작품을 딱 한 점 받았다. 한 번은 그의 작품을 군수한테 선물로 준다니 바닥에 내동댕이쳐서 깨버리더라.

그분은 평생 유목민을 자칭했다. 30년간 ‘김용문 막사발 실크로드’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강원도 영월의 자원재생센터에서 김용문미술관을 만들어준다고 초청했다(2025년 7월 개관전을 앞두고 작고했다).

그분은 작업을 하다가 미치면 신기(神氣)가 올라 큰 광목에 마대자루를 가지고 막사발을 그림으로 그렸다. 쫓지머리와 대금을 연주하는 모습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는 도자기를 한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인사동에 좌판을 깔아놓고 판매를 했다. 그때 번 돈으로 인사동을 드나드는 예술인들에게 술을 대접했다. 그의 술을 안 먹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장욱진, 윤광조, 중광, 무세중 같은 분들이 다 그곳에서 만난 인연이었다.

인사동에 나오는 분들은 ‘유목민’이라는 술집을 아지트로 삼았다. 어느 날 전시가 끝나고 ‘유목민’으로 뒤풀이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거기서 막사발을 쓰지 않고 양푼을 쓴다고 격분해서 양푼 술잔을 몇 개 발로 밟아버렸다.

김용문 선생의 최대 꿈은 막사발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시작해 중국을 거쳐 튀르키예에서 완성하고 유럽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실크로드에 100개의 가마를 설치해 불을 지피는 게 꿈이었다.

그 꿈이 어디까지 실현됐나?

튀르키예까지 갔다. 굵게 한 곳은 중국 산둥성의 치박과 베이징이었다. 태국에서도 했다. 일본 아오모리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일본 친구가 욕심을 내는 바람에 중지되었다.

막사발에는 묘한 문화가 있다. 우리는 물론 외국의 도예가들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 대개 외국인들은 개인주의자들인데 이상하게 막사발에만 들어오면 그것이 없어진다. 막사발을 장작가마에 구울 때 낮에는 원로 도예가들이 불을 때고 새벽에는 젊은이들이 자청해서 불을 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유유서나 품앗이 같은 개념이 만들어진다. 그런 공동체 마인드가 막사발을 통해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것 같다. 우리 도예인들은 술자리에서 “막사발! 막사발! 막! 사! 발!”이라고 외친다. 그게 다 퍼져있다.

외국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모든 도예가들이 똑같이 그렇게 외친다.

김용문 선생이 전파한 것인가?

그렇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달항아리는 품기만 한다. 안으로 가둬놓는다. 그런데 막사발은 서로 이해하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같이 그릇 안에서 비빔밥처럼 서로 섞이는 것 같다. 김용문 선생이 그런 큰 역할을 한 분이다.

외국 도자인들은 막사발을 어떻게 만드나?

막사발은 우리 것이지만, 외국인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막사발을 만드는 것이다. 풀어내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심포지엄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사발의 특징이라면 내 것뿐 아니라 남의 것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이다.

김용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 그대로 ‘막사발’이다. 계획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그때그때 길을 만들어 간 사람이다. 욕을 먹더라도 오로지 막사발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길로 가고자 했다. 그것을 목표 삼았다.



2015년 중국 자금성에서 개최된 세계 막사발장작가마 심포지엄에 참가했던 세계 각국의 도예가들



김용문의 사후 중국에서 개최된 세계막사발실크로드심포지엄 포스터.(2025. 9)



김용문은 오산, 완주, 양가라, 영월 등으로 활동무대를 옮겨다녔다.
사진은 완주 세계막사밭장작가마 심포지엄 현수막.

막사밭 실크로드에 그렇게 집념을 보인 이유는?

그분이 막사밭에 대한 모임을 생각한 것은 1996년이었습니다. 캐나다 작가, 미국 작가 등 3~4명이 함께 만나 김용문 선생 집에서 작업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그것을 행사처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후원이 들어와 행사를 키울 수 있었는데 묘하게 그때 우리나라에서 막사밭이 막 뜰 때였다. 원래 김용문 선생은 옹기장이었다. 다만 장소가 비좁아서 옹기를 못하게 되자 막사밭을 하게 됐고 외국인들과 같이하면서 ‘막사밭’에 더 의미를 부여해 행사를 추진하겠다고까지 생각한 것이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도끼머리를 상투로 틀어 올리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재능이 많았고 글솜씨도 대단해서 책을 여러 권 내기도 했다(『나는 막사밭이다』 등). 보통 우리나라 예술가들은 국내에서는 유명하다고 해도 해외에 나가면 무명이다. 외국에서도 호응을 받는 사람은 김용문이 유일하다. 더구나 장르를 넘어서, 시와 도자기, 미술, 음악, 퍼포먼스까지 제일 값어치 있게 하신 분이다. 적재적소에서 제일 어울리게 한 분이다. 우리가 행사할 때 발 물레를 차서 막사밭을 만들 때 행위예술가는 그 앞에서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추었다. 작업을 잘하는 사람은 많으나 콘텐츠를 가지고 판을 벌인 것은 김용문 선생이 유일하다. 그분의 개인적인 헌신과 그 시대에 맞는 전국의 작가들이 참여해 그것이 융합되어 지금까지 행사가 없어지지 않고 잘 꾸려지고 있다.

그 모임 이름이 뭔가?

처음에는 ‘세계막사밭제정위원회’였는데 지금은 ‘막사밭



1984년 단양댐 수몰지역에서 토우를 만들어 수장제를 지내는 김용문

실크로드’로 바뀌었다.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모임을 하면서 느낀 점은?

과거에는 도자기 캠프나 워크숍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 우리는 도예를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류하고 싶어서 그런 행사에 참가했던 것이다. 김용문 선생이 한 심포지엄은 참가자가 경비를 내면서 참여하는 자리였는데 그만큼 그 자리가 좋았기 때문이다. 막사밭이 묘한 문화가 있는 것이다.

김용문 선생과 같이 20년간 일을 하면서 서운한 것도 있고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왜 그런 생각을 했었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좋은 기억만 남아있다. 그게 막사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용문 선생이 막사밭 축제를 시작한 게 30대였는데 당시 40대, 50대 외국인들을 불러 행사를 한 것이니까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부인이나 식구들의 도움 없이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 면에서 김용문 선생이 지금 이뤄놓은 것은 자신의 남은 인생과 맞바꾼 것이다. 가정의 희생과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이뤄낸 것이다. 그 인연으로 30년 동안 행사를 한 것도 대단하고 중국에서 22년, 튀르키예에서 15년을 했으니 얼마나 큰일인가. 그런 일을 10년 넘게만 한다고 해도 대단하다. 역마살이 끼어서 그렇게, 너무 일찍 자신이 통제가 안 될 때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행사를 하는데 그게 무계획적이니까 하지 계획적인 사람이라면 가정이 파탄 날 정도로 하겠는가? 그렇게 앞서간 것이다. 나이 60~70대에 시작했다면 여력도 있고 요령도 있었을 것이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2025년 6월 사진.
가운데가 김용문이고 왼쪽이 최완(김용문 선배), 오른쪽이 방호식 도예가.

**그런데 그렇게 늦은 나이에 한다면 열정이 없을 텐데.
그건 또 그렇다.**

김용문은 일종의 전설인 것 같다.

그렇다. 보통 작가가 작업을 잘해서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는 5년도 못 간다. 그런데 유일하게 콘텐츠를 가지고 갔던 분은 이분이 유일하다. 작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었다. 다른 작가들이 외국 작가들과 만나고 그걸 기회로 외국에 초대받아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오갈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김용문 선생이 국내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돈이 안 됐기 때문이다. 도자기를 팔아서 생활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웠다. 그리고 그분은 오로지 실크로드만이 머리에 박혀 있었다. 이분 자체가 역마살이 있었다. 예전에 행남자기(도자기그릇 회사)와 연결을 해서 한 달에 250만 원씩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주변 사람과 관계가 얽혀 오래 가지 못했다. 결국 돈이 있는 사업가와 엮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그분도 대학교수가 되고 싶어했다. 학교에 대한 미련이 많았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 힘들었다. 한 번은 경기대 교수로 가려고 했는데, 조건이 머리를 자르면 채용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면서 그만두었다. 그래서 더 막사발에 애착을 둔 것은 아닐까?

김용문 선생은 순수한 분이었나?

순수했다. 다만 기존 작가와의 관계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새로운 작가가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도예가들을 구하기가 쉬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뉘니뉘니해도 30년간 막사발 심포지엄이 이어져온 것은 그 주체자인 김용문 선생의 꾸준함 때문이었다. 그게 힘이었다. 유럽 사람도 중국 사람도 ‘김용문’이라면 대접을 해줬다. 그걸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은 김용문이 원조 막사발의 작가라는 것을 인정했다. 한 번은 투쭘(튀르키예 에게대 교수, 원로작가)과 리쥘웬(중국 산둥성 예술대사, 80)과 김용문 선생 셋이 한 자리에 모여서는 세 나라가 싸우지 말고 교류를 잘하자고 결의를 했다. 김용문 선생은 그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실력을 갖고 있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번은 김용문 선생의 오산 집에 갔는데 투쭘과 빌마(아르헨티나의 대표작가)가 컨테이너에 둘러앉아 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지저분하고 초라해서 찌질해만 보였다. 그런 유명 도예가들이 추레한 공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누고 의기투합하는 게 좋아보이기는커녕 너무 안쓰러웠다. 제가 젊었을 때니까 외양을 따진 것이다. 그들은 오직 막사발만 생각하고 있었고 걸치레로부터 벗어나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김용문이라는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가 하는 빗재가마라는 게 돈이 없는데 빗을 내서 가마를 땀다고 빗재가마라고 했나 라고 생각했다. (웃음)

앞만 보고 달렸던 인물

이상훈(55. 전북 김제에서 토림도예연구소 운영)



김용문 선생을 한 마디로 평한다면?

대단한 양반이다.

어떤 측면에서?

열정이 대단하다. 그것 하나로 버텼었다.

그렇다면 그분의 단점은 무엇인가?

뒤도 돌아보면서 가야 하는데 앞만 보면서 달렸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못 보는 측면이 있었다. 만약 그런 것을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럼 뒤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다. 그건 누가 했나?

막사발 후배 도예가들이 했다. 함께 어우러진 것이다. 인덕이 있었다. 다만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했다. 한번 참여했던 사람이 고정적으로 계속 같이 가지는 않았다. 계속 사람이 바뀌는 상태였다.

김용문 선생은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들었나?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교수 도예가들보다는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제자 중 누가 자기 교수한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그래도 김용문 선생은 그런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역시 1년에 한 번 모여서 작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인데 김용문 선생이 쓴소리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작가가 배제되는 점은 아쉬웠다. 불협화음 때문에 특정인이 나가면 우리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니까. 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밑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아쉬웠다. 공이 있다면 그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돌려야 위의 사람이 더욱 돋보일 텐데. 그나마 그때 끈끈하게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만나고 있다. 그 모임이 좋았던 것은 그 시간이 작가들에게는 휴가였기 때문이다. 1년에 한 번 5일간 작업을 같이하고 먹으면서 교류를 하면 나태해졌던 마음이 새롭게 다져졌다. 그래서 흔쾌히 참가했던 것이다.

그때 참여했던 도예가 중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친구처럼 형, 동생하면서 만나는 사람은 여덟 명이다. 넓게 잡아 현재 연락할 수 있는 국내 작가는 50명 정도다.

막사발 아니면 지탱할 수 없었던

이종구(65, 광주 곤지암에서 찬우물도예 및 인력사무실 운영)



요즘도 도자기 작업을 하고 계신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아무래도 두 가지 일은 쉽지 않은 것 같다.

‘도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사발에



이종구 도예가.

2015년 중국 자금성에서 있었던 세계 막사발장작가마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미쳐있던 김용문이라는 사람인데 최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웠다. 그래도 그분을 아끼는 사람이 많아서 한국의 도예가들과 예술가들이 꽤 크게 절에서 49재를 열어줬다. 만약 그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면 장례를 치러줬을까? 어쩌면 일부러 튀르키예에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 말기 암 환자였는데 일부러 한국에 나왔다가 들어간 것이다. 한국에 나와도 갈 데가 없었다. 오래 전에 부인과 이혼을 하고 딸 하나가 있는데 선생 말로는 그 딸이 대학생 때 등록금을 받으러 왔지 일절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 돌아가셨다면 가족들이 챙겨야 하는데 누가 그걸 해줬을까? 아무리 봐도 연고가 없는 사람이었다.

튀르키예에서 장례식 치르는 사진을 봤는데 한국 대사관 직원도 나오고 김용문 선생을 튀르키예에 초청했던 무투르 교수(여성)를 비롯해 학교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것을 보고 고마웠고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다.

오산에 광산김씨 문중이 있는데 그곳에 방 하나를 얻어 놓고 산 것으로 안다(문중에서 오피스텔을 내줬다고 한다). 처음에는 도자기를 한다고 하니 다 좋아하고 오산에서 막사발축제도 했는데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자꾸 옮겨 다녔다. 오산에서 하다가 그 다음은 전북 완주군 삼례에 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배척된 것 같다. 그래서 그곳을 떠났다. 아무튼 아주 힘들었을 것이다. 튀르키예로 가서는 방학 때면 한국에 나와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다. 그런데 그것도 몇 번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오산에 한 달간 틀어박혀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 막사발이 쌓여있다고 한다.

김용문이란 사람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건 무슨 이유인가?
막사발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본인도 그것 아니면 지탱해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막사발이란 게 어떤 것인가?

그냥 사발이다. 밥그릇 같은 것.

김용문 선생이 원래 옹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막사발은 도자기 아닌가?

그렇다. 도자기를 제작한 것이다. 튀르키예에서는 그림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작업을 한 것 같다(암으로 몸이 쇠약해지자 도자기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튀르키예 전역을 돌면서 큰 광목천에 그림을 그리면서 음악과 전통춤, 그림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굉장히 즉흥적이어서 서양인들이 좋아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는 김용문 선생을 안 좋아했나?

모르겠다. 20년간 한국과 중국, 튀르키예에서 막사발 심포지엄을 번갈아 하다가 한국에서는 못했다. 후원기관도 없고 김용문 선생 스스로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 선뜻 나서주지 않았다. 그분도 한 곳에 따리를 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분의 성격은?

좋았다. 두루두루 좋았다. 자기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문 선생과는 언제부터 인연이 있었나?

10년(2015년) 전에 북경 자금성에서 전시할 때 같이 참여했다. 당시 한국 작가는 4~5명 정도였고, 외국작가들이 40~50명 정도 됐다. 아주 드문 기회였다.

그리고 4~5년 전에 그분이 곤지암으로 저를 찾아왔었다. 돈이 필요하다며 사발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데 작업할 공간이 없다고 했다. 추측컨대 여러 사람한테 말을 했으나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까지 왔을 것이다.

그래서 작업을 했나?

안 했다. 이 근처에서 가마만 알아봤는데 작업할 공간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

김용문 선생의 도자기는 어떤가?

도자기는 작가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큰 변별력은 없다.

김용문 선생은 사발만 했나?

그렇다.



2019년 중국 산둥성 치박에서 열린 세계막사발장작가마 심포지엄에서 개회를 하고 있는 김용문.

김용문 선생이 왜 그렇게 떠돌아다녔나?

그게 아쉬운 점이다. 자신의 작업장이 있었으면 외국에 있다가도 다시 들어와 작업하고 그랬을 텐데 스스로 그걸 만들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작가들이 '작업장, 작업장'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작업장만 안정돼 있으면 저도 다른 일 안 했을 것이다. 버티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

작가들이 작업장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나?

시골에서는 모르겠지만 도시에선 어렵다. 이곳 곤지암 정도도 힘들다. 장작가마는 생각도 못한다. 민원이 들어가고……. 시키면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

왜 그렇게 김용문이라는 사람이 빈번히 언급되고 있나?

도예계에서는 알려진 사람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보다 도예가들한테 더 잘 알려져 있다. 도예가들은 김용문을 다 알고 있다.

난사람은 난사람이다

김정옥(59, 오산에서 해연도예 운영)



김용문 선생과는 친척이라고 하던데?

먼 친척이다. 김용문 선생이 우리보다 항렬이 하나 낮아서 조카뻘되는 사람이다. 저와는 양띠 띠동갑이다.

김용문 선생이 왜 튀르키예에 가게 됐나?

오산시 궤동에 있던 광산김씨 문중이 도시개발로 수용되면서 집도 절도 없게 됐을 때 튀르키예 하제테페대학교(Hacettepe University)에서 명예교수로 오라는 콜을 받았다. 2010년에 준비해서 2011년에 들어갔다. 그곳에 간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왜냐하면 거기서 비로소 기반을 잡았고 생활도 안정됐기 때문이다. 벽에 붙이는 도판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 것도 그곳에서였다. 방학 때마다 한국에 나왔다.

광산김씨 문중이 어머어마하다는 말을 들었다.



김정옥 도예가. 김용문과는 한 집안이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김용문의 막사발이다.

지금은 재산을 많이 잃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김용문 선생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공고와 홍익대 요업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문중에서 학비를 대줬다. 그 당시에는 요업학과를 나오면 단자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김용문 선생만 동창 중에서 유일하게 예술쪽으로 빠졌다.

김용문 선생이 하고자 했던 작업은 무엇이었나?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행위예술 퍼포먼스를 한 예술가였다. 1984년 충북 단양댐 건설과 관련해 수몰된 지역에서 토우를 만들어 수장제를 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토우는 82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또 옹관장전(옹기굴뚝)이라고 해서 옹기와 분청으로 굴뚝을 만들고 거기에 손가락으로 문양을 그리는 지두문을 시작했다. 1998년부터는 세계 막사발 장작가마축제를 시작했다.

오산에서 빗재가마를 시작했다고 하던데?

빗재가마가 있던 곳도 오산시 궤동인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빗재'라는 말은 잿물을 바르고 손이나 빗 같은 것으로 쓱쓱 밀어서 막사발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분의 호가 '빗재'이다.

'막사발 실크로드'라는 게 무엇인가?

세계 막사발 장작가마축제가 뒤로 가면서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다.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자인들이 참여해 장작가마를 통해 막사발을 만드는

축제를 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곳이 중국 산둥성의 치박인데 그곳은 요업촌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다. 가마가 어찌나 큰지 2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다. 그곳의 요업 공장을 하던 분(리취웬)이 도와줘서 세계 곳곳의 작가들과 만나게 됐다. 그렇게 중국과 연결되면 실크로드와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참여했던 나라는?

굉장히 많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세계 막사발대회를 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 나라였다. 그 다음부터 막사발 대회 가 중국과 그리스, 튀르키예까지 이어졌다.

김용문 선생의 막사발은 어떤 특징이 있나?

그분의 작업은 독특하다. 투박하면서도 그릇이 가볍다. 전(입구) 둘레가 부드러운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크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만들 때마다 다르다. 조선시대 사발인 이도다완과 다른 점은 굽이 낮다는 것이다. 막사발로 두루두루 써야 하기에 굽을 낮췄다. 또 양손으로 그릇을 잡았을 때 둥근 불이 잡히는 감촉이 있는 게 그분 막사발의 특징이다.

그분은 원래 건강이 안 좋았나?

심장이 안 좋았다. 숨이 가쁘고 많이 아프다고 했다.

그런데 담도암에 걸렸다고 하던데?

그것은 나중에 발견된 것이다. 한국에 일이 있어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담도암 1기라고 해서 그해엔 못 나왔다. 그게 2023년경이다.

담도암은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후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마지막에도 암이 아니라 심장지로 돌아가셨다. 지난 6월 한국에 나왔을 때 심장에 스텐트를 박아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말라서(52킬로그램) 못 박았다. 담도암이 그 사이 많이 진행됐던 것 같다. 그렇지만 담도 때문에 아프다고 하지는 않았다. 담즙이 안 나와 소화가 어렵다고 했고 걷는 걸 힘들어했다. 숨을 못 쉴 것 같다고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그런 몸으로 다시 튀르키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홀연히 갔다. 그러다 10일 후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에 나와서는 영월에서 전시할 도판작업을 했다. 김삿갓이 남긴 시를 도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도판작업을 많이 했나?

많이 했다. 영월 친환경에너지센터에 7월 29일 전시날짜를 잡아놨는데 7월 3일에 작고한 것이다. 그 전시회 때 튀르키예의 무투르 교수와 학생들이 다 같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뤄진 전시는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묘소는 어디에 있나?

하제테페대학에서 국장급으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한다. 그곳에는 외국인 교수들이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고 머물게 하는 묘소도 있단다. 시신을 한국에 들여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유족이 부담스러워했다. 김용문 선생을 그곳 학교로 초청했던 무투르 교수가 큰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장례식도 성대히 치러줬다.



막사발전 포스터



김용문의 초창기 활동 사진



중국 산둥성 치박에서 열린 세계 막사발장작가마 심포지엄에 참석한 외국 도예가들.

김용문 선생은 사람이 좋았나?

좋았다고 봐야 한다. 고집도 있어서 그렇게 오랜 기간 행사를 이끌어온 것이다.

신기(神氣)가 있었다고 하던데?

토우를 하면서 행위예술을 했으니 있다고 봐야 할까? 예술적으로 자기 주관이었다.

여자들이 많이 따랐을 것 같다.

당연하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혼했을 것이다. 술을 진짜 좋아했다.

광산김씨는 전통적으로 예술적인 재능이 있나?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김용문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난사람은 난사람이다. 그분은 정신세계가 남다르다. 글도 굉장히 잘 썼고 가치관이 뚜렷했다. 실크로드를 통해 막사발을 만든다는 걸 일반인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작은 것까지 자기 세계관을 넣어 작품활동을 했다. 그분의 마인드나 작품활동은 상상을 초월한다. 외국작가까지 불러 작업을 한 것이 처음일 것이고 그 덕에 외국 작가들도 국내에

들어와 작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됐다. 세계에 막사발을 알린 게 위대한 업적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막사발이라는 게 외국에 어느 정도나 알려졌나?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의 미들맨, 휴스턴의 밥(Bop)과 교류를 했고, 아르헨티나의 유명작가 빌마도 국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중국, 튀르키예, 태국까지.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 전통의 장작가마를 만들어 막사발을 굽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하는 것이다. 중국은 워낙 큰 나라여서 가마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통가마(만두가마)는 잔뜩 그릇을 쌓아 굽는 방식이어서 재가 안 튀어 색깔이 고르지만 맛은 없다. 그에 반해 우리의 장작가마는 재가 들어가 그릇에 앉기 때문에 우연한 작용으로 맛이 느껴진다. 우리 도예가들은 불의 심판을 받아야 완성품이 나온다고 말한다. 유약을 발라도 불에 들어가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온다. 그래서 매번 단 하나의 작품만 나오는 것이다.

글 김예욱

10년간 기자생활을 했으며 출판 편집, 기획자를 거쳐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신부’로 인연을 맺어 조국광복에 헌신한 ‘수원신부’ 차인재와 ‘화성신랑’ 임치호

김형목

디아스포라(diaspora)는 ‘흩뿌리거나 퍼트리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 말이다.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 이래 이러한 상황은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전쟁을 피하려는 난민 발생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을 위한 침략전쟁으로 급증하는 분위기였다. 제3세계를 대상으로 무자비한 폭력은 야만사회에 선진문물을 전파한다는 구실과 더불어 점점 확산을 거듭했다. 우승열패 적자생존(優勝劣敗適者生存)이라는 사회진화론과 함께, “국력은 바로 힘=제국주의”라는 생각은 피식민지인의 삶을 옥죄는 괴물이자 실생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로서 다가왔다. 그래야만 생존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 속에서 더욱 그러했다.

쇄국으로 일관한 조선사회도 결국 예외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는 혼란이 중첩되었다. 빈번한 이양선 출몰에 따른 사회적인 불안과 지배체제 이완으로 민중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았다. 초근목피(草根木皮)라는 현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운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빈번한 자연재해인 가뭄·홍수와 천연두·콜레라와 같은 질병은 삶의 무게를 더했다.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죽음을 무릅쓴 월경(越境, 국법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로 넘어감)은 1860년대 중국 동북지역(이른바 만주)과 러시아 연해주에 집중되었다. 바람과는 달리 이곳도 풍요한 살림살이를 보장하는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이들은 집단 거주지인 한인촌(韓人村)을 형성하면서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으로 자구책을 모색했다.

합법적인 이민에 의한 디아스포라는 주로 1902년 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과 1905년 한 차례 멕시코 이민으로 귀결되었다.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인 가치관은 ‘사진신부

(picture bride)’라는 새로운 결혼 풍속을 탄생시켰다. 초기 이민자 중에는 미혼인 남자가 많아 결혼문제는 한인사회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였다. 농장주들은 이들을 안착시키기 위해 결혼을 주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하와이 정부도 ‘사진결혼법’을 합법화함으로써 이곳에 오는 한국 여성들 입국을 허용했다. ‘사진신부’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1910년 12월 6일자 『국민보』에 게재된 기사이다. 이내수와 약혼한 여성이 입국하여 민찬호(閔贊鎬) 목사가 이민국으로 가서 혼례식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물론 대부분 여성들은 이곳이 ‘지상낙원(地上樂園)’이라는 중매쟁이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들어왔다. 1924년까지 약 1,000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새로운 등지를 틀었다. 아시아계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진결혼’에 대한 여론은 한인사회를 강타했다. 미국의회는 동양인배척법(Oriental Exclusion Act)을 통과함으로써 이후 ‘사진신부’가 역사적인 무대에서 사라졌다.

여기에는 굴곡으로 얼룩진 우리 근대사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애환과 슬픔은 이주 초기 빛바랜 사진 속에서 영롱한 기억을 되새긴다. 이들은 혈통뿐만 아니라 문화적 전통과 관습 등을 재생산하는 원천이었다. 한인단체·한인교회·한인학교(국어학교) 등의 지속적인 발전은 바로 에너지 원이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다. K-POP 원조는 해외 한인사회를 지탱한 이들이 바로 주인공임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이들의 깨끗한 인생행로는 오늘날 세계사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화상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싱그러움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근대교육 수혜로 현실을 직시하다

1895년 4월 26일 경기도 수원군 북부면 북수동(현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서 차인재(다른 이름은 차우르다, 林仁載 林仁在, Cha Ln-Chai)는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인으로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다. 대한제국기를 대표하는 여성교육기관인 삼일여학교에 입학하여 1910년 3월 제1회로 졸업했다. 최초 여류화가인 정월 나혜석(晶月 羅蕙錫)과 동생 나지석(羅芝錫), 박충애와 홍보배 등은 동기동창생이다. 교훈인 ‘경천애인(敬天愛人)’은 잠재된 여성의식을 일깨우는 요인이었다. 여기에는 소박하나마 보편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인간 평등·존중과 자유를 향한 힘찬 전진과 무관하지 않았다. 동시에 이타적인 삶도 중시하는 실천강령이자 덕목이었다. 기독교적 사랑과 상호 존중은 윤리·도덕적인 가치관 강조로 이어졌다.

이 학교는 북감리교 여선교회 메리 스크랜튼(Mary Fletcher Benton Scranton) 선교사에 의해 보시동 수원을 교회에서 1902년 설립되었다.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梨花學堂) 설립자로 우리 여성교육 개척자이자 선구자였다. 교육 내실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자 후임 여선교사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겨주었다. 오직 전도사업과 여성 계몽에 혼신을 다하는 ‘여성교육의 선각자요 대모’와 같은 존재였다. 수양딸이자 우리나라 최초 여교사인 이경숙 전도부인은 열정적으로 그녀를 도왔다. 3명으로 시작된 매일학교(Day School)는 신자와 유지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다.

교장으로 새로 부임한 밀러(Miller Lula Adelia)는 스크랜튼 대부인의 적극적인 후원과 미국 여선교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교육시설을 크게 확충했다. 이리하여 1908년 학부로부터 4년제 삼일여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여교사 김메레(金袞

禮)와 이사라(李士羅) 등은 학생들 의식을 일깨우는 스승이자 여성 선구자였다. 종교계 학교를 통하여 성장한 차인재는 자율성을 견지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엄격함 속에도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안목과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학창시절이었다.

교사에서 구국민단 교제부장으로 거듭나다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한 후 기숙사 생활은 엄격한 규율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동료들과 빈번한 모임을 통하여 자신의 장래를 가늠하기도 했다. 간혹 외출에서 변화한(?) 서울거리는 식민지배의 모순을 은폐한 ‘야누스’임을 점차 간파할 수 있었다. 졸업한 뒤 모교 교사로서 여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에 열성적이었다. 재직 중에는 김향화(金香花) 주도의 기생단 독립운동을 목격했다. 이는 스스로 사회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였다.

이후 수원지역 민족운동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기차로 서울을 통학하는 학생들은 이미 수원학생친목회를 조직·활동하고 있었다. 1919년 6월에는 휘문고등보통학교 학생 박선태(朴善泰)와 경성기독교청년학관 이종상(李鍾祥, 다른 이름 李得壽) 등을 중심으로 비밀결사체인 혈복단(血復團, 이후 救國民團으로 개칭)이 조직되었다.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독립국가 건설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후원이었다. 첫째로 한일합방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 제국 통치하에서 이탈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한다. 둘째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삼일여학당



이화학당 시절(왼쪽 첫 번째)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가족과 유족에 대한 경제적인 후원
에 있었다.

이들은 수원 서호(西湖)와 삼일학교 등지에서 여러 차례
모임으로 소수에 의한 임원진을 구성했다. 단장은 박선태,
부단장은 이종상, 구제부장은 이선경(李善卿, 경기고녀), 서무
부장은 임효정(林孝貞, 다른 이름 林順南, 이화여고보), 재무부장
은 최문순(崔文順, 이화여고보), 교제부장은 차인재 등이었다.
차인재는 이선경·임효정·최문순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
았다. 임원진은 수원지역 유지들과 친인척 관계로 서로에
대한 친분이 일찍부터 있었다. 이들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동정과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분석했다. 또한 임
시정부에서 보내온 『독립신문』·『대한민보(大韓民報)』·『창가
집』과 「경고문」 등을 배포하면서 동지 규합에 나섰다. 여학
생들은 장차 독립전쟁에 대비하여 임시정부가 운영하는 적
십자회 간호사에 지원할 계획까지도 구체적으로 세웠다. 이
들 대부분은 학교 기숙사나 하숙을 하는 서울 유학생이었다.
주말마다 고향으로 돌아와 금요일 밤마다 삼일학교나 종로
교회 등지에서 장래에 대한 운동방침을 의논하였다.

미국에 정착하면서 한인 2세들에게 한글교육으로 민족의식을 일깨우다

구국민단에서 활동하던 차인재는 1920년 7월 말경에 갑
자기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
결혼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8월에는 경기도 화성
군 영흥도 출신인 임치호(林致昊)와 결혼하면서 남편 성을
따라 임인재로 성을 바꾸었다. 일찍이 개신교 신자는 남편
성을 따르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미국사회의
보편적인 관습으로 한인들은 이를 쉽게 수용하였다.

낮선 이국땅 생활에도 빨리 적응해 나갔다. 『신한민보』
1921년 4월 7일자 「임치호 씨 부인 교육 열심」이라는 기사
는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맥스웰에 살았던 차
인재는 교포자녀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고자 ‘국어학교’를
운영했다. 삼일여학교에서 재직한 소중한 경험은 한글교육
에 매진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다. 이는 교포사회
에 널리 확산되어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이어졌
다. 한글교육은 소통 부재에 따른 세대 사이의 갈등을 해소
하는 ‘완충제’였다.

한글교육과 관련된 외손녀 윤패트리셔(한국명 윤자영)의
증언은 부분적이거나 차인재의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할머니는 매우 억척스런 분이셨어요. 외할머
니는 새크라멘토에서 식료품 가게를 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초인적인 일을 하시며 돈을 버셨지요. 그렇게 번 돈
을 조국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신 것이지요. 제가 8살 무
렵에 한글교실에 다녔는데 이것은 외할머니의 영향이었습
니다.” 초인적인 활동을 마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국
독립에 대한 원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한편 1924년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맥스웰지방회 학
무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 이 단
체는 1908년 장인환(張仁煥)·전명운(田明雲)에 의한 친일외
교관 미국인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 저격 의거를
계기로 재미 한인단체의 통합운동 결과였다. 미국 샌프란
시스코의 대한인공립협회와 하와이의 한인합성협회를 통
합하여 1909년 2월 국민회를 조직하였다.

이듬해 2월 대동보국회가 국민회에 흡수됨으로써 대한인
국민회가 출범했다. 이 단체는 해외 한인단체를 총망라하
여 구성하기 위하여 미국 본토에는 북미지방총회, 하와이
에는 하와이지방총회, 멕시코에도 멕시코지방회를 각각 조
직하였다. 멕시코지방회는 국민회 북미총회 산하로 조직되
었다. 국민회가 대한인국민회로 변화되자 대한인국민회 지
방총회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시베리아지방총회도
설치하고 치타·이르쿠츠크·수청 등 16개 지방회를 조직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만주지방총회도 설립하여 8개 처에
지방회를 구성했다. 북미·하와이·시베리아·중국 동북지역
등 각 지방총회의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샌프란시스코에
서 중앙총회를 정비하고 임원을 선임하였다. 기관지로 『신
한민보』를 발간하여 국내외에 배포함으로써 항일의식을 일
깨웠다. 조국광복 때까지 해외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주도
한 중심적인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한인사회 여성지도자로서 우뚝서다

1933년 대한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 부단장으로
선정되었다. 이 단체는 1919년 5월 새크라멘토 한인부인회
와 다뉴바 신한부인회의 연합으로 발기했다. 목적은 “미주
안에 있는 몇 개의 부인회가 합해 하나의 통일된 단체를 만



대한여자애국단 창립 17주년 기념(왼쪽에서 두 번째)



미주 흥사단에서 활동하던 차인재(왼쪽에서 세 번째)

들어 조국광복에 대한 부녀자들의 운동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각 지방 부인회 대표자들이 모여 합동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대한여자애국단이 탄생하는 밑거름이었다. “대한 여자를 단결하고 문명 준칙과 도덕원리에 기인해 개인으로부터 가정에, 가정으로부터 사회로의 개량을 힘쓰며 대한 독립의 기초적 역량을 준비함”에 목적을 두었다. 여자도 대한인으로서 시세 변화에 부응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미였다.

주요 사업은 독립운동의 후원으로 외교선전, 군사운동, 임시정부 지원(500달러 송금) 등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인 자녀들에게 민족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한 한글교육과 대한인국민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구제사업으로는 국내에 한재와 수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모금한 구제금을 흔쾌히 보내는 등 헌신적인 동포애를 잊지 않았다. 해방 후에는 재미한인전후구제회와 함께 구제품을 모아 본국에 보냈다. 나아가 대동단결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역량 배양도 주요한 목표로서 제시할 만큼 국제정세를 나름대로 분석하였다. 1934년 8월에는 흥사단에 입단했다. 1935년부터 로스앤젤레스 삼일국어학교 재정모금 수전위원이 되어 학교 유지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 서기·재무와 로스앤젤레스여자청년회 서기로 활동했다. 이듬해에는 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 서기로서 1942년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1939년 6월에는 국민회 로스앤젤레스지방회 집행위원과 총무로 선임되었다. 1941년 로스앤젤레스 지방회 집행위원 겸 교육위원으로 선임되어 2년간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듬해 대한여자애국단 총부 위원과 다음해에는 대한인국민회 로스앤젤레스

지방회 집행위원 겸 총무를 맡았다.

1944년 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 회장으로 선출되어 1월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가 주최한 임시회의에 애국단 대표로 참석했다. 4월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선전과장, 1944년 9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제 6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미외교위원부 개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를 위한 전체 대표회에 대한여자애국단 총부 대표로 참석하였다. 1945년에는 대한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 위원, 로스앤젤레스지방회 총무, 연합위원회 군자금 모집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지칠 줄 모르는 조국을 향한 애국심은 국민회를 한인사회 여성들에게 꺼질 줄 모르는 ‘희망봉’이 되었다. 스스로가 선택한 길을 향한 힘찬 발걸음은 한인사회 여성지도자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은퇴한 뒤 말년을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내다가 1971년 4월 7일에 사망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임치호는 자수성가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내놓다

경기도 남양군 대부면 영흥도(현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서 1880년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20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다. 1906년 12월에 공립협회 샌프란시스코지방회, 1907년 12월경 솔트레이크시티지방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일찍이 항일단체에서 활동과 의연금 모금

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이듬해 3월 공립협회 기관지인 『공립신보』를 1인당 10부씩 국내에 발송하자는 제의에 동참하는 한편, 식자기계 구입을 위해 금화 75원을 쾌척하였다. 같은 해 7월 헨포드지방회 설립을 주도하였고, 10월 21일에는 아세아실업주식회사 발기인이 되었다.

아세아실업주식회사는 공립협회가 블라디보스토크 등 원동지역에 독립군기지 개척을 위해 자본을 모집하기 위함이었다. 1909년 2월에 공립협회가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와 통합을 이루고 국민회가 창립되면서 태동실업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바꾸었다. 봉밀산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역으로 항카호(興凱湖) 근처에 위치하여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자본금 총액은 5만 불로 정하여 1주당 50불씩 1천 주로 모았다. 투자금으로 가옥 건설과 도로 설비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기구 등을 마련하였다. 토지개척사업은 현지 중국인으로부터 임대한 토지와 필요한 농기구를 갖추고 농업경작에 착수했으나 마적의 행패가 심해 소기의 목적을 얻지 못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를 구매하였고 한편 귀화하지 않은 한인들은 토지소유권을 얻을 수 없어 결국 원대한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다.

1909년 12월 와이오밍주 그린리버에 거주하며 그곳 한인들과 국민회 임시파출소를 설립하고 사무원이 되었다. 파출소는 지방회보다 작은 단위의 조직으로 솔트레이크시트지방회 산하 소속이었다. 1911년 6월 네브라스카주 헤이스팅스의 한인소년병학교의 하기 군사훈련에 참여하였다.

1918년 대한인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 식자기계체 청장 동맹자를 모집하자, 그해 5월 6회 동맹자로서 가입했다.

1920년 7월 캘리포니아주 윌로우스(Willows)에 한인비행사양성소를 설립하고 양성소 간사로 활동했다. 레드우드비행학교에 오림하·이용선·이초·한장호·이용근·장병훈 등 6명의 단우가 입교했다. 임원진은 5만 달러를 후원한 총재 김종림(金鍾林), 재무 신광희(申光熙), 서기 강영문(姜永文), 감독 곽림대(郭臨大, 다른 이름 郭林大 郭泰鍾) 등이 주축이 되어 윌로우스 한인비행사양성소를 창립하였다. 최능익·이초·임초 등은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임치호·마춘봉·이암 등이 간사로서 활동했다. 이 비행학교는 1921년 4월에 문을 닫았으나 30여 명의 조종사를 배출하여 상하이 임시정부는 이용근을 한국독립군 육군 비행병 참의(소위)로 임명하였다. 1920년 8월에는 차인재와 결혼한 후 이듬해 맥스웰 지방회, 1923년에는 동 지방회 법무, 다음해 재무로 활약하였다.

1932년 5월 대한인국민회는 상하이사변 임시위원부를 설치하고 각지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 남부 캘리포니아주 수전위원으로 선정되어 모금운동에도 앞장섰다. 1934년 흥사단에 입단하여 제281단우가 되었다. 1935년과 1936년 2년 연속 로스앤젤레스지방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3·1절 기념식을 주관하였다. 이어 로스앤젤레스 삼일국어학교 임원으로 선임되어 한인 2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일깨웠다. 1936년 5월 국민회 주최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미한인사회 발

전책 간담회에 남가주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때 한인 1세 노인의 구제, 2세 청년의 단결과 교양, 대한민국임시정부 후원을 논의했다. 1937년 동 지방회 집행위원, 1940년 학무위원이 되었다. 1940년 6월 동 지방회 교육위원으로 삼일국어학교 하령회에 참석하여 2세들의 한글교육에 노력하는 동시에 1942년에는 동 지방회 감찰위원으로 활동했다.

대한인국민회 총회 간부로도 일하였다. 1941년 총회 중앙집행위원 겸 교육위원으로 선정되었고, 1942년 후보집행위원, 1943년 중앙집행위원 겸 구제위원, 1945년 중앙감찰위원으로 활동했다.



임인재·임치호 가족사진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뜨거운 조국애를 발휘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화목한 가정생활이 독립운동에 동참하는 밑거름이 되다

『신한민보』 1936년 4월 16일자 「가정방문기 K기자」는 이들 부부의 미국에서 일상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성에서 우리 동포가 제일 많이 사는 시족 제37가 맥클립 탁에 작은 식품상점을 설치하고 젊은 아내와 이쁜 세 따님을 거느리시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임치호 선생은 언제 보아도 촌 부자집 영감님으로 보이는 수수한 분이시다. 그리고 선생은 또한 진실하여 매사에 성의를 극진히 하시는 모범적 일꾼이시다. (중략) 지금 국민회 나성회장으로 시무하고 계시다.”

“가정에는 젊은 아내, 인재 여사와 세 따님이 있어 남편의 얼굴을 사진으로 보고 따라와 결혼을 하시고도 아주 재미나게 지내시는 가정은 아마 이 가정이 모범일 것이다. 부인 인재 여사는 이화고보 출신으로 대단히 상당하신 분이어서 현재 나성지방 여자계의 큰 짐을 지고 나아가시는 일꾼이시다. 여사는 얼른 보기에는 스포츠인으로 보일 만큼 건강한 체격을 가지셨다. 그리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을 도와 사업을 보살피고 아이를 가르치시기에 쉴 새가 없지만은 늘 건강하신 것이 여사의 기쁨이요, 행복이라 한다. 두 분의 슬하에는 아직도 어린 따님 세 분이 자라나고 있다.”

1939년 5월 임치호 회갑연에 즈음하여 동해수부라는 필자는 그의 일생사를 다음과 언급했다. “백로는 명월노화 흰 머리 은실 같고, 꿩의 지나니 살짝 주름살이 잡혔어라. 경력을 쌓았으니 이때가 황금시대이라. 청춘이 모두 갔다고 꿈이라 슬퍼하지 마라. 세상맛 알고 살면 인생의 귀한 생활 이렇게 깊은 맛을 청춘에는 몰랐지요.” 고단한 인생항로를 매우 적절하게 서술했다.

머나먼 이국에서 부부의 사랑에 가득 찬 가정생활은 한



임치호-임인재 부부 묘역(로스테일리)

평생 독립운동에 투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밑거름이었다. 신혼 초기에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 참담한 현실을 경험하였으나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인 활동으로 아픔을 극복하는 용맹성을 발휘하였다. 참된 이들의 인생역정은 하루빨리 역사무대에서 새롭게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

-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중앙 M&B, 2003.
- Wayne Patterson, 『The Korean Frontier in America: Immigration to Hawaii, 1896-191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 김형목, 「“경기도 부부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5,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꽃피운 민족독립의 魂」, 『경기일보』 2021년 7월 14일자.
- 김형목, 「“경기도 독립운동 단체를 조명하다” 5, 수원 여성 독립운동의 산실 ‘삼일여학교」, 『경기일보』 2022년 7월 13일자.
- 박용옥, 「미주한인여성단체의 광복운동지원연구-대한여자애국단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78, 진단학회, 1994.
- 박 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혈복단과 구국민단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2, 경기사학회, 1999.

글 김형목

한국근대사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사)선인역사문화원 연구소장이자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추사 김정희와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만남, 어떤 일이 펼쳐질까?

도재기



전시실 입구

조선 후기의 대표적 학자·예술가인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이 전시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 마련한 기획특별전 <추사, 다시>를 관람한 뒤 든 생각이다. 추사는 전 시장을 둘러보며 아마도 기꺼워할 것 같다. 거창하지 않고 소박해 보이는 전시에서 내용상 여러 의미를 찾을 수 있어서다. 그 무엇보다 추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후대 예술가들의 창작 작업으로 보인다. 자신의 작품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어 신작을 만들거나, 아예 재해석하고 새롭게 변주해 내는 현대 작가들을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죽음을 앞둔 추사는 친구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칠십년을 사는 동안 벼루 열 개를 구멍 내고, 붓 천 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七十年磨穿十研 秃盡千毫, 칠십년 마천십연 독진천호). 얼마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으면 그 많은 벼루와 붓이 닳아 없어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학자와 예술가로서 치열한 삶을 살았다. 추사가 남긴 붓 7자루, 벼루 3점, 작품에 찍은 인장 등 유품 일부가 전해진다. ‘김정희 종가 유물’(보물)이란 이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 유품은 추사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벼루와 붓을 닳아 없앤 만큼 추사는 여러 명작을 남겼다. 조선 후기 문인화를 상징하는 ‘세한도’(국보)를 비롯해 난초 그림 ‘불이선란도’와 ‘난맹첩’, 독창적 추사체의 ‘침계’와 ‘묵소거사자찬’, ‘대팽고회’, ‘차호호공’(이상 보물)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추사체는 서예사, 문자 조형예술에서 빛난다. 한국 문화예술에 큰 영향을 끼친 그의 작품들, 추사체의 뿌리에는 실학 정신이 녹아 있다. 문장을 짓고(시) 글씨를 쓰고(서) 그림을 그리는(화) 시서화가로서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 ‘객관적 사실과 철저한 고증을 강조’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학정신과 태도를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어린 시절 실학의 대가 박제가를 스승으로 모신 추사는 금석학자이기도 했다. 서울 북한산 비봉에 1000년을 넘게 서 있던 정체 모를 비석이 ‘신라 진흥왕 순수비’(국보)임을 밝혀낸 것도 추사다. 실학박물관이 실사구시, 법고창신이라는 실학 정신의 현재적 의미와 가치를 밝혀내는 추사를 조명하는 일은 의미 있다. 실학 정신은 학자, 예술가 등 오늘을 사는 모두에게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실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추사, 다시>전은 추사체를 중심으로 추사의 삶과 예술세계를 문자 조형예술, 현대 타이포그래피 관점에서 조망한다. 추사를 주제·소재로 한 전시가 많지만 <추사, 다시>전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대중적으로 익숙한 캘리그래피를 포함해 여러 분야로 나뉜 타이포그래피는 현대 디자인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타이포그래피 시각에서 보면, 추사체는 법고창신으로 이룬 독창적 서체다. 파격적인 문자 조형예술이며, 추사는 전위적 타이포그래퍼다.

석재원 홍익대 교수가 전시 총괄을 맡은 <추사, 다시>전에는 추사의 작품과 현대 작가 작품들이 함께 선보인다. 현대 작품은 추사에게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작가만의 독창성, 동시대적 감각을 더한 신작들이다. 강병인, 김현진, 양장점, 함지은, DDBBMM 등 5명의 ‘핫’한 창작자들이 참여했다. 추사와 현대 작가들의 만남 현장인 전시는 문화유산인 추사 작품과 현대 작가 작품을 한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추사 작품세계를 타이포그래피 시각에서 살펴보고, 현대 디자인에서 중요한 타이포그래피 등 문자 조형예술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다.

전시장에는 영인본 ‘세한도(歲寒圖)’와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 ‘사야(史野)’, ‘유희삼매(遊戲三昧)’, ‘난맹첩’ 일부(이상 복제본) 등의 추사 작품이 나왔다. 또 ‘소봉래난(小蓬萊蘭)’, 추사 제자 허련 작품으로 보이는 ‘김정희 초상화’(이상 실학박물관 소장)도 있다.

‘세한도’는 1844년 제주도에 유배 중이던 추사가 제자인 우선 이상적에게 그려준 수묵화다. 우선의 변치 않는 의리를 공자의 <논어> 중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는 구절에 빗대 표현한 문인화다. 추사는 제목 옆에 ‘우선 보아라’는 ‘우선시상(藕船是賞)’을 쓰고, 오른쪽 아래에는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는 ‘장무상망(長毋相忘)’ 인장도 찍었다. ‘세한도’는 원래



세한도

의 그림에 당대와 후대 문인들의 감상 글 22편이 덧붙여져 길이 14m에 이르는 두루마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보기 힘들던 14m 전체를 즐길 수 있다.

현대 작가는 '세한도'에서 어떤 예술적 영감을 얻고, 어떻게 작품으로 재해석했을까. 한글 멋글씨(캘리그래피) 대가인 강병인은 작품 '늘 푸르른 숲'을 선보인다. '참이슬', '열라면' 등의 제품과 '대왕 세종', '미생' 등의 드라마 제호로도 유명한 작가다. 강 작가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창작한 '숲' 자를 통해 '세한도'에 담긴 스승과 제자의 지극한 마음을 표현한다. 무심히 지나치는 한글의 글자 하나하나가 기록과 정보 전달이라는 기능을 넘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조형 예술로 진화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추사체의 특성을 한글로 풀어낸 강 작가의 '잔서완석루'는 한글이 지닌 다양한 조형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병인 작



함지은 작

추사의 '사야(史野)'는 힘찬 필획과 두 글자의 어우러짐이 돋보인다. <논어>의 용야편에 나오는 '사야'에는 형식과 내용, 겉과 속, 공식적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등 상반되는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추사의 글쓰기, 학문 태도의 하나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추사가 170여 년 전 쓴 '사야'를 북 디자이너 함지은은 책 '사야'로 재탄생시켰다. 면마다 다른 서체, 색감 등으로 사와 야의 충돌과 균형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추사의 '사야'와 함지은의 '사야'를 한눈에 담아보면, 옛것이 이렇게 재해석되어 현대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구나 실감한다.

전시장 한쪽에는 글자인 듯 그림인 듯 글자와 그림의 경계가 모호한 작품이 공중에 내걸렸다. 글자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레터링 디자이너 김현진의 작품 '유희삼매'다. 김 작가의 '유희삼매'는 '그 어떤 것에도 걸림 없이 자유자재로 노니는 경지'를 뜻하는 추사 작품 '유희삼매(遊戲三昧)'에서 나왔다.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치열한 과정을 거쳐 도달한 자유와 해탈, 관조의 경지가 유희삼매다. 김 작가는 한글 유, 희, 삼, 매를 틀에 박힌 글자가 아니라 생명체처럼 자유롭게 노닐도록 했다. 추사의 '유희삼매'가 그렇듯 김 작가의 작품도 읽는 게 아니라 보고 느끼는 것으로 다가온다.



김현진 작



양장점 작

추사의 '불이선란도'는 불교 선(禪)의 경지와 난초로 대변한 그림의 이치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을 품고 있다. 난초는 그림의 화법이 아니라 서예의 필법으로 그려야 한다는 추사의 예술관을 명확히 드러낸 작품이다. 추사는 스스로 그림에 만족한 듯 특별히 4건의 글을 화면에 쓰고 인장을 찍었다.

양장점이란 이름 아래 활동하는 라틴 알파벳 디자이너 양희재와 한글 서체 디자이너 장수영도 '불이선란도'를 재탄생시켰다. '불이선란도'에서 그림과 서예의 뿌리는 하나라는 동양의 서화론인 서화동원(書畫同源)을 떠올린 것이다. 양장점은 서화동원을 평면적 글자 디자인과 입체적 글자 형상의 뿌리가 같다는 자형동원(字形同源)으로 재해석하고, 입체 작품 '자형동원'을 선보인다. 글자의 입체적 조형성을 강조한 작품은 평면을 뛰어넘는 입체적 글자 조형의 효과를 관람객에게 보여준다.

추사는 수많은 인장(도장)을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정희인', '추사', '완당', '소봉래' 등 200과가 넘는다. 아예 추사 인장 101과를 찍어 모아 놓은 '완당인보(阮堂印譜)' 등 여러 인보까지 전해진다. '김정희 종가 유물'에도 추사의 인장 31과가 있다. 옛 서화가들에게 인장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다. 돌이나 옥, 나무, 금속에 글자와 그림을 조각해 인장을 만드는 전각은 당당하게 '방촌(좁은 공간)의 예술'로 평가 받았다. 인장은 실용품이기도 하지만 조각과 필력, 정신세계가 어우러져 좁은 공간에 밀도 높은 조형적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예술품이었다.



DDBBMM 작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인 DDBBMM의 김강인·이윤호 작가는 추사의 인장을 주목해 추사가 신문물 고무도장을 접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했다. 딱딱한 재료에 새기는 전각과 달리 고무도장은 더 유연한 표현이 가능하다. DDBBMM은 추사 작품들에서 문구를 발취해 고무도장을 만들고 또 찍어냈다. 시서화에 인장까지 포함한 설치작품 ‘시서화인’은 색다르고 신선한 시각 체험을 선사한다.

<추사, 다시>전은 추사의 정신적·물질적 유산을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다시 보는 전시회다. 범고창신, 실사구시의 정신과 태도로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예술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전시장을 나서면서 추사 작품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의 중요성, 그것들이 품고 있는 무한한 힘을 새삼 떠올렸다. 문화유산은 시공을 넘어 재해석, 변주해도 끝을 보이지 않는 보물창고, 무궁무진한 화수분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실학박물관의 <추사, 다시>전은 과천시 추사박물관, 제주 추사관과의 연합전이다. 지역 문화예술 기관의 연합전은 지역 간 협력 강화는 물론 문화교류 활성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향상, 다양한 관점 제공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갖는다. 유구한 역사 속에 전해지는 다양한 유산을 지역 문화예술 기관들이 저마다의 다채로운 시각에서 살피는 작업은 이 시대 우리 문화를 풍성하게 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

실학박물관 김필국 관장은 “이번 전시는 전통 문화유산을 현대적 디자인 언어로 확장하고자 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시도, 지난 기획전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의 큰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했다.”며 “현대 작가들의 신작을 통해 김정희의 예술세계가 어떻게 재해석되고, 현대 타이포그래피가 어떤 새로운 형식·내용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글 도재기

<발굴과 발견>, <국보 역사로 읽고 보다>의 저자,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문화부장.

Trip & Healing

이동갈비의 원조, 김미자할머니갈비

우리나라 첫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을 찾아서

오색찬란(五色燦爛)한부천 자연생태여행

이동갈비의 원조, 김미자할머니갈비

신완섭

2025년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 오전 10시 반경, 멀리 경기도 포천으로 차를 몰았다. 귀성 차량과 뒤섞이며 가다서다를 반복한 끝에 2시간가량 걸려 도착한 첫 목적지는 칼국수 만두로 유명한 「홍두깨」(정문동길 24). 그런데 우려대로 오늘까지 휴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명절 연휴인지라 탓할 수도 없다. 바로 플랜B를 발동하여 찾아간 곳이 바로 「김미자할머니갈비」(이동면 화동로 2087)다. 이곳은 워낙 명성이 자자한 곳이라서 이번 지면만큼은 포천시 백년가게 중 한 곳인 홍두깨에 포천 향토음식의 우선권을 할애하려 하였으나 그 구상이 수포로 돌아갈 만큼 '원조'라는 지존의 무게감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가 보다.



포천(抱川)의 지명 내력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로 왔다갔다할 때 고구려에서는 이곳을 마홀군(馬忽郡, 일명 命旨郡)이라 불렀다. 통일신라의 진흥왕 때에 견성군(堅城郡)이라 불리다가 경덕왕 때에 다시 청성(靑城)이라 불렀다. 고려 초에 와서는 포주(抱州)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다시 조선 태종 13년(1413)에 포천(抱川)이라는 오늘의 땅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고구려 때 명칭인 마홀에 대하여 「삼지연(三池淵)」에서는 물골[水城], 즉 ‘물이 많은 골(谷)’이란 뜻의 ‘물골’을 음차(音借)한 것이라고 하였다. 골 마(馬)는 물의 옛말 ‘물’ 혹은 이것의 옛말 ‘매’를 음차한 것이고, 홀(忽)은 ‘골’을 음차하여 썼다는 것이다. 통일신라 때 명칭인 견성(堅城)은 성을 튼튼하게 수축하고 공수(攻守)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연유로 명명되었으며, 한때 청화(淸化)라고 한 것은 고려 성종이 정한 별호였다고 한다. 지금의 포천이라는 명칭은 “물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없고, 외부로 흘러나가지만 한다”고 하여 ‘안을 포(抱)’, ‘내 천(川)’으로 이름지었던 것이다.

포천 시내 정문동길에서 차를 몰아 30여 분 더 올라간 뒤 이동면 이동중학교에서 장암교 다리를 건너면 왼쪽 길로 ‘산정호수’, 정면 길로 ‘김미자할머니갈비’ 간판이 나온다. 이 일대가 바로 그 유명한 ‘이동갈비촌’으로 10여 곳의 갈비집들이 웅기종기 모여있다. 이동갈비촌의 특징은 주메뉴가 모두 ‘소갈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갈비에 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갈비 vs 갈비뼈

갈비구이 속칭 갈비는 ‘동물의 가슴뼈 부분 고기를 구워 만든 한국요리’이다. 갈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동물의 가슴뼈 부분의 고기를 이용해 만든 음식이나 양념해 볶거나 굽는 조리 방식을 의미한다. 소갈비, 돼지갈비, 양갈비 등은 식재료로 구분하는 요리를 의미하는 반면, 닭갈비는 조리 방식을 가리킨다.

‘갈비뼈’는 ‘갈비’와 ‘뼈’의 합성어이다. ‘갈비’의 옛 형태는 ‘가리’이고, ‘뼈’의 옛 형태는 ‘쌔’이다. 그래서 17세기 문헌에 ‘가리쌔’로 나타나며, ‘쌔’이 ‘ㅁ’으로 표기되면서 ‘가리ㅁ’로 나타난다. 현대국어에서 ‘갈비’와 ‘갈비뼈’는 그 의



미가 다르다. ‘갈비’는 “소나 돼지, 닭 따위의 가슴통을 이루는 좌우 열두 개의 굽은 뼈와 살을 식용으로 이르는 말”이며, ‘갈비뼈’는 “늑골(肋骨)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이다. 17세기의 ‘가리’가 현대국어의 ‘갈비’와 동일한 의미인지 ‘갈비뼈’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8세기에 ‘륵(肋)’을 ‘가리’라고 한 것을 보면 ‘갈비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갈비’는 19세기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데 <국한회어>에 “갈비 膾髀肉<1895국한회,8>”이라고 되어 있고, <춘향전>에 “갈비 한 덩어리 먹고지거 <18XX 춘향철중下,36b>”라고 한 것을 보면 현대국어의 ‘갈비’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脇)’을 ‘갈비’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갈비뼈’를 ‘갈비’라고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갈비대’에 해당하는 단어로 19세기에 ‘가리대’가 나온다. <한영자전>에 “肋(갈비대*륵) → 가리대”라고 되어 있다. ‘갈비대’가 갈비뼈 하나하나의 뼈대를 이르는 말이라는 것과 관련을 지어보면 ‘가리대’의 ‘가리’도 ‘갈비뼈’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938년에 간행된 <조선어사전>에서는 ‘갈비’를 ‘갈비대’의 준말로 설명하고 있고, ‘가리’는 ‘갈비’와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결국 ‘가리’는 현대국어의 ‘갈비뼈’를 의미하고 ‘갈비’는 식용으로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는데, ‘가리’가 소멸되면서 식용으로 먹는 ‘갈비’와 구별하기 위하여 ‘갈비뼈’라는 합성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소갈비의 유래 및 변천사

조선시대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소갈비구이 방식으로 '설상(雪上)가리'라는 갈비구이가 있었다. 이것은 눈 위에서 소갈비를 구워 먹는 전통 음식을 의미하며 소갈비 요리의 시초라는 설이 존재한다. 눈 쌓인 날 바깥에서 고기를 굽다가 눈 위에 구운 고기를 올려 수축하게 한 다음 다시 구워 먹으면 고기가 연해졌다고 한다. 지금도 이 일화를 참고하여 한 번 익힌 갈비를 찬물이나 얼음으로 수축시킨 다음 굽거나 찌서 파는 가계도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고깃덩이를 큼직하게 잘라줬지만 소고기 값의 인상으로 요즘은 갈빗집에서 갈비를 얇게 저며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갈비를 통으로만 팔았기 때문에 큰 잔치가 아니면 갈비를 먹기 어려웠으나, 이후 갈비를 짝으로 파는 냉면집이 생기면서 서민들도 갈비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전라도 광주 송정리에서 최초로 짝 가리(갈비)를 짧게 토막 내 한 대씩 팔기 시작했고, 1939년 서울 낙원동에 문을 연 「평양냉면집」에서 처음 '갈비구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였다. 당시 술 깨는 데 냉면이 좋다 해서 십야에 냉면을 찾는 손님이 많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갈비를 곁들여 팔았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주객이 전도되어 갈빗집에서 갈비를 먼저 뜯은 뒤 냉면을 곁들이는 외식문화로 바뀌었다.

소갈비 요리 옛보기

① **소갈비찜**_소갈비를 찬물에 1~2시간 담가 핏물을 빼고, 간장·설탕·참기름·마늘·생강 등으로 만든 양념에 1시간 이상 재운다. 무, 당근, 양파 등 채소와 함께 중약불에서 1~2시



간 푹 끓이면 부드럽고 깊은 맛의 찜이 완성된다. 핏물을 충분히 빼야 잡내가 없고, 양념이 잘 배어든다.

② **소갈비구이**_소갈빗살을 해동 후 핏물을 제거하고, 근막을 제거하거나 칼집을 넣어 부드럽게 만든다. 간장, 설탕, 배, 사과, 양파, 마늘 등으로 만든 양념에 30분 이상 재운 뒤 팬에 구워 먹으면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을 즐길 수 있다.

③ **소갈비탕**_소갈비를 2시간 이상 핏물을 빼고, 무·대파·다시마와 함께 1시간 30분 이상 푹 끓인다. 국간장, 마늘, 소금 등으로 간을 맞추고, 당면이나 고명을 곁들여 한 그릇 음식으로 즐기면 된다.

④ **소갈비조림/스튜**_소갈비를 간장, 설탕, 미림 등으로 조리내거나, 채소와 함께 스투처럼 끓여내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이 중 소갈비구이는 경기도의 수원과 포천(이동면), 경상도의 영천과 안동, 강원도의 평창, 횡성, 태백이 유명하며, 수원은 크기를 내세워 '왕갈비'라고 하고 포천은 지역명을 앞세워 '이동갈비'라고 해서 갈빗살을 돌돌 말아놓은 상태에서 내오는 특징이 있다. 그 외 서울 마포구의 숯불갈비도 유명하다.



이동갈비의 원조를 찾아서...

김미자 할머니가 이동갈비의 원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자 할머니입니다.

저는 47년 전 이동면 장암리현제 자리에서 갈비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군인 및 연희객을 대상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포천 리움갈비 원조라고 아우성이지만 저는 원조를 지키고요. 옛 이동갈비 맛을 재현하고자 지금도 직접 갈비를 채고 있지요. 이동갈비의 맛은 손끝에서 좌우되지요.

47년 동안 갈비를 채다 보니 손끝도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이동면 장암리를 떠나 보질 않았습니디. 왜냐고요?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이지요.

김미자 할머니 집에 오시면 별미인 이동갈비와 시원한 동치미를 언제든지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약문의: 031)531-4459, 532-4459
※ 단체 버스 운행 ※



원조 이동갈비의 탄생 비화

올해로 아흔두 살인 김미자 할머니(1933~)의 고향은 전라남도 여수시 삼신면에 속하는 거문도이다. 최남단의 섬마을 새색시가 정씨 성을 가진 군인에게 시집와서 대한민국 최북단 포천의 이동면에서 살게 될 줄을 어찌 알았으랴. 게다가 2남 1녀 어린 자식들을 내버려두고 일찌감치 하늘나라로 가버린 남편으로 인해 38살 나이에 청상과부가 될 줄을 꿈엔들 알았으랴. 다행히 1950년 말 무렵부터 친정에서 물려받은 손맛으로 자그마한 생계형 밥집을 차리고 있었다. 손님이라곤 군인과 면회객이 전부였던 때였다. 세 자녀를 키워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죽자사자 일만 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여러 메뉴 중 유독 인기가 높았던 갈비만 선택해 ‘이동장암갈비’라는 갈비전문집을 열었다. 그 뒤 군사지역 일반 차량 통제가 해제되면서 멀리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 80년대 후반 88올림픽을 치른 이후로 ‘이동갈비’의 부흥을 이끌었다. 같은 자리에 식당을 증축하고 주차장도 확충하여 오늘날 당신의 이름을 내건 ‘김미자할머니갈비’에 이르렀으니 장암 시대부터만 따져도 어언 60여 년 세월이다.

김 할머니는 과거를 이렇게 회상한다. “90이 넘도록 지금껏 한 번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어요. 주일 휴일도 없이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처음에는 한우갈비도 하고 돼지갈비도 했지요. 그러나 한우 갈비는 그 자체의 양이 적은 데다 갈빗살에 기름이 많으면서도 너무 비쌌고, 돼지갈비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수입 소갈비로 바꾸어 가성비를 높였더니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구요. 이곳을 다녀간 군인들이 제대하여 식구들을 데리고 찾아오고, 또 그렇

게 다녀가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입소문을 내줘 80년대부터 손님이 대폭 불어나는 바람에 지금은 주차장이 식당보다 더 커져 버렸네요.(웃음)”

원조의 흔적들

식당 입구 옆 창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즐비하다. 처음 차렸던 볼품 없는 작은 식당 사진(1959년 촬영), 갈비전문점으로 변신시킨 원조이동장암갈비 모습(연도 미상), 스포츠선정 맛집 김미자할머니집 간판(1983년 촬영), 현재 이동 김미자할머니갈비집 간판(2014년 촬영) 등 66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다. 또 다른 감동 사진은 한 해도 변함없이 담가온 메주 모습과 2018년 배추김치 담그는 과정과 절인 고추, 무침, 장 만들기 장면이다. 긴 역사만큼 정성이 묻어난다.

김미자 할머니가 올린 인사 글은 보는 이를 무척 감동케 만든다. “모두가 저더러 포천 이동갈비 원조라고 아우성이지만, 저는 원조를 따지기보다 옛 이동갈비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지금도 직접 갈비를 채고 있지요. 이동갈비의 맛은 손끝에서 좌우되지요. 60여 년 동안 갈비를 채다 보니 손끝도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동면 장암리를 떠나보질 않았습니디. 왜냐고요?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이지요. 여길 오시면 별미의 이동갈비와 시원한 동치미를 언제든지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조의 존엄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원조 이동갈비의 맛

이동갈비의 진미는 감칠맛 나는 양념에 있다. 양념갈비를 만들 때엔 참기름과 배·조청·마늘·파·생강 등 12~15가지의 재료로 만든 양념장으로 재어 잘 숙성시킨다. 김미자할머니집에서는 할머니가 갈비 양념을 손수 한다. 삼삼한 간장에 여러 가지 과일즙이 고기의 깊은 맛을 높인다. 같은 이동갈비라 해도 갈비의 질과 재는 방법과 솜씨에 따라 맛이 차이가 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갈비와 갈비의 나머지 살을 이쑤시개에 꽂아서 만드는 이동갈비는 포천 이동면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갈비는 한 짝당 30kg 정도 나간다. 손질 작업을 하다 보면 갈비살이 보통 70% 정도 나오고 갈빗살을 뜨다가 살이 떨어져 나가므로 나머지 30%를 소고기 부위(갈빗살 포함)로 연결한다. 이렇게 손질된 이동갈비의 특징은 우선 양이 푸짐하다는 것이다. 고기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굵고 넓은 대를 반으로 쪼개 팔기 때문에 더욱 양이 많아 보인다. 푸짐한 양을 내놓는다는 소문이 넉넉한 주인장의 마음으로 느껴져 이곳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손님들에게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푸짐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이동갈비의 정신’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김미자할머니는 개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각종 장과 밑반찬을 직접 마련한다. 식당 한구석에 마련된 20여 개의 장독대와 1995년 1월 한국전통음식보존협회가 전국 향토미식 순례에서 찾아내어 ‘이름나게 맛난 집’으로 선정해 준 안내문이 이를 입증한다. 비록 갈비는 수입산을 사용하지만, 이 또한 저렴하고 푸짐하게 내놓고자 하는 배려

심에서 선택한 결과이고, 최고 품질의 갈비만을 엄선해 우리 고유의 향토음식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 양념갈비를 시키자 숯불과 함께 10여 가지 밑반찬이 한상차림으로 깔리고 갈비를 불판에 올려놓고는 얼음이 동동 뜬 동치미를 한 술 떠먹어 보고 생마늘도 된장에 찍어 미리 맛본다. 입안에 군침이 감돈다. 이쯤이면 갈비 맛은 따질 필요가 없다. 지글지글 구워진 살점을 잘라 상추 위에 고기 한 점, 파무침, 된장과 생마늘을 올려 먹고, 그다음에는 절인 무 슬라이스에 양파채와 고기를 올려 맛본다. 고기만 양념간장에 살짝 찍어 먹어도 맛이 그만이다. 어쩔 수 없이 이동막걸리를 한 병 시켰다. 원조 3대 명품막걸리로 손꼽혔던 이동막걸리를 이동갈비집에서 맛보는 황홀경은 딱 1잔으로 끝났다. 차를 운전해야 했으므로 남은 술은 싸 들고 나왔다.

김미자할머니의 노익장

지금도 매일 정오 때면 식당에 출근하신다는 할머니는 아흔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무척 정정해 보였다. 표정도 밝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열심히 살아온 덕분이다. 젊어서부터 고생한 보상은 잘 장성해준 자식들이 다 갚아주었다. 현재 식당 일은 아들딸은 물론 손녀까지 나서서 3대가 꾸려가고 있다.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손님들과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지금의 모습 그대로 죽기까지 일하며 살고 싶다.”고 답했다. 왜 분점을 내지 않냐는 질문에도 “내 이름





을 내건 식당만으로 족하다. 돈을 더 벌려고 여기저기 분점을 차리는 순간부터 ‘김미자할머니갈비’의 명성은 사그라들 수 있다. 나는 혹여라도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싫다.”며 일축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다. 순간 “늘 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노사연 가수의 노랫말이 떠올랐다. 삼대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내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식후경, 산정호수

마시다 만 막걸리를 들고나올 때 김 할머니는 이동막걸리 한 병을 더 챙겨주셨다. 먼 데서 온 손님에 대한 답례품이랄까, 출입구 바로 옆 휴게공간에서 매실차로 입가심한 뒤 20~30분 거리에 있는 산정호수로 향했다.

1950년 한국동란 발발 직전 북한 김일성이 전방 시찰을 왔다가 묵고 간 별장이 있던 휴양지로 기암괴석의 명성산 등 주변 경관이 매우 빼어난 곳이다. 1977년 3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숙박시설, 위락시설, 놀이시설 등을 두루 갖춰 연인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곳이다. 이날도 많은 인파가 봄비는 가운데 호수변의 산책코스를 반 바퀴 돌았다. 걷다 보니 돌담병원 안내판에서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촬영지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동갈비를 맛나게 먹고 포천의 낭만과 자연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을 빠뜨릴 순 없다.

식당정보

위치: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2087

전화: (031) 531-4459, 532-4459

영업: 10:00~21:00(주문은 20:00 마감)

메뉴: 양념갈비/ 생갈비/ 동치미국수/ 비빔국수/ 냉면/
된장찌개

주차: 식당 길건너 주차장 완비

글 신완섭

경기 군포 거주. K-Geofood Academy 소장. <코리안 지오포드(2022)>, <몸에 좋은 행복식품 다이어리> 외 다수의 식품서적 발간.

우리나라 첫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한미라

우리가 어떤 역사적 인물을 길이 기억하려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념관을 건립하여 인물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전시하는 것에서부터 단편적으로는 해당인물의 행적을 책이나 비문 등 기록으로 남기기도 한다. 또는 생가를 복원하거나 관련 유적·유물을 보존하여 기리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 또 다른 방식 중 하나가 동상(銅像)이나 석상(石像)의 건립일 것이다.

우리 역사의 대부분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경우는 극히 소략하다. 이를 동상의 측면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조선시대 인물로 동상이 후세에 전하는 것은 울곡의 어머니 신사임당(파주 이이선생유적지, 강릉 오죽헌), 여류시인 허난설헌(강릉 생가), 왜장을 꺼안고 진주 남강에 뛰어들어 순국한 논개(전북

장수 논개생가마을)를 꼽을 수 있다.

근현대 들어서는 3·1만세운동의 대명사인 유관순(柳寬順, 서울 장충단공원 등) 열사를 비롯하여 여성 독립운동가인 윤희순(尹熙順, 춘천시립도서관)·남자현(南慈賢, 경북 영양 남자현지사역사공원)·김마리아(金瑪利亞, 서울 보라매공원), 독립운동가이자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權基玉, 서울 항공박물관), 이화여대 총장 김활란(金活蘭, 서울 이화여대), 중앙대 총장이자 초대 상공부장관 임영신(任永信, 서울 중앙대), 박정희 전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陸英修, 충북 옥천),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홍상, 서울 목동이대병원) 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일컬어지는 나혜석(羅蕙錫)의 동상이 수원 나혜석 거리에 있다.



나혜석 동상 1



나혜석 동상 2

수원 출신의 시인, 소설가, 화가

나혜석은 조선왕조가 기울어가던 시기 수원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1896년 당시는 조선팔도가 23부제였으므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부 수원군 수원면 신평리에 해당하였다. 그의 할아버지가 호조참판을 지냈으며, 아버지 나기정(羅基貞)이 시흥군수·용인군수 등을 지냈으므로 ‘나 참판댁’, ‘나 부자집’ 소리를 들을 정도의 명문가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제관계는 2남 3녀 중 넷째로 오빠 둘(나홍석, 나경석)에 언니(나계석), 여동생(나지석)이 있었다.

나기정은 관료로서 보수적이면서도 성별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신교육을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나혜석은 어려서 한학을 배울 수 있었고, 1910년에는 수원 삼일여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이 되었다. 이어 서울의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는데, 3학년 때는 반장을 하였고 동급생 7명 중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이후 둘째 오빠 나경석의 권유로 일본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 유학하여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동경에 유학하는 조선 여학생 수효는 30명이 이 르나... 그 중에도 제일 학업 성적이 남보다 출중한 여자 유학생은 여자미술학교 생도 나혜석, 여의학교(女醫學校) 생도 허영숙(許英肅), 일본여자대학교 부속 고등여학교 졸업생 김수창(金壽昌) 등 세 규수이다.”

-매일신보 1914년 4월 9일자-

나혜석은 유학 시절 나경석의 친구이기도 한 시인 최승구(崔承九)와 교제한다. 나경석은 최승구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숙부 밑에서 자란 점, 결핵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이미 혼인한 몸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교제를 반대하였다. 또한 아버지 나기정은 나혜석에게 좋은 혼처가 났으니 공부를 그만두고 귀국할 것을 종용하였다. 나혜석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서 1914년 12월 『학지광(學之光)』에 ‘이상적 부인(理想的 夫人)’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양부현부(良夫賢父)의 교육법은 없으면서 양처현모(良妻賢母)의 교육법만 있는 것은 여자를 부속물로 본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여러 명의 첩을 두었던 아버지 때문에 어릴 적 어머니의 마음고생을 지켜보았던 나혜석으로서는 조선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유학 중 자유연애를 주장하고, 조선의 봉건주의와 남존여비 사상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 결혼하라는 권유도 듣지 않자 딸에 대한 학비 송금도 끊어버렸던 아버지 나기정은 1915년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이어 유부남이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약혼을 감행했던 최승구도 1916년 초에 폐병과 결핵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후 나혜석은 춘원 이광수를 사이에 두고 친구인 허영숙과 삼각관계를 이루며 유학생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으나, 허영숙에게 양해의 편지를 보내고 이광수와는 자연스럽게 친구로 돌아갔다.

1918년 미술학교를 졸업한 나혜석은 귀국하여 모교인 진명여학교에 근무하면서 『신여자(新女子)』, 『폐허(廢墟)』 등 잡지 동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시와 소설을 쓰고 판화와 신문 만평도 그렸다. 1919년 3월에는 이화학당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때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김우영(金雨英)으로 전 부인과는 사별한 상황이었다. 나혜석은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고 항변하였고, 증거가 부족하여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었다. 석방에 도움을 준 김우영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된 끝에 이들은 1920년에 결혼하였다. 나혜석은 결혼 조건으로 ① 평생 지금까지 사랑해 줄 것 ②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③ 시어머니와 전처 딸과는 별거하게 해줄 것 ④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 등을 제시하였는데, 김우영은 이를 받아들였다.

나혜석과 김우영은 이후 11년을 같이 살면서 딸 1명, 아들 3명을 두었으며, 나혜석은 자유로이 작품활동을 하였다. 특히 1921년 3월 19일 경성일보사 건물에서 유화 70점을 전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최초의 여성 유화 개인전시회’로 기록되고 있다. 전시 첫날 5,000여 명의 관람객이 전시회를 찾았으며, 당시 「매일신보」에서는 ‘인산인해를 이루도록 대성황이었다’고 보도하였다. 이해 김우영이 외교관으로 안동현에 부임하게 되자 남편을 따라 만주로 이사하였는데, 나혜석은 여기서 여성을 위한 야학을 열었는가 하면 1923년에 일어난 황옥(黃玉) 경부 사건에 관련자를 돕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27년 김우영이 총독부에서 외지 근무자에게 주는 해외 위로여행 포상 대상자가 되었고, 나혜석은 남편과 함께 세계여행을 하게 되었다. 시베리아 철도로 러시아를 횡단한 뒤 유럽을 돌고 미국을 거쳐 귀국하는 여정이었



나혜석의 개인전을 알리는 신문기사

다. 나혜석은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을 여행하며 여러 박물관·미술관에 들러 대가들의 작품을 직접 관람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우영은 법률 공부를 위해 독일로 향하였지만, 나혜석은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다.



세계여행을 떠나는 나혜석·김우영

선각자, 신여성, 페미니스트 1세대

1927년 10월 나혜석은 파리의 유학생들이 주최한 환영회에서 최린(崔麟)을 처음 만나게 된다. 나혜석과 최린은 빠

르게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파리에 있는 동안 잦은 만남을 가졌다. 나혜석은 자신의 불륜에 대해 당당했으며, '결혼한 후에 다른 남자나 여자와 좋아 지내면 부도덕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자기 남편과 아내와 더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활력을 얻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소문은 파리 한인 사회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 사건 이후 나혜석의 삶은 불행으로 바뀌게 된다. 1년 8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고 1929년 3월에 귀국한 김우영은 외교관 생활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 무직자 신세였다. 나혜석은 홀로 시댁인 부산에 남아 셋째 아들을 낳았고, 구미 여행 중 그린 그림과 수집한 그림으로 '구미 사생화 전람회'(9.23-9.24 수원)를 개최하는가 하면 구미 여행담을 여러 곳에 발표하였다. 반면 나혜석은 시댁의 친척까지 떠맡아 돌봐야 하는 처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프랑스에서 최린과의 염문 소식을 알게 된 남편 김우영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게 된다. 급기야 김우영은 나혜석에게 이혼해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시댁의 압박까지 더해오자 1930년 11월 20일 나혜석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김우영과 이혼하였다. 이때 아이들은 아버지인 김우영이 맡기로 하여 나혜석은 혼자가 되었다.

나혜석은 이혼한 후에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한테나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사랑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생은 충분한 교제 경험으로 인물을 선택할 만한 기회가 있으므로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알고 줄 줄 아는 것은 기생밖에 없다'거나 심지어 '배우자를 잊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외정사는 실수도 아니며 죄도 아닌 진보된 사람의 행동'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자화상(1928년)



나혜석과 자녀들

이러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남성은 물론 여성들에게까지도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34년에는 「이혼고백장(離婚告白狀)」과 「이혼고백서(離婚告白書)」를 발표하여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도덕과 제도·인습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 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서양이나 동경쯤 되더라도 내가 정조 관념이 없으면 남의 정조 관념 없는 것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남에게 정조를 유린하는 이상 그 정조를 고수하도록 애호해주는 것도 보통 인정이 아닌가. 자기가 직접 쾌락을 맛보면서 간접으로 말살시키고 저작(咀嚼)시키는 일이 불소(不少)하외다. 이 어이한 미개명(未開明)의 부도덕이나.

-「이혼고백서」 중에서-

또한 자신과 연락을 끊어버린 최린에게 분개하며 정조유린죄(貞操蹂躪罪) 명목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하였다. 이어 “정조(貞操)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취미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떡 먹고 싶을 때 떡 먹는 거와 같이 임의(用志)로 할 것이오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다.”는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이혼과 불륜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나혜석이 자유연애

를 주장하는 불륜녀에 이혼녀라는 사실은 그에 대한 냉소와 질시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장차 이혼의 비극을 막기 위해 '시험결혼'이 필요하며, 시험결혼 기간 동안에는 산아 제한이 필요하다는 식의 획기적인 방안은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타락과 탈선을 부추기는 요녀라고 비난하였으며, 나혜석이 지나갈 때나 그의 집에 쓰레기와 돌을 던지기도 하였다. 나혜석은 점차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육체적으로는 파킨슨병과 관절염, 중풍이 찾아들었다. 한때 속세를 떠나려고 수덕사와 해인사를 찾았으나 그마저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진 나혜석은 병원과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된다. 1948년 11월 용산의 자제원(慈濟院)에 '61세 심영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그는 그해 12월 10일 생을 마감하였다. 당시 연구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신의 처리 결과나 무덤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이러한 나혜석에 대한 평가는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전까지는 '바람피우다 이혼당한 여자'로 치부되었다면 1980년대 들어 페미니즘이 부상하면서 나혜석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저항한 신여성',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비운의 페미니스트', '사회적 변혁의 씨앗이 된 선각자'로 조명되기 시작한다. 그는 억압된 조선 여성들을 대변하고, 가부장적 사회를 질타했던 신여성의 표본이라는 평가가 이어졌고, 2000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나혜석 거리, 나혜석 생가터, 나혜석 전시

나혜석에 대한 재조명 및 현양사업은 그가 태어난 수원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수원시는 나혜석 탄생 100주년(1996년)을 기념하여 '전국 여성 미술제'를 개최한 데 이어 이듬해부터 매년 나혜석 미술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1999년에는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08년 4월부터 나혜석 문화예술제를 열고 있다. 1995년에 나혜석 기념사업회가 공식 발족되었고, 기념사업회에서는 나혜석의 작품을 모아 『원본 정월 나혜석 전집』(2001년)을 펴냈다. 전집에는 나혜석의 그림 50여 점, 소설 6편, 희곡 1편, 시 6편, 콩트 1편, 수필 19편, 여성비평 12편, 페미니스트 산문 11



「이혼고백장」(『삼천리』, 1934년)



『나혜석전집』(2001년)



나혜석거리 표지석

인형의 가(家)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수하게
엄밀히 막아논
장벽에서
견고히 달렸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주게

시 「인형의 가(家)」 일부

편, 미술 관계 에세이·인터뷰·기사 19편, 구미여행기·구미유기 19편, 인터뷰·좌담·응답·기타 10편, 부록 등 방대한 양의 자료가 수록되었다. 나혜석은 유학 시절 처음에는 유화를 배웠지만 점차 수채화, 조각, 목판화, 석각공예, 서예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였다. 또한 전공이 그림이면서 소설, 시, 희곡, 산문, 논설, 기행문, 감상문 등 문학 분야에도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였던 것이다.

2001년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나혜석의 생애와 그림>전이 성황을 이루었고, 2004년에는 용주사 수원교당 앞에서 제1회 나혜석 추모음악회가 개최된 이래 매년 10월에 나혜석 추모음악제가 개최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2000년에 나혜석을 기리기 위해 인계동에 300여 미터 규모의 ‘나혜석 거리’를 만들고, 나혜석 동상 2기와 분수대, 거리 공연장,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다. 효원공원 쪽에 있는 동상은 앉아있는 모습이며, 동상 뒤의 벽은 ‘나혜석이 생전에 온몸으로 부딪혔던 사회의 보수적 벽’을 상징한다. 또한 소나무 형상의 갈라진 틈은 ‘사회의 벽을 깬 신여성의 진취적 면모’라는 의미를 담아 조성되었다고 한다. 시비에는 그의 대표적인 시 ‘인형의 가(家)’가 새겨져 있다. 그의 동상 옆에 앉아 그의 삶을 돌아본다.

내 一生

나는 십팔 세 때로부터 이십년간을 두고 어지간히 남의 입에 오르내렸다. 즉 우등 1등 졸업 사건, M과 연애 사건, 그와 사별 후 발광 사건, 다시 K와 연애 사건, 결혼 사건,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활약 사건, 황옥(黃錫) 사건, 구미 만유(漫遊) 사건, 이혼 사건, 이혼 고백서 발표 사건, 고소 사건. 이렇게 별별 것을 다 겪었다.

나혜석은 자신이 표현했듯이 참으로 굴곡진 삶을 살았다. 참판의 손녀, 군수의 딸로 태어나 부유한 환경 속에서 신교육을 받고, 일본 유학까지 할 수 있었다. 이광수와 비슷한 시기에 소설을 발표하였고, 귀국해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첫 유화 개인전 개최, 첫 세계 일주 여성 등의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차례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선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언론·잡지에 꾸준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기고하였다. 반면 이혼과 방황, 질병 등으로 쓸쓸한 말로를 맞이한 그의 52년 삶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 1896년 수원 출생. 아버지 나기정(羅基貞), 어머니 최시익(崔是議)
- 본관 나주(羅州). 호 정월(晶月). 본명 나명순(羅明順)
- 삼일여학교·진명여고보 졸업.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

서 서양화 전공

- 1920년 변호사 김우영(金雨英)과 혼인
- 1921년 3월 19일 첫 개인전 개최(여류 최초 유화 개인전)
- 1927년 유럽 여행. 파리에서 최린을 만나 염문을 뿌림
- 1934년 「이혼고백장(離婚告白狀)」 발표
- 1938년 「해인사의 풍경」 발표 이후 떠돌아다님
- 1948년 용산 시립병원 무연고자 병실에서 사망(52세)
- 2000년 문화관광부 '2월의 문화인물'에 선정

한편 1919년 재판기록에는 나혜석의 출생지가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신흥리'로만 표시되어 있다. 즉 나혜석의 구체적인 출생지를 알 수 없다. 오빠 나홍석·나경석의 출생지는 신흥동 291번지로 분명히 나오지만, 그곳을 나혜석의 출생지로 단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1년에 수원시가 고증되지 않은 채 나혜석 생가터로 추정되는 수원시 팔달구 신흥동에 '나혜석 생가터' 표지석을 세우고 생가 복원을 계획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나혜석기념관을 세우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나혜석 생가터에서 가까운 수원시립미술관 행궁 본관에서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요즘 <머무르는 순간, 흐르는 마음>전을 전시 중이다.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가인 나혜석, 박래현, 박수근, 배운성, 백남순, 백영수, 서진달, 임근홍, 이응노, 이종우, 이종섭, 장욱진, 천경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전시물은 나혜석의 사진첩이다. 나혜석이 여행한 파리, 금강산, 충석정, 해인사 등의 흔적과, 가족을 주제로 한 사진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회는 2026년 1월 11일까지 열린다.



<머무르는 순간, 흐르는 마음>전 포스터



나혜석 생가터 표지석

글 한미라(녹취전문)

향촌사회사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20세기 향촌사회의 생활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을 찾아서

김지호

우리가 대체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찾는다. 기념관이 개관한 것은 1987년의 일이지만 시작은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8월 일본 순시선이 독도 앞 500미터까지 접근한 사건이 일어났고, 1982년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가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났고, 때를 맞추어 발표된 노래 ‘독도는 우리땅’의 인기는 그야말로 전국을 휩쓸었다. 이어 8월에는 국난 극복의 민족정기를 드높이기 위한 독립기념관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독립기념관 건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특이할 점은 기념관 건립비용을 국민성금으로 총담함으로써 국민 단합을 보이자는 것이었다. 그 결과 1년간 500억 원을 모금한다는 계획을 훨씬 초과하여 700억 원의 성금이 모아졌고, 정부에서도 250억 원을 지원하였다. 부지는 지금의 천안시 목천읍 흑성산 자락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1983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1987년 광복절을 맞아 기념관을 개관하게 된 것이다. 개관 4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기념관은 11만여 점에 달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누적 관람객이 6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경기도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기도지사의 독립기념관 건립 의지가 표출된 이후 타당성 조사 용역,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념관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유치 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로는 안성, 화성, 파주 등지로 나타난다. 안성시는 현재 만세고개에 있는 ‘안성3·1운동기념관’을 확대하여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며, 화성시도 작년에 개관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을 활용하여 경기도 독립기념관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파주에서는 천안에 가까운 경기 남부지역보다는 경기북부에 기념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안성의 기념관은 전

에 방문한 기억이 있는 반면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은 작년 개관 이후 몇 번 가보려고 했던 터에 마침 관련뉴스를 접한 것을 빌미삼아 화성으로 내달았다.

그날(4월 15일)을 기해 2024년에 개관... 조문기 선생 특별전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은 일제강점기 화성 사람들의 독립운동과 그 정신을 기리고, 화성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전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주소는 화성시 향남읍 제암고주로 34이며, 제암교회와 제암리3·1운동순국유적지, 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 등이 있는 사적지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다. 제암교회 옆에 붙어있던 옛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을 확장 이전한 것으로 개관일인 4월 15일은 1919년 당시 제암리 주민들이 무참히 희생된 날이기도 하다.

기념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장은 화성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와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항일투쟁을 다루고 있고, 기획전시실에서는 화성 독립운동을 주제로 매년 다양하고 새로운 전시가 열린다. 어린이체험실에서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하여 독립운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상설전시실은 크게 다섯 개의 주제로 나누어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 1부 : 국권 침탈과 화성 사람들.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일제에 맞서 싸우는 민중들의 구국운동
- 2부 : 3·1운동과 화성 사람들의 저항. 1919년 3월 21일 동안 지역 3·1운동을 시작으로 송산·서신·우정·장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입구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안·향남·팔탄 등 화성 전 지역으로 확산된 만세시 위 상황

- 3부 : 3·1운동 이후 화성의 독립운동. 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꾼 일본의 한반도 지배정책에 대한 우리 민족의 대응. 청년동맹 결성, 신간회 활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 다양한 투쟁활동
- 4부 : 민족말살정책과 강제동원의 현실. 일제 말기 전쟁터와 노동현장으로 강제동원된 이들의 생활상
- 5부 : 화성의 독립운동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명단

기획전시실에서는 부민관 폭파 의거 8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조문기의 시한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전시가 개최되고 있다.¹ 해방을 불과 3주 남겨둔 시점인 1945

년 7월 24일에 벌어진 ‘부민관 폭파 의거’는 일제에 대한 ‘마지막 의열투쟁’이라 불리고 있다. 이 마지막 독립운동의 주역 중 한 분이 바로 화성시 매송면 출신 조문기(趙文紀, 1927~2008) 열사이다.

부민관(府民館)은 1935년에 경성부가 경성전기주식회사의 기부금을 받아 세운 극장으로 강연회나 연극·영화·음악·무용 등 공연을 개최하는 장소였다. 지금의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에 있었으며, 당시 드물게도 냉·난방 시설을 갖춘 최신식 건물이었다.² 1945년 7월 24일 부민관에서 ‘아세아민족분격대회(亞細亞民族憤激大會)’가 열렸다. 주최자는 친일파 박춘금(朴春琴)이 조직한 대의당(大義黨)이었으며, 이날 박춘금은 ‘아세아 민족 해방’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을 선동하여 전쟁에 동원하려는 강연이 계획되어 있었다. 행사에는 조선총독, 조선군사령관, 일본 괴뢰정권 대표, 친일반민



수감된 독립운동가의 탈주를 막기 위한 족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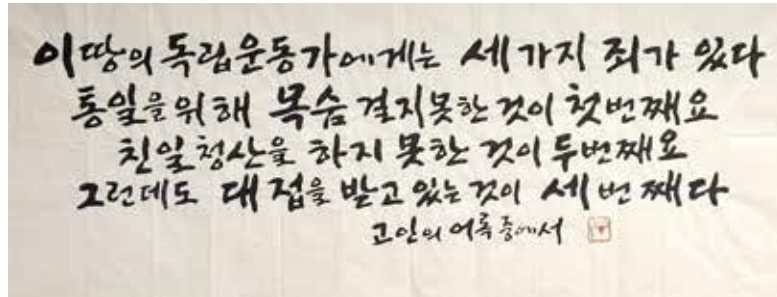
화성 지역 3·1운동 독립운동가

1 기념관은 개관 이후 <어느 독립운동가의 삶과 일상>(2024. 4. 16~2025. 3. 9.)을 기획 전시하였고, 로비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억상자>전(2025. 3. 1~ 2025. 5. 11.)과, <2024년 특별전시 ‘무언(無言)의 독립운동가 무원 김교헌’>전(2024. 11. 12~ 2025. 2. 16.)을 개최하였다.

2 부민관은 해방 이후 1954~1975년에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다가, 국회의 여의도로 옮겨간 뒤 서울시민회관, 세종문화회관 별관 등으로 쓰였다. 1991년 이후 서울시의회 건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02년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전시 포스터



조문기 선생의 어록

축행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때 비밀결사단체인 대한애국 청년당(大韓愛國靑年黨)의 유만수(柳萬秀)·강운국(康潤國)·조문기는 부민관에 잠입하여 강연장과 화장실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뒤 이를 폭파하여 행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부민관 폭파 의거’라 부른다. 박춘금은 사재를 들여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이들 주동자를 잡으려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방이 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 조문기는 고향에서 은신하며 야학을 운영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1948년에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시위를 주도함으로써 미군정 포고령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연극배우로 활동하였으며, 1959년에는 난데없이 이승만 대통령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이후 광복회 독립정신홍보위원회 홍보위원(1983~1988), 광복회 경기도지부장(1985~1996) 등을 역임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서훈되었으며, 1999년에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자신의 ‘마지막 소원’인 『친일인명사전(親日人名事典)』³ 편찬을 추진하였다. 2008년 2월 5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제암교회 학살 만행, 스코필드 박사, 순국유적지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삼시간에 전국 각지로 퍼져갔고, 4월 말까지 꾸준히 전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1,200회 이상의 시위가 일어났으며,⁴ 만주의 용정(龍井)·훈춘(暉春),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미국의 필라델피아 등 교포가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들고 일어나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표출하였다. 이때 제암리 지역에서는 유학자·개신교·천도교 지도자들이 만세운동을 계획하였고, 발안장날 장터에서 주민



업서에 나오는 부민관 건물



부민관 폭파를 모의하는 모습(삽화 전시물)

3 『친일인명사전』은 2002년에 편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작업에 착수하여 2009년에 3책으로 발간되었으며, 총 4,776명의 친일 인물 행적이 수록되었다.
4 일제 측 자료에는 1,214회에 11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박은식의 『독립운동지혈사』에서는 1,542회에 202만 명 이상의 군중이 시위에 나선 것으로 기록하였다.



제암교회



제암리 3·1운동 23위의 묘



제암리 삼일운동 순국유적지에 세워진 스코필드 동상

1천여 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시위대가 주재소로 접근하면서 일본 헌병들이 출동하여 마구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시위를 이끌던 이정근(李正根) 열사 등 세 명이 목숨을 잃고, 시위대 일부가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일본인의 주택과 학교, 우편소, 면사무소, 주재소를 파괴하는 등 시위는 점차 격렬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인 순사가 쏜 총에 시위대가 쓰러지자 격분한 군중이 일본 순사를 몽둥이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일제는 대대적인 보복전에 나섰다. 이들은 장안면·우정면·팔탄면 지역 마을을 습격하여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대거 체포하였다.

4월 13일에는 천안에 주둔하던 일본군 제79연대의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 중위가 병력을 이끌고 발안으로 출동하였다. 명분은 발안 일대의 경비 강화라 하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향남면 제암리와 팔탄면 고주리 지역의 만세운동 주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였다. 4월 15일 아리타 부대는 그동안 무자비한 진압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속여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태도를 바꾸어 교회를 봉쇄하고 불을 질렀으며, 사격을 가하여 주민을 대량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희생된 주민은 공식적으로 2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제암리와 이웃한 팔탄면 고주리로 가서 천도교 지도자 김홍렬 등 6명을 살해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 하였다. 그러나 영국 출신 선교사 스코필드의 활동으로 일제의 잔악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장로교 선교사이며 수의사였던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는 191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세균학(細菌學)과 위생학(衛生學)을 강의하였다. 그러다가 3·1운동 직전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이갑성(李甲成)을 만나 만세운동을 위한 국

제정세 파악의 일을 맡게 되었고, 탑골공원의 만세시위 모습, 시위대에 대한 일본의 탄압 장면 등을 촬영하고 글을 붙여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어 4월 17일에는 제암리 현장을 찾아 ‘떨리는 손’(스코필드 자신의 표현)으로 참상을 촬영하고, 「제암리·수촌리에서의 잔학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암리 사건을 세상에 폭로하였다. 이듬해 3·1운동 목격담을 『끝 수 없는 불꽃(Unquenchable Fire)』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는데, 그에 대한 암살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었다. 이후 1958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에서 스코필드를 국민 자격으로 초빙하였으며, 1970년 4월 16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며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쓰거나 고아를 돌보고 교육을 장려하는 활동을 하였다.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으며, 사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제암리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을 기려 ‘3·1운동 당시 34번째 민족대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늘날 제암리는 3·1운동의 학살현장이자 순국지로 기억되고 있다. 자칫 문힐 뻔했던 사건은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고, 1982년에는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묘역을 조성하였다. 이어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이 건립되고, 제암교회 주변 지역이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이름으로 국가사적(國家史蹟, 당시 제299호)으로 지정되었다.

“삼일운동을 ‘삼일혁명’으로 높이고, 삼일혁명기념관을 건립하자”

전시를 둘러보고 나서 한동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장을 만나 미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고향이 어디신가요?

제 고향은 여기서 가까운 화성시 조암면 주곡리입니다. 아시다시피 1919년 당시 화성군 지역에서 가장 격렬한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해 4월 3일에 일어난 우정면·장안면 일대 만세운동 때 화수리주재소의 일본 순사가 와바다를 쳐단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화수리주재소 자리에 들어선 것이 '화수국민학교', 지금의 화수초등학교인데, 제가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3·1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일곱 살 때쯤 일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무척 귀여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아버지가 장에 송아지를 내다팔러 가시는 거예요. 어미소가 가야 송아지도 따라갈 테니까 어미소를 앞세우고 발안장까지 가는데, 거리가 왕복 60리 길이에요. 그렇게 송아지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암리) 앞길을 지나면서 아버지가 제암리 교회 학살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또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독립만세를 불렀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셨대요. 견지를 못하시니까 아버지가 소달구지로 모셔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때 기억이 또렷해요. 학교 입학해서도 역사 관련한 책을 즐겨 읽게 되었고, 초등학교 5

학년 때 서울로 전학하면서 역사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점점 굳히게 되었습니다.

역사학 전공 후 수원시 공무원이 되셨어요.

1996년도에 수원문화원에서 『수원시사(水原市史)』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역사 연구자를 필요로 할 때 계약직으로 왔습니다. 1997년까지 시사 4권을 발간했는데, 그 후에도 '수원시사편찬실'이라는 이름으로 기구가 존속하면서 수원시청의 위탁사업을 진행했어요. 예를 들면 수원의 동족마을이나 마을지 편찬, 근현대사 증언채록 사업 등을 하다가 2004년에 수원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조사 및 전시기획 담당 계약직으로 수원시청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수원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시행한 학예사 공채에 응시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 7월 1일이고, 박물관은 10월 1일에 개관하게 됩니다.

수원시에서 근무하신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처음에는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10월 1자로 수원박물관 학예사로 발령받았습니다. 2009년 7월에 학예팀장이 되었고, 2016년 7월까지 7년간 재직하다가 7월 29일부로 화성박물관 관장으로 옮겨서 2024년 12월까지 8년 5개월 근무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3·1독립운동기념비(1946년)



3·1운동순국기념탑(1959년)



3·1운동순국기념탑(1983년)

정년퇴직 후 곧바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년 후에는 막연하게 ‘고향에 봉사하는 일’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관장 초빙 공고가 났습니다.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 망설이지 않고 응시했습니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의 수장으로서는 사명과 포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이라고 부르는 역사적 사건은 ‘3·1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높여서 그 의미와 가치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으므로 자유·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민주혁명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4·19혁명, 1987년 민주화운동, 2000년대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19세기 중엽 개항 이후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한테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단연코 3·1혁명이라고 봅니다. 3·1만세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을 표방합니다. 유럽으로 눈을 돌리면 1789년의 프랑스혁명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갔기 때문에 ‘프랑스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에서 200년 동안 싸워서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해방되자마자 첫 번째 제헌의회에서 여성 참정권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삼일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임시정부에서 삼일절마다 ‘삼일혁명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였고,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할 때 헌법 초안에도 ‘삼일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승만이 ‘삼일운동’으로 바꾸었어요. 이제 본래대로 삼일혁명으로 돌려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삼일혁명)을 기념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는 마땅히 기념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농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정읍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나라의 빛

을 갚자고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의 기념관은 대구에 있습니다. 도로 이름도 ‘국채보상로’라고 지었어요. 4·19혁명과 관련해서도 기념도서관과 기념회관(서울 종로), 기념관(光州)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일혁명과 관련된 국가 기념관이 없는 거예요. 국립으로 삼일혁명기념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념관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3·1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장소 세 군데가 나오는데, 탑골공원, 아우내장터, 제암리입니다. 탑골공원은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낭독했던 곳이고, 천안 아우내장터는 유관순(柳寬順) 열사가 만세를 불렀던 곳입니다. 1987년 광복절에 천안 독립기념관이 개관하였고, 최근 서울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제암리만 남았는데, 3·1혁명기념관을 제암리에 세워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굳이 제암리가 아니더라도 삼일혁명기념관을 반드시 건립하고, 3·1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 조성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한 날 마침 비가 내렸다.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전시를 관람하거나 23위의 묘를 참배하면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게 있어 스스로 힘들었다. 더욱이 뜻밖에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 좀처럼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1919년의 만세사건을 ‘운동’이 아닌 ‘혁명’으로 높여 불러야 하고, 반드시 ‘3·1혁명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금은 무겁고도 벅찬 마음으로 기념관을 나섰다.

글 김지호

청소년교육학 전공. 공인중개사이며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도사. 자연생태 안내자 교육과 치매전문 교육 수료. 전통 북춤 공연, 역사를 걸들인 지역 탐방, 문화제 및 명산대천 답사·여행, 글쓰기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오색찬란(五色燦爛)한 부천 자연생태여행

- 부천식물원, 부천수목원, 자연생태박물관, 농경유물전시관, 누구나 숲길 -





이우진



보통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은 차를 몰고 나를 이로 밖으로 나간다. 그런데 식물원, 수목원, 박물관을 따로따로 방문하는 가정이 꽤 많다. 그렇다면 식물원, 수목원, 박물관, 전시관, 숲길이 모두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겨울철에 방문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부천에는 자연과 함께 시원한 겨울바람을 만끽하며 산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숨겨진 보물 장소가 있다. 그곳은 바로 부천 도심에 있는 부천자연생태공원이다. 부천자연생태공원 안에는 부천식물원,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자연생태박물관, 농경유물전시관, 누구나 숲길이 있는데, 이렇게 5곳을 모아서 겨울철에 오색찬란한 아름다운 부천자연생태여행을 즐길 수 있다.

부천자연생태공원은 지하철로 떠나면 아주 편리하다. 먼저, 지하철 1호선을 탄 뒤에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내려 7호선으로 환승한다. 이후 까치울역까지 20분 정도 이동하여 1번 출구로 나가면 출구 밖에서 불과 200~300m 밖에 되지 않아 3~4분이면 금방 도착한다. 무엇보다도 다섯가지의 독특한 매력이 어우러져 있는 부천자연생태공원은 지하철로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지만, 주변에 다양한 음식점이 있어서 관람 이후에 맛있는 식사를 하는 데도 부담이 전혀 없다.

- 1 부천무릉도원수목원.국화꽃길
- 2 부천자연생태공원 및 부천식물원
- 3 부천무릉도원수목원.폭포

자연의 향기에 취하는 아름다운 ‘부천식물원’

부천자연생태공원의 바로 코앞에 있는 곳이 아름다운 부천식물원이다. 먼저, 매표소에서 식물원, 수목원, 자연생태 박물관, 3D영상관 등을 구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므로 원하는 장소만 구분해서 관람할 수 있다. 즉, 모두 다 둘러봐도 무방하지만, 선별적으로 탐방해도 좋다.

부천식물원에 입장하게 되면 식물원의 중앙에는 커다란 ‘워싱턴 야자수’ 세 그루를 만나게 되는데, 과연 크기가 압권이다. 특히 규모와 크기도 매우 웅장하지만,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사진찍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먼저 울창한 자생식물원이 등장한다. 자생식물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차례대로 다육식물관, 아열대식물관, 수생식물관, 재미있는 식물관, 식물전시관을 차례대로 관람할 수 있다.

자생식물관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종이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바로 옆에 있는 다육식물관은 주로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크기 형태의 알록달록한 선인장을 만나볼 수 있다. 아열대식물

관에서는 아열대 기후의 가장 대표적인 식물인 야자나무와 고무나무를 만나볼 수 있는데, 이곳은 마치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울창한 숲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수생식물관은 아름다운 인공폭포와 작지만 예쁜 연못을 잘 연출하였고, 주변에 다양한 수생식물과 양치식물을 조성하여 색다른 분위기를 잘 풍기고 있었다.

재미있는 식물관은 특이한 식충식물, 모양이 독특한 식물, 그리고 움직이는 식물도 있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자연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식물전시관은 식물의 씨앗, 식물의 DNA, 식물과 인간, 식물 생태 디오라마 등이 전시되어 있어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연학습을 하는 데 아주 유익한 장소다.

다양한 주제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는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자, 이제 부천식물원을 관람하였다면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부천무릉도원수목원으로



로 나가보자! 식물원을 관람하고 뒤편으로 나가면 무릉도원수목원으로 향한다. 그래서 11월에 방문하면 아름다운 단풍과 국화꽃을 만나볼 수 있기에 겨울이 오는 11월에 방문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아름다운 단풍과 국화꽃을 지나면 왼편에는 편안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그 바로 앞쪽이 자연생태박물관이다.

자연생태박물관 뒤편으로는 힐링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서 관람하다가 힘들면 이곳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쉴 수 있다. 힐링 쉼터 앞쪽으로는 작은 분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생태연못-선큰정원(sunken garden)있는데 이곳은 바닥이 움푹 들어간 정원으로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 그리고 생태연못 뒤편으로는 재배 온실이 있는데 이곳은 연구시설이라 관람할 수 없다. 하지만 재배 온실 오른쪽으로는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는 평탄한 나무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낙엽을 밟으며 걸으면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한다.

중앙 산책로를 중심으로 걷다 보면 오른쪽에는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토리상점'이 있다. '토리상점'의 뒤편으로는 '누구나 숲길'이 잘 조성되

어 있다. 중앙 산책로를 따라가면 왼편으로는 '농경문화전시관'을 만나게 된다. '농경문화전시관'을 지나 중앙으로 가면 아름다운 폭포를 만나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왜 '무릉도원수목원'이라고 명칭을 부여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중간중간에 황금정원과 생태연못이 있는데, '암석원'은 말 그대로 크고 작은 바위와 돌을 배치하여 전원생활을 풍기게 만든다. 그리고 '약용원'은 우리나라 민간요법에 널리 쓰이는 버섯, 구기자나무, 산수유 등 약용식물을 전시한 아름다운 전통 정원이다. '돌담원'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다양한 야생화를 관람할 수 있고, '숙근초화원'에서는 겨울에 뿌리만 남아 있다가 다시 봄에 성장하는 숙근초로 이루어지는 정원이다. 그리고 '반그늘 정원'은 반그늘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을 심은 정원이고, '해그늘 정원'은 누구나 숲길과 연결되어 아름다운 데크길을 따라 반음지 식물과 자생식물이 자생하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산책하다 보면 흰색의 대형 나무가 바닥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나무화석'이다. '나무화석'은 수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자연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서 야외에 전시한 곳이다. 오랜 세월 동안 풍화작용이 있어서 일부에 균열이 있



1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자연생태관에서 바라본 수목원
 2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야생화
 3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정자와 작은 연못
 4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생태연못
 5 부천식물원 워싱턴 야자수
 6 부천무릉도원수목원 힐링쉼터

지만,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전시한 것으로써 아이들에게 친환경 자연학습을 시켜줄 수 있다. 이외에도 산책로 주변으로는 완족류 화석(고생대 오르도비스기)과 속새 화석(고생대 석탄기)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맹꽁이 서식지, 고인돌(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자 무덤)도 볼 수 있고, 이름처럼 아름다운 ‘하늘호수’를 만나볼 수 있다. 하늘호수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하늘빛이 잔잔한 호수에 녹아있는 곳,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에 비춰 보이는 아름다운 하늘빛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장소이다. 이후 위쪽으로 올라가면 ‘야외 나비정원’이 나오는데 매년 봄이 되면 호랑나비, 배추흰나비, 노랑나비를 만나볼 수 있는 장소이다. 산책하다 보면 우리나라 산에 널리 분포한 푸른 소나무, 가을에 단풍과 함께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대왕참나무, 그리고 잎이 5개씩 달리고 청록색을 띤 스트로브 잣

나무까지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을 띤 나무가 많다.

특히 아름다운 전등이 있어 나무와 잘 어울리는 ‘메타세콰이원’, 산책로 끝에는 ‘미니 스튜디오’가 있어 인생 최고 장면을 한껏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원을 배경으로 한 폭의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 인쇄할 수 있다. 스티커사진 형태로 출력이 되는데,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찍으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참 좋다.

다양한 곤충, 귀여운 동물을 만나보는 ‘자연생태박물관’

1층의 왼편에는 생태체험관, 오른쪽에는 하천생태관이다. 2층은 곤충신비관, 공룡탐험관, 중앙 복도에는 홀씨 도서관



이 있고, 3층에는 3D입체 영상관이 있다.

먼저, 아이들에게 친숙한 생태체험관으로 들어가 보자! 곤충신비관 입구 바로 앞에는 대형 애벌레를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여기에는 무당벌레를 비롯한 귀여운 귀뚜라미 등의 곤충을 아기자기하게 잘 전시해 놓았다.

특히 살아있는 곤충류, 설치류, 양서류, 절지류, 파충류 등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약 40종의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호주의 따뜻하고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비어디 드래곤',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의 건조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귀여운 '친칠라', 아프리카 남부의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레오파드 육지거북',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주로 사는 '카멜레온' 등이 있다.

하천생태관은 우리나라 하천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다양

한 주제로 전시해 놓았는데, 입구 앞에는 물고기를 이해하기 위해 눈의 구조, 물고기의 시력을 이해하기 위해 '붕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간 부분을 지나면 우리나라 잉어과에 속하는 고유종인 '치리'를 만나 볼 수 있다. 이후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외래 도입종 및 희귀 어종, 포식성 어종, 대형 어종, 한강 수계 어종 등 살아있는 다양한 물고기를 차례대로 만나볼 수 있다. 이후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하천 생태계의 먹이사슬과 상류에 서식하는 다양한 민물고기도 만나볼 수 있다.

자,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곤충 신비관과 공룡탐험관으로 가보자! 2층 오른쪽에는 곤충 신비관이 있는데, 이곳에는 곤충의 만남과 역사부터 시작하여 곤충의 자기 보호, 곤충의 색과 무늬, 곤충의 날개, 곤충의 재미있는 얼굴을 차례대로 알기 쉽게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땅



- 1 자연생태박물관에서 수목원을 바라본 사진
- 2 부천무릉도원수목원 고인돌
- 3 부천무릉도원수목원 나무화석
- 4 부천식물원 실내
- 5 부천무릉도원수목원 메타스콰이어원
- 6 자연생태박물관 전경
- 7 자연생태박물관 우리나라 고유어종



속 곤충과 물속 곤충, 숲속 곤충과 풀속 곤충, 그리고 다양한 나비의 종류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 코너는 곤충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곤충 확대경’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곤충의 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곤충 소리 듣기’와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곤충 퍼즐 맞추기’가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람하기에 좋다. 특히 곤충신비관과 공룡탐험관의 중앙 복도에는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자연학습이 가능하도록 작은 미니도서관인 ‘홀씨 도서관’이 있어서 이곳에서 잠시 책을 읽으며 편안하게 쉬어가도 좋다.

‘홀씨 도서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바로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공룡탐험관으로 들어가 보자! 공룡탐험관에서는 코뿔소처럼 대형 뿔이 인상적인 ‘트리케라톱스’, 가장 무섭고 용맹하여 공룡의 사냥꾼으로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 날아다니는 어부 ‘프테라노돈’, 재빠른 사냥꾼인 ‘벨로키랍토르’, 백악기의 암소인 ‘하드로사우루스’, 초식공룡인 ‘이구아노돈’ 등 중생대에서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다양한 공룡을 만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가장 좋

아하는 전시관이다. 이외에도 공룡시대에 대표적인 삼엽충과 암모나이트, 고생대의 생물, 그리고 육지의 동물과 공룡 화석을 관찰할 수 있다. 제일 마지막에는 공룡화석을 발굴하는 과정과 공룡의 멸종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연생태박물관의 입구 로비에 ‘가자! 박물관 탐험대!’(초등용)와 ‘나는 나는 누구일까요?’(유아용) 체험활동지가 비치되어 있어서 학습지를 들고 관람하면 아주 유익한 자연생태학습이 될 수 있다. ‘가자! 박물관 탐험대!’는 자연생태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동물의 특징과 생태를 생생하게 탐하는 학습지이다. 순서대로 생태 체험관, 하천생태관, 곤충신비관, 공룡체험관 등 학습지가 재미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초등학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면 더욱 유익하다.

우리나라 전통가옥과 농경문화를 체험하는 ‘농경유물전시관’

자연생태박물관의 앞쪽에 있는 곳이 바로 농경유물전시



- 1 부천무릉도원수목원. 무장애 숲길 산책로
- 2 자연생태박물관.공룡탐험관 증강현실 체험
- 3 자연생태박물관.공룡탐험관
- 4 자연생태박물관.레어파드 육지거북
- 5 농경유물전시관.연자매
- 6 부천무릉도원수목원.트트유아숲체험원
- 7 부천무릉도원수목원.누구나 숲길 입구
- 8 농경유물전시관

관이다. 이곳은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으므로 편안하게 관람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초가집을 비롯하여 안채, 사랑채, 뒤채, 대청마루, 연자매(돌로 만든 방아), 외양간, 각종 생활 용구와 농기구, 작은 시골 텃밭, 그리고 시골의 전원생활을 상징하는 장독대까지 다양한 농경 생활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유아를 위한 친환경 놀이터 ‘트트유아숲체험원’

부천자연생태공원의 가장 위쪽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놀이터이다. 중앙 산책로를 따라 쪽 올라가면 아름다운 작은 풍차를 만나는데, 풍차 뒤편으로는 수생식물이 있는 작은 연못이 있고, 이곳을 건너면 바로 트트 유아숲 체험원이다. 이곳은 아이들이 울창한 숲에서 자연과 함께 놀 수 있는 친환경 자연생태놀이터이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숲의 향기를 맡으면서 함께 관람하면 좋다. 트트유아숲 체험원 왼쪽으로는 ‘무장애 나눔길’을 나무데크로 만들어 놓아 편안하게 산책할 수도 있다.

마음 편하게 숲의 향기를 맡으며 걷는 ‘누구나 숲길’

말 그대로 ‘누구나 숲길’은 누구나 아름다운 나무데크 산책로를 따라 함께 걷는 길이다. 비교적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어 휠체어를 타고 가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숲길’은 ‘무장애 나눔길’이라고도 부른다. 아름다운 산책로를 따라 약 300m를 올라가면 전망대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수목원 전경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어서 금상첨화이다. 특히 겨울철에 낙엽을 밟을 때 아삭아삭 소리가 나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안내한다. 무엇보다도 겨울철에 아름답게 물든 오색단풍과 신갈나무가 산재하고 있어 아름다운 산책로가 단연 압권이다. 그래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다정하게 걷는 사람들이 참 아름답게 느껴진다.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의 다양한 매력이 존재하여 겨울철에 오색찬란한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관람할 수 있는 부천자연생태공원을 소개하였다. 이번 겨울에 수목원, 식물원, 박물관, 농경유물전시관, 그리고 ‘누구나 숲길’이 존

재해 다섯 가지를 매력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는 부천의 명소, 수도권의 관광명소인 '부천자연생태공원'을 적극 추천한다.

부천자연생태공원(부천식물원,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자연생태박물관) 이용 정보

여름철	3월~10월(09:30~18:00)	입장 마감 17:30
겨울철	11월~2월 (09:30~17:00)	입장 마감 16:30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관람료	※ 부천식물원만 관람하는 경우 무료 ※ 수목원/자연생태박물관/3D영상관은 별도 요금 징수 ※ 단체 요금은 20명 이상일 때 적용/유치원은 10명 이상일 때 적용	

부천자연생태공원 주차 안내

구분	승용차	15인승 이상	25인승 이상
최초 30분	400	600	800
30분 이후 10분마다	200	300	400
1일 주차	6,000	9,000	12,000

부천자연생태공원 찾아가는 길(교통편 안내)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하차 1번 출구(도보 5분)
버스	■ 역곡역 승차 → 까치울 사거리 하차 (5, 013-1, 013-2번) 이용 ■ 송내역 하차 → 까치울 사거리 하차(700번) 이용
승용차	부천시 길주로 660(춘의동), 부천자연생태공원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	(032)320-3000 / ecopark.bucheon.go.kr

부천자연생태공원 안내도(출처: 부천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글 이우진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일반사회교육학을 전공하였다. 2004년부터 경기도에서 중등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 <평택시정신문> 편집위원, 한국교총 언론홍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교육 & 여행> 칼럼니스트, 한국교총 현장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Research & News

경기도 시군의 '○○팔경'에 보이는 나무와 꽃

기전지역 조선개국공신의 무덤과 조선초기의 묘제

신·구 지적도 비교·고찰을 통한 지역 공간구조 변화 연구

경기도 근대기 소방시설: 소방망루, 수총기, 사이렌탑을 중심으로

경기도 시군의 '○○팔경'에 보이는 나무와 꽃

김미희

지금은 흔히 PR(Public Relations)의 시대라고 한다. 20세기 초 PR의 개념이 처음 나올 때는 '대중과의 관계'를 뜻하였다. 즉 '한 조직(기업)이 대중을 상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활동'의 의미로 쌍방 간에 '소통(疏通)'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홍보(弘報)나 광고(廣告)로 번역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물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는 해당 지역의 관광지·특산품·축제 등을 소개하는 지도 또는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다. 보는 이에게 그 지역을 홍보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방문객 유치를 늘리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홍보 게시판 중에는 ○○8경, ○○9경 등을 사진과 간단한 설명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가평군 관광지 홍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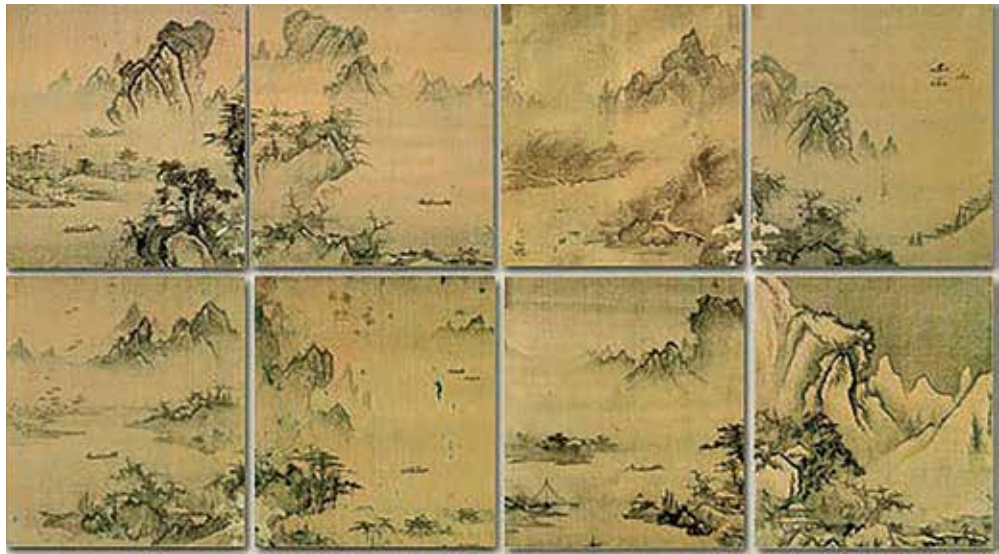
○○팔경의 유래와 변천

팔경(八景)은 일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뛰어난 경치(景致) 여덟 군데로 요약된다. 강, 바다, 호수, 산, 바위 등 해당 지역 자연 경관의 정수(精髓)로 일컬어지는데, 지역에 따라 9경, 10경, 12경, 16경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옛사람들은 이렇듯 수려한 경치를 시와 노래로 읊조리거나 그림으로 남겼다. 또한 '○○팔경' 등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화된 모습의 팔경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팔경문화의 시초는 중국의 송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호남성(湖南省) 동정호(洞庭湖) 남쪽을 흐르다 양자강(揚子江, 장강長江)에 합류하는 두 줄기 강물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을 일컬어 소상(瀟湘)이라 한다. 이곳 소상의 경치가 뛰어나게 아름다워 시인묵객이 많이 찾았다고 하며, 일찍이 송나라 때 송적(宋迪)이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를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경(理想景)으로 여겨지는 소상팔경은 산시청랍(山市晴嵐: 산마을에 걷히는 아지랑이), 연사모종(煙寺暮鐘: 안개 낀 절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원포귀범(遠浦歸帆: 멀리서 포구로 돌아오는 돛단배), 어촌낙조(漁村落照: 어촌의 저녁노을), 소상야우(瀟湘夜雨: 소상에 내리는 밤비), 동정추월(洞庭秋月: 동정호에 뜬 가을 달), 평사낙안(平沙落雁: 모래펄에 내려

않는 기러기), 강천모설(江天暮雪: 저녁에 강과 하늘에 내리는 눈)로 이루어져 있다.¹

소상팔경도는 고려 명종 때 한반도에 전해지게 된다. 명종은 신하들에게 소상팔경을 소재로 글을 짓거나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다. 이때 이광필(李光弼)이 그렸다는 우리나라의 첫 소상팔경도는 현전하지 않지만 이인로(李仁老)·이규보(李奎報)·이제현(李齊賢) 등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들이 소상팔경시를 남기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안견(安堅)·김명국(金明國)·정선(鄭敾)·심사정(沈師正)·김득신(金得臣) 등이 소상팔경도를 그렸고, 김종서(金宗瑞)·하연(河演)·정인지(鄭麟趾)·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 등이 소상팔경시를 지었다.



안견의 <소상팔경도>

중국에서 시작된 팔경은 속세를 벗어날 정도의 뛰어난 경치를 감상하고 표현하는 것이었지만, 한반도로 건너온 팔경은 그 대상이 훨씬 다양해지고 팔경으로 지역의 위상을 높이려는 풍조가 유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첫 팔경이라고 간주되는 이제현(李齊賢)의 송도팔경(松都八景)에서는 북산연우(北山烟雨: 북산의 연기와 비), 서강풍설(西江風雪: 서강의 바람과 눈), 백악청운(白岳靑雲: 백악의 갠 구름), 황교만조(黃橋晩照: 황교의 저녁노을), 장단석벽(長湍石壁: 장단의 석벽), 박연폭포(朴淵瀑布) 외에 자하심승(紫洞尋僧: 자하동의 승려 찾기)이나 청교송객(靑郊送客: 청교에서 손님 배웅) 등 개인적인 일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 말 경기체가로 유명한 안축(安軸)은 강원도 존무사(存撫使)로 재직하면서 삼척의 모습 8곳을 선정하여 시로 지었는가 하면, 이색(李穡)은 자신의 고향을 팔경으로 노래하기도 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정도전(鄭道傳)이 신도팔경(新都八景)을 지어 새로운 도읍지 한양을 현창하였고,² 전국적으로 유행한 팔경문화는 우리 국토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성종 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30여 개 군현에 팔경이 수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아마도 관동팔경(關東八景)일 것이다. 16세기를 전후하여 형

1 이 중 연사모종(煙寺暮鐘)은 연사만종(煙寺晩鐘) 또는 원사모종(遠寺暮鐘)으로, 어촌낙조(漁村落照)는 어촌석조(漁村夕照)로 전하기도 한다.
2 신도팔경: 기전산하(畿甸山河: 아름다운 서울 부근의 땅), 도성궁원(都城宮苑: 웅장한 도성과 궁원), 열서성공(列署星供: 별처럼 빛나는 관청들), 제방기시(諸坊碁市: 동문교장(東門教場: 동대문의 군사 훈련장), 서강조박(西江漕泊: 마포 서강의 배들), 남도행인(南渡行人: 노랑진 부근의 사람들), 북교목마(北郊牧馬: 서울 북쪽의 목장).



관동팔경의 하나인 죽서루(삼척)

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관동팔경은 총석정(叢石亭, 통천), 삼일포(三日浦, 고성), 청간정(淸澗亭, 고성), 낙산사(洛山寺, 양양), 경포대(鏡浦臺, 강릉), 죽서루(竹西樓, 삼척), 망양정(望洋亭, 울진), 월송정(越松亭, 울진)을 말하는데, 조선 후기 송강 정철(鄭澈)의 「관동별곡」으로 더욱 유명해졌다.³ 반면 평안도 지역의 관서팔경(關西八景)인 인풍루(仁風樓, 강계), 통군정(統軍亭, 의주), 동림폭포(東林瀑布, 선천), 백상루(百祥樓, 안주), 연광정(練光亭, 평양), 강선루(降仙樓, 성천), 세검정(洗劍亭, 만포), 약산동대(藥山東臺, 영변)는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지역적 범위를 한반도 전역으로 넓힌 팔경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조선팔경으로 전해지는 목록은 백두산, 묘향산, 모란봉, 금강산, 부전고원, 지리산, 불국사, 해운대이다. 또 조선팔경 다음으로 뛰어난 여덟 곳을 조선팔승(朝鮮八勝)이라 하여 한라산, 한려수도, 변산반도, 부여, 해인사 계곡, 속리산, 몽골포, 경성운천을 꼽기도 하였다. 반면 비교적 공식적이라 할 만한 조선팔경도 있다. 1930년 경성방송국에서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조선팔경은 금강산 일만이천봉, 평양의 대동강·을밀대·모란봉, 백두산 천지, 부전고원, 압록강 뗏목 풍경, 석굴암 해돋이, 해운대 저녁달, 한라산 고봉 등이다. 이때 선정된 조선팔경을 주제로 1936년에는 ‘조선팔경가’ 노래를 만들어 선우일선(鮮于一扇)이라는 기생가수가 불렀다. 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남한에서는 1954년에 황금심이 제목을 ‘대한팔경’으로 바꾸고 가사 일부를 바꾸어 노래하였다.⁴

이처럼 역사적으로 한반도 전체나 지역(관동, 시군(단양) 등 비교적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팔경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면(面) 단위나 작은 섬의 팔경, 심지어 정자(亭子) 하나를 대상으로 팔경을 읊기도 하였다. 지금도 각 지역의 관공서나 우체국, 기관단체 등에서 지역홍보 차원에서 팔경을 선정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한편 오늘날에는 랜드마크(Landmark)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멀리서도 눈에 띄는 물체로 흔히 건축물이나 조형물 등을 일컫는다. 세계적으로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만리장성, 마추픽추, 스톤헨지, 피라미드, 피사의 사탑 등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광화문광장, 남산서울타워, 경복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관동팔경 중 총석정과 삼일포는 현재 행정구역상 북한에 속한다. 한편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에서 낙산사 대신 청초호(靑草湖, 속초)를, 월송정 대신 시중대(侍中臺, 통천)를 관동팔경에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4 ‘조선팔경가’는 4절과 후렴으로 이루어진 반면 ‘대한팔경’에서는 백두산과 압록강이 등장하는 4절을 생략하여 3절과 후렴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3절의 가사 중 북한의 부전고원 대신 경포대로, 평양을 낙산사로 바꾸었다.



선우일선



조선팔경가 음반

경기도 시군의 팔경

경기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기팔경이나 경기9경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기(京畿)’라는 이름은 한 나라의 도읍인 경(京)과, 그 주변지역을 뜻하는 기(畿)가 합쳐진 말이다. 우리 역사에서 경기라는 말이 형성된 것은 고려 현종 9년(1018년)의 일로, 당시 수도였던 개성과 주변 13개 고을을 합쳐 ‘경기’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다. 지금으로부터 1천 년 전의 일인데, 어찌 보면 천년의 세월이 이어지는 동안 ‘경기팔경’이 나오지 않은 것은 조금 의아한 일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도 팔경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또 예로부터 문헌을 통해 전해지는 팔경이 있는가 하면 최근 시민들의 투표로 새롭게 선정된 곳도 발견된다. 시군별로 팔경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평팔경 : 청평호반(淸平湖畔: 청평호) 호명호수(虎鳴湖水: 호명저수지) 용추구곡(龍湫九曲: 용추계곡) 명지단풍(明智丹楓: 명지산의 단풍) 적목용소(赤木龍沼: 적목리의 폭포) 운악망경(雲岳望景: 운악산의 전망) 축령백림(祝靈柏林: 축령산 잣나무숲) 유명농계(有名弄溪: 유명산의 계곡)⁵
- 과천팔경 : 관악연주(冠岳戀主: 관악산의 연주대), 청계수봉(淸溪秀峰: 청계산의 빼어난 봉우리), 온온백송(穩穩白松: 온온사의 백송), 막계청담(莫溪靑潭: 막계동의 맑은 호수), 갈현울림(葛峴栗林: 갈현동 밤나무숲), 남령망루(南嶺望樓: 남태령의 망루), 자하청류(紫霞清流: 자하동의 맑은 물), 광창주마(光昌走馬: 광창들판을 달리는 말)⁶
- 광명팔경 : 도덕산 도덕정, KTX광명역의 낮과 밤, 안터생태공원, 관감당과 종택, 가학광산, 광명재래시장, 구름산 삼림욕장, 광명한내(안양천)의 사계
- 광주팔경 : 광주경기도자박물관, 분원요지와 팔당호, 앵자봉과 천진암, 남한산성, 경안습지생태공원, 무갑산, 경안천변, 태화산
- 구리9경 : 동구릉, 장자호수공원, 아차산, 한강시민공원, 구리타워, 곤충생태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돌다리곱창골목, 광개토태왕비와 동상
- 군포팔경 : 수리산 태을봉, 수리사, 반월호수, 덕고개 당숲, 군포 벚꽃길, 철쭉동산, 밤바위, 산본 중심상가 야경

5 가평팔경은 1988년에 지정된 뒤 2024년 자라섬이 추가되어 가평9경이 되었다.

6 20세기 초 과천에 거주하던 우산(憂山) 신종묵(愼宗默)이 과천지역의 풍광을 ‘군동팔경’(郡東八景, 당시 시흥군의 동쪽 지역)이라 이름붙인 바 있다. 한천수류(寒川垂柳: 한천에 드리워진 버드나무), 부림석연(富林夕煙: 부림의 저녁연기), 선암어적(仙岩漁笛: 선암의 어부 피리소리), 금평운가(金坪耘歌: 황금들판 김매는 소리), 옥봉추월(玉峯秋月: 옥녀봉의 가을달), 관악백운(冠岳白雲: 관악산의 흰구름), 남령청설(南嶺靑雪: 남태령의 갠 눈), 청계취우(淸溪驟雨: 청계산의 소낙비). 본문의 팔경은 2001년에 과천시민의 공모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새롭게 정한 것이다.

남양주팔경 : 다산(茶山) 유적지, 광릉(光陵) 숲, 북한강의 자전거길, 천마산(天磨山), 축령산(祝靈山), 오남호 수공원(梧南湖水公園), 수락산(水落山)·불암산(佛岩山), 미음(溪陰)나루

수원팔경 : 광교적설(光敎積雪: 광교산에 눈 덮인 풍경), 팔달청풍(八達淸風: 팔달산의 바람), 용지대월(龍池待月: 용지에서 기다리는 달빛), 화산두견(華山杜鵑: 화산의 진달래꽃), 화홍관창(花紅觀漲: 화홍문에서 쏟아지는 물보라), 북지상련(北池賞蓮: 북지에 핀 연꽃), 서호낙조(西湖落照: 서호의 노을), 남제장류(南提長柳: 수원천변의 버드나무)



남제장류: 수원천변의 버드나무

안산12경 : 시화호 조력발전소, 대부해솔길, 구봉도 낙조, 탄도 바닷길, 풍도, 동주염전, 안산갈대습지, 다문화거리, 김홍도길, 수암봉과 안산읍성, 호수공원과 무궁화동산, 바다향기수목원.

안성팔경 : 금광호수, 서운산, 석남사, 미리내성지, 칠장사 대웅전, 죽주산성, 고삼호수, 비봉산 일몰

안양팔경 : 관악산 망해암 일몰, 삼막사 남녀근석, 평촌 중앙공원, 삼막천 만안교, 수리산 최경환성지, 안양예술공원, 병목안 삼림욕장 석탑, 안양1번가

양주팔경 : 산성낙조(山城落照: 산성의 노을) 기당폭포(妓堂瀑布: 불곡산의 폭포), 화암종성(華庵鐘聲: 화암의 종소리) 선동자화(仙洞煮花: 꽃핀 풍경) 금화모연(金華暮煙: 금화정에서 보는 밥짓는 저녁 연기) 승학연류(乘鶴煙柳: 승학교 주변의 버드나무) 도봉제월(道峯霽月: 도봉산에 뜬 달) 수락귀운(水落歸雲: 수락산을 감도는 구름)

양평10경 : 용문사 천년 은행나무, 두물머리 느티나무와 황포돛단배, 세미원 장독대분수대와 연꽃식재지, 석창원, 북한강 물안개, 남한강 자전거길 전망대, 백운봉 정상, 양평생활체육공원, 화서 이항로 생가, 구둔역

여주팔경 : 신록모종(神勒暮鐘: 신록사의 저녁 종소리), 마암어등(馬巖漁燈: 마암 앞 고기잡이배의 등불), 학동모연(鶴洞暮煙: 학동의 저녁밥 짓는 연기), 연탄귀범(燕灘歸帆: 제비여울의 돛단배·귀가 모습), 양도낙안(洋島落雁: 양섬에 내려앉는 기러기), 팔수장림(八藪長林: 무성한 숲이 강물에 비친 모습), 이릉두견(二陵杜鵑: 영릉의 두견새 우는 소리), 파사과우(婆娑過雨: 파사성을 지나는 소낙비)

연천의 자연7경 : 임진강, 동막골유원지, 고대산, 한탄강관광지, 재인폭포, 열두개울, 백학저수지

용인팔경 : 성산일출, 어비낙조, 곱든고개와 용담조망, 광고산 설경, 선유대 사계, 조비산, 비파담 만풍, 가실벚꽃

의정부팔경 : 망월사, 미술도서관, 수락산 도정봉, 음악도서관, 의정부경전철, 회룡사,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천9경 : 도드람산 삼봉, 설봉호, 설봉산 삼형제바위, 설봉산성, 산수유마을, 반룡송, 애련정, 노성산 말머리바위, 이천 도예촌

파주의 임진팔경 : 화석정춘(花石亭春: 화석정의 봄), 장암수조(場岩垂釣: 장암의 낚시), 송암청운(松巖靑雲: 송암의 맑은 구름), 장포세우(長浦細雨: 장포의 가랑비), 동파완월(東坡玩月: 동파역의 달), 적벽범주(赤壁泛舟: 적벽의 뱃놀이), 동원모설(桐園暮雪: 동원의 저녁 눈), 진사효종(津寺曉鐘: 사찰의 새벽종)

포천의 영평팔경 : 화적연(禾積淵, 바위와 물), 금수정(金水亭, 정자), 창옥병(蒼玉屏, 병풍바위), 낙귀정지(樂歸亭址, 정자 터), 선유담(仙遊潭, 연못), 와룡암(臥龍岩, 바위), 백로주(白鷺洲, 백로가 노는 백사장), 청학동(靑鶴洞, 절벽)

화성팔경 : 용건백설(隆健白雪: 용건릉에 내린 풍경), 용주범종(龍珠梵鍾: 용주사의 종), 제부모세(濟扶母世: 제부도의 바닷길), 궁평낙조(宮坪落照: 궁평항의 노을), 남양황라(南陽黃羅: 남양의 황금들판), 입파홍암(立波紅巖: 입파도의 홍암바위), 제암만세(堤巖萬歲: 제암리 만세운동), 남양성지(南陽聖地: 남양의 천주교 순교지)



재인폭포(연천)



궁평항(화성)

○○팔경에 보이는 나무와 꽃

‘○○팔경’에서 경(景)은 경치를 뜻하므로, 원칙적으로 팔경은 자연과 세상 풍경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범종 소리, 바람소리, 새 우는 소리 등은 눈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식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식물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소나무(과천, 이천), 밤나무(과천), 버드나무(수원, 양주), 은행나무(양평), 느티나무(양평), 벚나무(군포, 용인), 철쭉(군포), 진달래(수원), 연꽃(수원, 양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상물들이 ○○팔경에 등장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이 각 지역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상통할 것이다. 각 지역과 대상물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천 도립리 반룡송(사진: 국가유산청)



반룡송(일부)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소나무과 상록침엽교목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무인데, 과천의 백송(白松)이나 이천의 반룡송(蟠龍松)은 보통 소나무가 아니다. 중국 원산의 백송은 중국 북부 원산의 소나무 변종으로, 수피가 흰빛을 띠고 매끈하여 다른 소나무와 쉽게 구별된다. 예로부터 ‘고결함과 성스러움’을 상징해 상징수, 기념식수로 궁궐·사찰·묘역 등에 식재되었다. 반룡송은 1만 년 동안 사는 나무라 하여 만년송(萬年松)이라고도 부른다. 이천의 반룡송은 하늘을 향해 용트림하는 듯한 기이한 모양에 생물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아 1996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밤나무(*Castanea crenata*)는 참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우리나라 전지역을 통해 골고루 분포하며, 밤골·울곡(栗谷)·울림(栗林) 등의 지명을 쉽게 볼 수 있다. 과천은 옛 고을 이름이 울목군(栗木郡)일 정도로 밤나무가 많았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지금도 갈현동 밤나무숲에서는 매년 ‘과천시민 밤줍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버드나무(*Salix pierotii*)는 버드나무과의 낙엽활엽수로 습지·하천가 등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가지나 뿌리가 닿으면 쉽게 새로운 개체가 생겨나기 때문에 ‘뺨는다’에서 유래한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다. 수원팔경 중 남제장류는 화홍문에서 유천교 앞까지 이르는 수원천 양쪽에 늘어서 있는 버드나무를 뜻한다. 정조(正祖)가 수원화성을 유천성(柳川城)이라 부른 것이나, 화홍문에서 흘러내리는 수원천을 유천(柳川)이라 한 것, 세류동(細柳洞)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도 수원과 버드나무의 깊은 연관성을 알 수 있다.

은행나무(*Ginkgo biloba*)는 잎이 셋노랑게 물들어 미관상 아름답고, 병충해도 강하여 가로수로 많이 심는 나무다. 196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는 동양 최고(最古)에 최대(最大) 규모를 자랑하며,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냈다는 일화도 간직하고 있다.

느티나무(*Zelkova serrata*)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규목(櫟木)이라고도 한다. 은행나무와 함께 1천 년 이상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마을 어귀 정자나무나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로 역할을 해왔다. 또한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며 잘 썩지 않아 가구나 건축재 등으로 활용된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평 두물머리에 있는 느티나무는 400년 이상 되었으며, 매년 9월이면 나무 아래에서 나라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당제가 열리고 있다. 특히 두물머리와 느티나무 주변의 황포돛배, 가을 단풍, 이른 아침에 피어오르는 물안개 등의 배경으로 사진촬영 명소로 이름이 높다.

벚나무(*Prunus jamasakura*)는 장미과 낙엽활엽교목으로 3~5월에 흰색 또는 연분홍색 꽃이 핀다. 꽃이 잎보다 먼저 피어 봄을 알리는 나무로 사랑받으며, 축제와 관광 자원으로도 널리 활용된다. 매년 봄 진해군

향제, 섬진강 벚꽃길, 여의도 윤중로 등지에서 벚꽃축제가 열린다. 수도권에서는 군포시 산본로 일대에 ‘금정역 벚꽃길’이, 용인 호암미술관 입구에는 ‘가실벚꽃길’이 조성되어 있다. 이 외에 경기도에서는 수원 의 옛 경기도청 청사와 황구지천의 벚꽃이 유명하며, 남한에서 가장 늦게 피고 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평 에텐벚꽃길이 있다.

철쭉(*Rhododendron schlippenbachii*)은 진달래과의 낙엽활엽관목으로 4~5월에 연분홍색 꽃을 피운다. 진달래보다 색이 연해 ‘연달래’라고도 하며, 독성이 있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참꽃’이라고 불리는 진달래와 달리 ‘개꽃’이라고도 한다. 군포팔경에 나오는 철쭉은 군포시의 시화(市花)로 시내 어느 곳에서나 철쭉을 마주할 수 있으며, 특히 철쭉동산에서는 2015년 이후 매년 4월에 철쭉축제가 열려, 화려한 봄 경관과 지역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는 진달래과의 낙엽활엽관목으로 한반도 전역의 산지와 구릉지에 자생한다. 3~4월경 분홍색 꽃이 잎보다 먼저 핀다. 철쭉과 비슷하지만 색이 진하고 개화 시기가 이른다. ‘두견화(杜鵑花)’ 또는 ‘천지꽃’이라고도 하며, 옛 시와 노래 속에서 봄과 이별의 정서를 상징해 왔다. 한편 북한의 국화가 진달래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현재 북한의 국화는 함박꽃나무이다.

연(*Nelumbo nucifera*)은 수련과 여러해살이 수생식물로, 7~8월 홍련·백련·청련 등 다양한 색의 꽃을 피운다. 진흙 속에서도 깨끗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절개와 청정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송나라의 학자 주돈이(周敦頤)는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은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럽혀지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겼으나 오염하지 않고, 속은 비었으나 겉은 곧고, 덩굴이나 가지도 없고, 향기는 멀어질수록 맑아지고, 꽃꽂이처럼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 있고, 함부로 하거나 가지고 놀 수 없다.”며 ‘연꽃은 꽃 중에 군자(君子)’라고 표현하였다. 한편 수원팔경 중 북지상련은 북지(北池, 만석거)에 핀 연꽃을 가리키는데, 연못은 정조의 수원화성 조성 시 축조되었다. 양평 두물머리에 위치한 세미원(洗美苑)은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뜻을 가지며,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원한 이래 2019년에는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되었다.



군포 철쭉축제 포스터



연꽃

글 김미희

공주대학교에서 생명과학과 식물생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생물생태자연연구소 대표로 있으며 국립생태원 생태계조사(외부조사원) 식물 분야 전문 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전지역 조선개국공신의 무덤과 조선초기의 묘제

김성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는 개국 한 달 후인 태조(太祖) 원년(1392)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그를 임금으로 추대한 신하 중에서 배극렴(裴克廉) 등 44인을 1·2·3등으로 나누어 책록하고, 그들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리는 한편 여러 가지 특전을 부여하였다. 일등공신은 배극렴(裴克廉)·조준(趙浚)·김사형(金士衡)·정도전(鄭道傳)·이제(李濟)·이화(李和)·정희계(鄭熙啓)·이지란(李之蘭)·남은(南閔)·장사길(張思吉)·정충(鄭摠)·조인옥(趙仁沃)·남재(南在)·조박(趙璞)·오몽을(吳蒙乙)·정탁(鄭擢) 등 16인이다. 이등공신은 윤호(尹虎)·이민도(李敏道)·박포(朴苞)·조영규(趙英圭)·조반(趙胖)·조온(趙溫)·조기(趙琦)·홍길민(洪吉旻)·유경(劉敬)¹·정용수(鄭龍壽)·장담(張澣) 등 11인이다. 삼등공신으로는 안경공(安景恭)·김균(金均)·유원정(柳爰廷)·이직(李穰)·이근(李勲)·오사충(吳思忠)·이서(李舒)·조영무(趙英茂)·이백유(李伯由)·이부(李敷)·김로(金輅)·손흥종(孫興宗)·심효생(沈孝生)·고여(高呂)·장지화(張至和)·함부림(咸傅霖) 등 16인이다. 그리고 공신책봉 전에 죽은 김인찬은 특별히 1등공신에 넣어 44명이 개국공신으로 결정되었다. 더하여 9월 27일에 조건(趙獮)을 이등공신으로, 한상경(韓尙敬)·임언충(任彦忠)·황거정(黃居正)·장사정(張思靖)·한충(韓忠)·민여익(閔汝翼) 등 6인을 삼등공신으로 추록(追錄)하였고, 동년 11월에 황희석(黃希碩)을 이등공신으로 추록하였다. 그리하여 태조(太祖) 원년에 개국공신에 책록된 사람은 모두 52인이다.

이런 조선개국공신 가운데, 문헌에 무덤의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덤이 현존하고 있는 공신을 대상으로 그의 생몰년과 무덤의 위치, 그리고 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조선개국공신 52인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24인만이 무덤의 소재가 밝혀져 있으므로, 이 글의 분석대상은 일단 개국공신 무덤 24기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현존하는 무덤은 김사형, 정희계, 남은, 남재, 정탁, 이화, 조인옥, 배극렴, 장사길, 조온, 홍길민, 유창, 조건, 안경공, 이직, 함부림, 조영무, 김균, 이백유, 이서, 한상경 등 21인의 무덤에 불과하다. 또 이 중에서도 조선후기에 조성된 이화와 김균 2인을 제외하면 실제 분석대상은 19인이다.

<표 1> 조선시대 개국공신 무덤 현황

연번	구분	이름	동국여지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현존	비고
1	1등	김사형(金士衡, 1341~1407)	양근	양근	양근	양평 목왕리	경기도문화유산자료
2		정도전(鄭道傳, 1342~1398)	과천			실전	
3		정희계(鄭熙啓, ?~1396)	양천	양천		양천구 신정동	
4		남은(南閔, 1354~1398)	용인	용인		용인 창리	
5		남재(南在, 1351~1419)	양주	양주		남양주 별내동	경기도문화유산자료

1 이후 유창(劉敞)으로 개명함.

6		정탁(鄭擢, 1363~1423)				파주 금승리	경기도기념물
7		정총(鄭摠, 1358~1397)				(추정) 파주	제단비 ²
8		이화(李和, ?~1408)				남양주 평내동	실전, 순조대 조성
9		조인옥(趙仁沃, 1347~1396)				양주 삼상리	
10		배극렴(裴克廉, 1325~1392)				증평 송산리	조선 후기 발견
11		장사길(張思吉, ?~1418)				파주 맥금동	
12	2등	조온(趙溫, 1347~1417)	교하	교하	교하	홍성 대인리	이장
13		홍길민(洪吉旻, 1353~1407)	장단 판부리	장단 판부리		연천 판부리	
14		유창(劉敞, ?~1421)	광주	광주		강동구 상일동	서울시유형문화유산
15		조견(趙狷, 1351~1425)				성남 여수동	성남시향토문화재
16	3등	안경공(安景恭, 1347~1421)	금천	금천	금천	금천구 시흥동	서울시유형문화유산 ³
17		이직(李稷, 1362~1431)	양주	양주 ⁴		고양 선유동	
18		오사충(吳思忠, 1327~1406)		광주			
19		함부림(咸傅霖, 1360~1410)	광주	광주		이천 안평리	이장
20		조영무(趙英茂, ?~1414)				광주 광동리	
21		김균(金綰, ?~1398)				광주 능평리	경기도기념물 18세기 후반 조성
22		이백유(李伯由, ?~1399)				전주 효자동	
23		이서(李舒, 1332~1410)				홍성 지정리	
24		한상경(韓尙敬, 1360~1423)				남양주 금곡리	

1. 조선개국공신의 무덤 현황

위의 <표 1>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이전, 개별 무덤 가운데 아래의 무덤은 간단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서울 서초동 산23-1번지에는 ‘전 정도전 묘’가 있었다고 구전되었지만, 1989년 발굴 결과, 묘역에서 회격묘가 발굴되고 선조 때에 변조된 백자들이 수습되어 정도전 무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⁵ 정총의 무덤은 실전하였으나, 부인 낙안김씨(樂安金氏) 무덤이 현존하여 묘제 연구에는 참고가 된다. 이화의 무덤은 현재 남양주 평내동에 있지만, 실전되었던 것을 1823년(순조 23) 무렵에 구전에 근거하여 새롭게 조성한 무덤이다. 배극렴 묘도 실전된 것을 조선 후기에 찾아 나라에서 주변의 민묘를 모두 옮기게 하고 새로운 석물을 더하여 새롭게 단장하였다. 그럼에도 묘소 자체는 원래 그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 함부림의 무덤은 옛 경기도 광주에 있던 것을 1982년에 이장하였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현재는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105번지에 소재한다.

이런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분석과 검토를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엇보다도 경기학의 견지

2 정총 묘는 실전되었고 부인 낙안김씨묘만 현존. 친형인 정탁(鄭擢, 1363~1423)과 부인의 무덤이 파주에 있으므로, 그의 무덤이 파주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3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 내에 위치.

4 디지털성주문화대전(<https://seongju.grandculture.net>)의 “이직(李稷)” 항목에는 그의 무덤이 양주 서산 신혈리에 있다고 했는데, 신혈리는 현재 고양시 관내이다.

5 한양대학교, 『전삼봉정도전선생묘 발굴조사보고서』 1990.

에서 묘소가 특정된 23기(이화 묘 제외) 가운데, 3기(배극렴, 이백유, 이서)를 제외한 19기는 모두 옛 경기지역에 위치하였던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공신전이 원칙적으로 기내(畿內)에 주어졌던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고, 한편으로는 상류층들의 무덤을 도읍 주변에 조성했던 고려의 유습이 그대로 이어진 까닭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분포 범위가 임진강·한강 수계에 속하는 광주, 양주, 양천, 금천, 양평, 교하, 파주, 연천, 장단 등인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안성천 유역권에 속하는 용인 남사읍 창리에 소재하는 남은 묘는 입지상 특별하다.

현재 묘소의 위치와 조선시대 문헌에서의 소재지가 일치하는 무덤은 김사형, 정희계, 남은, 남재, 홍길민, 유창, 안경공, 이직 등 8인에 불과하다. 모두 옛 경기지역 즉 현재의 서울·경기도의 무덤이다. 어쨌든 상기 8인의 무덤은 조선시대 내내 개국공신의 무덤으로 인지되고 있었고, 그들이 해당 군현을 대표하는 인물로 기록되었다. 덧붙여 의령남씨의 남은·남재 형제의 무덤이 모두 문헌기록에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현존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박천식은 조선개국공신의 가계수준을 고위관료(高位官僚家, 33명), 중견관료(中堅官僚家, 9명), 하급관료(下級官僚家, 1명), 무관인가(無官人家, 3명), 귀화인가(歸化人家, 3명), 미상(3인)으로 분류했다.⁶ 이들 집안 가운데 하급관료가의 장담·황희석, 무관인가의 김인찬·조영규·정용수, 귀화인가의 이지란·이민도·임언충 등 8인의 무덤은 문헌기록에도 없고 현존하지 않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존하는 조선개국공신 무덤 22기 가운데 김사형, 남재, 정탁, 유창, 안경공의 무덤은 시도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정문화재이다. 이들은 조성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서, 본고의 중심 주제인 조선초기(태조~세종)의 묘제를 연구하는 데에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다.

2. 조선왕조실록 속 조선초기 묘제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조에서 성종 연간의 묘제와 관련한 기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존 조선초기의 개국공신 무덤의 양식과 비교 검토를 위해서이다.

1) 사료 정리

사료1. 태종 6년(1406) : 명하여 대신(大臣)의 예장(禮葬)에 석실(石室) 쓰는 것을 금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전조(前朝)의 법으로는 대신의 예장에 석실 쓰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삼가 석실의 제도를 살피건대, 예전(禮典)에는 없는 것이며, 산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고 죽은 사람에게는 무익하니, 바라건대,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여 회격(灰隔)만 쓰고 석실은 쓰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태종 6년 윤7월 28일)

사료2. 태종 7년(1407) : (좌명 공신 신극례의 예장(禮葬)과 관련하여) 이문화가 아뢰기를 “전에는 공신의 예장(禮葬)을 작질(爵秩)이 높고 낮은 것으로 상·중·하 3등을 정하였고, 공신의 1, 2등으로 예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공의 높고 낮은 것으로 장례의 경중을 삼는 것은 또한 가하지 않겠는가?” 하니 이문화가 대답하기를, “개국공신의 예장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태종 7년 11월 28일)

사료3. 태종 8년(1408) : 우리 국가(國家)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능실(陵室)을 만드는 데에 돌을 사용하지 않

6 박천식, 「조선건국의 정치세력 연구(하) -개국공신 이화녹권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9, 1985, 20쪽.

은 것이 없고, 신서(臣庶)에 이르러서도 돌을 써서 장사지내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태종실록』 태종 8년 7월 9일)

사료 4. 태종 10년(1410) : “생각건대 태조(太祖)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경(經)을 세우고 기(紀)를 베풀어 상장(喪葬)에 대한 예(禮)가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오직 장사지내고 무덤을 쓰는 장분(葬墳) 제도만 정한 것이 없습니다. 세간(世間)에 장사지내는 자가 그 관곽(棺槨)·의금(衣衾)·석실(石室)·석문(石門)·석인(石人)·석상(石床)을, 부유(富裕)한 자는 참람(僭濫)하기가 공후(公侯)에 비기고, 가난한 자는 재력(財力)을 탕진하니, 이것이 어찌 조고(祖考)의 뜻이겠습니까?”(『태종실록』 태종 10년 4월 8일)

사료 5. 태종 17년(1417) : 임금이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의 장례가 8월 23일에 있으니, 회격(灰隔)을 써서 매장하고, 그 광(曠) 밖에 소용되는 큰 돌은 추수(秋收)를 기다려서 실어 들이라.” 하니, 길가의 곡식을 밟아 손상시킬까 염려하여서였다.(『태종실록』 태종 17년 6월 4일)

사료 6. 태종 18년(1418) : 명하여 이제부터 종친(宗親) 이하의 예장(禮葬)에는 석실(石室)을 없애고 회격(灰隔)을 쓰도록 하였다.(『태종실록』 태종 18년 1월 11일)

사료 7. 세종 6년(1424) : 예조에서 예장 도감(禮葬都監) 정문(明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본국의 소나무는 근래에 계속 벌채하였기 때문에, 심산궁곡이라 할지라도 넓은 판자를 만들 만한 재목이 드뭅니다. 그 까닭에 크고 작은 예장(禮葬)에 쓸 관곽(棺槨)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판을 이어서 판을 만들려고 하나 세속이 이것을 싫어하고, 반드시 넓은 판자를 구하여 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 옛날 제도를 보면 비록 천자와 제후의 장사라도 재목을 쌓아서 판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예장하는 관재(棺材)는 황장(黃腸)을 이어붙여서 판을 만들고, 민간에서 사사로이 준비하는 것도 또한 이에 의하여 제작하여, 그 폐단을 개혁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세종 6년 12월 4일)

사료 8. 세종 6년(1424) : 예조에서 계하기를, “본조에서 각등의 예장(禮葬)에 모두 연마한 돌로 무덤을 만들어 공사가 어렵고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니, 그 가운데 개혁할 만한 것을 조목조목 다음에 열거합니다. 1. 본조에서 전조의 제도를 계승하여 산릉에 석안(石案)을 설치하였으니, 인신의 분묘에도 또한 혹 설치하기도 하여, 참람하게 모방하는 것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춥거나 덥거나 비올 때에는 돌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돌을 다듬는 데 공이 많이 들고, 돌이 없는 곳에서는 운반하는 것이 더욱 어려우니, 이것을 없애버릴 것. 1. 전조에 대신의 장사에 장명등(長明燈)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본조에서도 그대로 하여 개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물건은 다만 보기가 좋을 뿐이요, 사망자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니, 앞으로는 설치하지 말 것. 1. 옛날에는 제왕의 궁실에도 흙으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인신의 분묘에 감히 연마한 돌로 세 계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연마한 돌을 사용하지 말고 잡석을 사용할 것. 1. 옛날에는 구릉에 무덤을 만들어 봉분하지도 아니하고 비석도 세우지 아니하여, 장사지내는 제도가 검박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분묘의 사방 주위에 다만 사대(沙臺)에만 연마한 돌을 사용하되, 그 높이가 한 자를 지나지 못하게 하고, 그 지대(地臺)도 땅에 묻히는 것은 연마한 돌을 사용하지 말고 잡석을 사용하되, 그 높이를 역시 한 자를 지나지 못하게 할 것.” 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세종 6년 12월 12일)

사료 9. 세종 7년(1425) : 병조에서 계하기를, “전에는 대신(大臣)의 장례(葬禮) 때에 산역(山役)을 하는 군인이 3백 명이었는데, 이제는 석상(石床)과 장명등(長明燈)을 쓰지 아니하고, 또 세층 계체석(階砌石)은 모두 잡석을 쓰므로, 공역(功役)이 감소되었사오니, 이후로는 상등예장(上等禮葬)에는 군인 2백 명, 중등에는 1백 50명, 하등에는 1백 명으로 수를 정하여 역사에 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세종 7년 6월 27일)

사료 10. 세종 7년(1425) : 병조판서 조말생 등 9인의 진언은, “경기도 백성의 요역이 번거로움은 신 등이 이

루 다 알지 못하오나, … 대신(大臣)이 돌아가면, 그의 예장(禮葬)에 묘소를 역사하는 것이 혹시 농사달과 마주치게 되면, 들에서 호미 들고 일하는 백성들을 몰아다가 감독하여 그 역사에 나가게 하므로, 민생이 생업을 잃게 되는 것이 모두 이런 까닭 때문이오니, 비옵건대, 앞으로는 대신의 예장이 혹시 농사달과 맞서게 되거든, 묘소 치산하는 인부를 예장등제 상정군수(禮葬等第詳定軍數)와 일한(日限)에 따라서 보충군(補充軍)을 풀어 보내어 시키되, 이것을 일정한 규칙으로 하게 하소서.”(『세종실록』 세종 7년 6월 23일)

사료 11. 세종 17년(1435) : 예조에서 아뢰기를, “… 또 본국(本國)의 종친과 대신·공신의 예장(禮葬)에도 4월부터 9월까지의 모든 빙반(氷盤)을 사용하도록 이미 법을 만들었는데, 유사(有司)가 지금까지 거행하지 않으니 옛날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세종실록』 세종 17년 11월 17일)

사료 12. 세종 26년(1444) : 호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는 대신(大臣)이 졸(卒)하였을 때에 장사에 쓰는 석회(石灰)는 예장(禮葬)의 경우를 제외하고 1품관에게는 60석(石), 정2품에게는 50석, 종2품에게는 40석을 사용하게 하고, 계문(啓聞)함이 없이 예식(例式)대로 지령(指令)을 써 주도록 하라.” 하였다.(『세종실록』 세종 26년 7월 12일)

사료 13. 문종 1년(1451) : 세종대왕께서 30여 년간 정치의 아름다움을 이룬 것은 모두 학문 속에서 나왔으니, 그 공이 큼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거애(擧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1품직이 아니면 예장(禮葬)할 수 없는 것이 예입니다. 이수는 2품직으로 졸하였으나 세종대왕께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거애하셨고, 또 명하여 예장하도록 하였으니, 세종대왕께서 대접하심이 또한 중하였습니다. 배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문종실록』 문종 1년 11월 12일)

사료 14. 세조 3년(1457) : 조묘도감(造墓都監)에 전지(傳旨)하기를, “세자묘(世子墓)에 석실(石室) 및 석상(石床)·장명등(長明燈)·잡상(雜像)은, 아울러 예(例)에 의하고, 그 사대석(莎臺石) 및 삼면석(三面石)과 석난간(石欄干)·삼개체(三階砌)는 설치하지 말라.” 하였다.(『세조실록』 세조 3년 10월 24일)

사료 15. 세조 9년(1463) : 사헌부(司憲府)에 전지하기를, “예장도감판관(禮葬都監判官) 유주(柳堯)는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의 예장(禮葬)을 다스리매, 석곽(石槨)·수도(隧道)를 썼다 하니 추국(推鞠)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때에 종친(宗親)·부마(駙馬)·권귀(權貴)한 집은 장례(葬禮)에 정도가 지나쳐서 거의가 수도(隧道)·석곽(石槨)을 쓰니, 임금이 이를 미워하여 먼저 귀근(貴近)한 이를 바꾸려는 까닭으로 이런 명(命)이 있었다.(『세조실록』 세조 9년 3월 9일)

사료 16. 예종 1년(1469) :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조대왕께서 원릉(園陵)의 석실(石室)이 유해 무익(有害無益)하다 하여 유명(遺命)으로 석실(石室)과 사대석(莎臺石)을 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광릉(光陵)에는 이미 유교(遺教)를 좇았으니, 청컨대 영릉(英陵)에도 또한 광릉의 제도(制度)를 따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예종실록』 예종 1년 1월 3일)

사료 17. 성종 5년(1474) :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강하기를 마치니, 임금이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홍윤성(洪允成)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대부(士大夫)의 묘(墓)에 모두 석인(石人)·석마(石馬)를 쓴다.’ 하는데, 그러한가? 참람하기가 너무 심하니 금(禁)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홍윤성이 아뢰기를, “석인(石人)·석상(石床)·표석(標石)은 사대부의 묘에 모두 있습니다만, 석마(石馬)는 신이 보지 못하였습니다.”(『성종실록』 성종 5년 1월 23일)

사료 18. 성종 5년(1474) : “양렬공(襄烈公) 이지란(李之蘭)의 묘에는 석실(石室)이 있고 또 석양·석호가 있으니, 그 의물(儀物)의 제도가 참람함이 막심합니다. 청컨대 소재한 각 고을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소서. 또 석상(石床)과 석인(石人)은 정한 제도가 없으니, 청컨대 금후로는 대군(大君)의 석상은 영조척(營造尺)을 써서 길이 7척, 너비 4척으로 하고, 석인은 길이 6척으로 하며, 1품에서 2품까지는 석

상은 길이 6척 5촌, 너비 3척 7촌 5분, 석인은 길이 5척 5촌으로 하고, 3품에서 6품까지는 석상은 길이 6척, 너비 3척 5촌, 석인은 길이 5척으로 하며, 7품 이하와 생원(生員)·진사(進士)·유음자제(有蔭子弟)는 석상은 길이 5척 5촌, 너비 3척, 석인은 길이 4척 5촌으로 정식을 삼되 만일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중하게 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지란의 석실은 철거하지 말도록 명하였다.〔『성종실록』 성종 5년 9월 19일〕

2) 정리와 검토

이상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조선 건국 이후 묘장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은 태종 6년(1406)에야 이루어진다.(사료 1) 이에 그 이전까지는 고려 후기의 묘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희계, 남은, 조인옥, 배극렴, 이백유 등 6인의 무덤은 이후 조성된 무덤과는 양식, 의장, 구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 국가가 조묘(造墓)에 인력과 물품을 제공하는 예장(禮葬)의 경우, 그의 공적 즉 개국공신의 등급보다는 작질(爵秩)을 따랐다.(사료 2) 이는 개국공신에게도 적용되었을 것이기에, 개국공신의 무덤 양식과 관련하여, 공신이 죽기 직전의 품계와 연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로 예장은 품계에 따라서 상등(1품관), 중등(정2품), 하등(종2품)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사료 9)

셋. 고려시대에는 없었던 회격묘(灰隔墓)가 처음 문헌에서 등장하는 시점은 태종 6년(1406)이고, 태종 18년(1418)에 종친 이하의 예장에는 석실을 없애고 회격을 쓰도록 강제하였다.(사료 6) 따라서 왕릉은 세조의 유언에 따라 예종 1년(1469)에 비로소 회격으로 조성되었지만, 사대부 묘에는 그보다 51년 이전에 이미 회격묘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의 유습인 석실묘(또는 석곽묘)는 태종 6년(1408)까지 조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넷. 조선시대 묘제의 골격은 세종 6년(1424)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때를 기점으로 석실묘가 사라지고, 장명등의 설치도 금지되었으며, 사대석(莎臺石)을 제외한 계체석·지대석·계단 등을 할석으로 만들도록 강제하였다.(사료 8)

다섯. 고고학과 석조미술에서 호석·병풍석으로 불리는 사대석(莎臺石)은 세조의 광릉 조성 시, 그의 유언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사료 16) 1469년까지는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선 초기 무덤의 기본 형식인 방형묘는 15세기 중엽까지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 목관은 세종 6년(1424)까지는 일반적으로 한 매의 판재를 조립하여 만들었으나, 소나무의 남별로 대형 판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여러 판재를 이어붙여서 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이라도 재력가를 제외하고는 다판(多板)으로 만든 목관을 사용했을 개연성은 높다.(사료 7)

일곱. 대신의 예장에는 국가에서 장례 물품은 물론 인력도 지원하였고,(사료 10) 4월부터 9월 사이에 사망한 경우에는 시신과 음식의 부패 방지에 필수적인 얼음을 제공하기도 했다.(사료 11) 또 장사에 쓰는 석회(石灰)는 예장(禮葬)의 경우를 제외하고 1품관에게는 60석(石), 정2품에게는 50석, 종2품에게는 40석을 지급하였다.(사료 12)

여덟. 조선 후기와 마찬가지로 사대부 묘에는 조선 초기부터 석마, 석호는 석조 의장으로 설치되지 않았다.(사료 17) 그에 비하여 문인석은 시기를 불문하고 설치할 수 있었는데, 규격에 대한 규제는 성종 5년(1474)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조선 초기 문인석의 규모는 피장자의 품계보다는 재력에 좌우되었을 듯하다.(사료 18)

3. 현존 무덤을 통한 문헌상 묘제의 검토와 보완

1) 소개와 분석

지금부터는 현존 개국공신의 무덤을 대상으로 조선 초기의 묘제를 구성하는 요소 즉 봉분, 곡장, 신도비, 묘표, 장명등, 문인석, 상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개국공신의 무덤은 조선시대 묘제의 골격이 마련된 세종 6년(1424) 이전에 모두 조성되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조성되었겠지만, 표준 규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배극렴 묘(출처: 증평군청)

1392년에 졸한 배극렴의 무덤은 실전되어 오다가 조선 말기에 찾았다고 한다. 진위와 관련해서는 『일성록』 정조 22년 기사에 “삼도(三道)의 유생 배익채(裵益彩) 등이 상언하여, 그 14대 방조(旁祖)인 개국공신 정절공(貞節公) 배극렴(裵克廉)이 후사(後嗣)가 없어 묘산(墓山)이 어디인지 후대에 전해지지 못했는데 14대 방손(旁孫)인 배경렬(裵敬烈)이 청안현(淸安縣)에서 찾아냈으므로 제종(諸宗)이 배경렬을 별도로 사손(祀孫)으로 정하겠다는 일입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사실일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석조의 방형 봉분이 유일하다. 예장으로 치러진 개국공신 1등의 무덤임에도 석조봉분의 격은 같은 개국공신 1등인 김사형 묘에 비하여 뒤떨어진다.

1396년에 졸한 조인옥(趙仁沃, 1347~1396)의 무덤은 원형이 심하게 변형되었지만, 부인의 무덤을 남편의 무덤 아래에 두는 부하(附下) 형식 즉 상하쌍분인 점은 특기할 만하다. 동년인 1396년에 졸한 정희계(鄭熙啓, ?~1396)의 무덤도 원형이 심하게 변형되었지만, 장명등의 옥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장명등을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명등의 옥개는 사모형인 점이 주목된다.

1397년에 졸한 정충(鄭攄, 1358~1397)의 무덤은 실전되었지만, 그의 부인 정순택주 낙안김씨(貞順宅主樂安金氏)의 무덤은 현존한다. 석조방형의 봉분과 1쌍의 문인석, 상석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상석은 계체석에 걸친 후, 그 빈 공간을 장대석으로 고은 형태이다. 어쨌든 고석(敲石)이 없고 혼유석이 부가되지 않은 고출한 형식이다.

1398년에 졸한 남은(南暉, 1354~1398)의 무덤은 원형을 많이 잃었으나, 부인의 무덤을 별도로 조성한 부하(附下) 형식인 점과 석물의 크기가 적고 조각 수법이 조촐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개국공신 1등이고 벼슬이 정2품의 품계에 달했지만,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살해되어, 예장으로 장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으로 판단된다.



김사형 묘역과 석물(출처: 국가유산청)

1407년에 졸한 김사형(金士衡, 1341~1407)의 무덤은 원형 보존이 잘 되어 있기에 조선 초기 개국공신의 무덤 양식, 그것도 개국공신 1등과 1품 상등급의 묘제를 파악하는 데 가장 유익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묘역은 체계적으로 상중하 3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묘는 부인 죽산 박씨(竹山朴氏)와 합장한 단분(單墳)이다. 봉분은 6각형으로 호석(護石)을 둘렀으며, 호석은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분 앞에는 석상, 향로석, 장명등과 문인석 1쌍이 건립되어 있는데, 장명등과 문인석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6각 호석의 봉분은 특수한 사례이다.

1407에 졸한 홍길민(洪吉旼, 1353~1407)의 무덤은 호석을 두른 사각형 봉분이다. 석물로는 묘표, 문인석, 장명등 등이 남아 있다.



홍길민 묘의 석물(출처: 연천군청)

1410년에 졸한 함부림의 무덤은 서울시 강동구에 있었으나, 택지개발로 인하여 이천시로 이장하였다. 정탁 무덤에서 확인되는 수도가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1410년에 졸한 이서의 무덤은 홍성에 있는데, 봉분과 상석 등 석물 대부분이 원형을 상실하였다.

1414년에 졸한 조영무 무덤의 봉분은 4각형으로 호석(護石)을 돌렸으며, 호석은 2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물 가운데 장명등과 문인석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조영무 묘소와 문인석(출처: 광주시청)

1417년에 졸한 조온의 무덤은 현재 홍성으로 이장하였지만 원래는 교하 오도동에 있었다. 이장 전에도 원형을 많이 잃었지만, 3단의 방형 호석과 역시 3단의 계체석은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였다.



이장 전 조온 묘 전경(출처: 문중 블로그)

1418년에 졸한 장사길의 무덤에서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호석을 갖춘 사각형 봉분과 문인석뿐이다.

1419년에 졸한 남재 무덤의 석물 가운데 원형을 갖춘 것은 호석을 갖춘 사각형 봉분과 문인석뿐이다. 호석은 1단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421년 졸한 유창 무덤의 석물 가운데 원형을 유지하는 것은 호석을 갖춘 사각형 봉분과 문인석 뿐이다. 상석 받침은 원래의 것으로 판단된다. 부인의 봉분을 따로 조성한 쌍분인 점이 특징적이다.

1421년에 졸한 안경공의 무덤은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다. 봉분은 비교적 큰 원형이며 뒤에는 이중의 사성을 돌렸다. 이 사성 및 봉분은 후대에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묘역은 현재에는 크게 3단으로 구분

되어 상계는 봉분, 중계는 묘표·혼유석·상석, 하계에는 장명등과 문인석 1쌍, 준비석을 갖추었다. 묘역 좌측 아래에는 지대석 위에 신도비를 배치하였다. 신도비는 고려 말에 유행하였던 비액에 방형기대를 갖춘 형식으로 고양의 성령대군 이종(誠寧大君 李種, 1405~1418) 신도비와 유사하다. 장명등은 하계에 위치하며 마모가 심하고 일부 파손되었으나 조선 초기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옥개는 사모지붕형태이며 추녀마루는 낮은 양각으로 나타내었다. 화창은 앞뒤로만 뚫렸으며 상대의 중간부분에 양각띠를 둘렀다. 중대는 파손되어 접합하였으며 하대는 매몰되었다. 이 안경공의 무덤은 전체적으로 조선 초기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특이한 신도비 및 문인석 등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⁷



안경공 묘소 전경, 상석, 장명등, 신도비(출처: 경기도박물관)

1423년에 졸한 정탁의 무덤은 원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조선 초기 묘제의 표지라 할 수 있다. 묘역은 사각형태의 커다란 봉분 앞에 ‘ㄷ’자 모양의 돌레석을 하단에 쌓은 독특한 형태이다. 이는 고려 말기의 묘제로 조선 초기까지 잔존한 것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가 파주의 황희 정승의 묘역에도 남아 있어 비교가 가능하다. 묘역은 3단의 계단식인데, 계체석(階砌石)으로 구분하였다. 봉분의 정면 오른쪽에 묘표(墓表)를 세웠는데, 일반적인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이다. 중단의 양 끝에는 문석인을 1쌍 배치하였다.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 머리에는 복두를 쓰고, 공복을 입은 문신의 형태)인데, 수염이 덜수룩한 문신의 형상이다. 홀을 쥔 두 손은 소매에 가려졌으며, 팔자형의 옷자락과 신체표현은 얇게 조각되어 15세기 전반기의 시대성을 보인다.⁸ 상석은 계체석 위에 바로 올렸으며, 상석 앞에 향로석을 두지 않았다.

7 경기도박물관, 『경기 묘제 석조 미술(상)』(조선전기 해설편), 2007, 30~31쪽.

8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춘곡정탁묘역”



정탁 묘소의 전경, 상석, 묘표(출처: 국가유산청)

1423년에 졸한 한상경 무덤의 봉분은 원형을 상실했지만, 상석·문인석·장명등 등은 원래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장명등의 옥개석은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 올렸다. 한편, 묘표는 하엽형으로 종종 12년(1517)에 제작된 것으로 원래의 묘표는 아니다.



조건 묘소의 전경과 곡장, 문인석(출처: 성남시청)

1425년에 졸한 조건의 무덤도 원형 보존이 양호한 편이다. 묘역은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유행대로 3단의 계체석(階砌石) 구조를 갖추었으며, 봉분은 방형이며, 상석·문인석·장명등의 옛 석물이 진설(陳設)되어 있다. 사각 돌레돌이 설치된 봉분의 주변에는 곡장(曲牆)의 기단과 장방형(長方形) 형태의 주초석(柱礎石:높이 102cm)이 남아 있다. 2단의 묘정(墓庭)에 상석(높이 28cm)과 문인석을, 3단의 묘정에 장명등을 두었다. 방형의 봉분은 총 높이 180cm로 봉분 하단에는 4면에 각 3매씩의 장대석으로 높이 40cm의 돌레돌을 마련하였으며, 봉분 하단의 크기는 앞뒤 410cm, 좌우 540cm이다. 또한 봉분 주위로 좌·우·후 3면에는 90cm의 간격을 두고 60~110cm 높이의 축대를 쌓아 활개를 대신하고 있으며, 봉분 좌우에는 높이 1m, 너비 54cm, 두께 35cm의 석주를 세워놓고 있다. 봉분 좌우에 세워져 있는 안두(按頭)의 문인석(文人石)은 좌가 높이 148cm, 얼굴 부분 52cm로 3등신의 신체 비율이며 좌측 귀가 파손되어 있다. 우도 마찬가지로 형태로 턱수염의 표현을 하였으며 어깨 부분에서 넓이 54cm로 최대를 이루고 있다. 복두공복(幘頭公服)을 착용하고 있으며, 얼굴 광대

뼈가 튀어나오고, 몸집이 상체에서 하체로 내려갈수록 가늘어지는 양식상의 특징이 있다. 또 장명등(높이 76 cm)은 지붕돌이 없어지고 화사석(火舍石)의 윗 부분이 훼손된 상태이다. 봉분 좌측으로 근래에 세운 2기 비 가운데, 오석(烏石)의 비에 ‘高麗嶺南按廉使平壤趙公之墓配貞善宅主坡平尹氏祔于階下’(고려영남안렴사평양조공지묘배정선택주파평윤씨부우계하)라 새겨져 있다.⁹ 이로 미루어 부인의 무덤을 아래에 둔 부하형(祔下形) 쌍분의 부부묘임을 알 수 있다. 묘제상으로는 곡장을 둘러싼 흔적이 남아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1431년에 줄한 이직의 무덤은 호석을 갖춘 방형분으로 문인석과 장명등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장명등의 옥개는 팔작지붕형이라 원래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정리와 검토

조선 초기 사대부 묘역은 원형이 잘 보존된 김사형 무덤을 참고할 때, 상중하 3단으로 구분하여 조성하였다.

조선 초기 봉분은 장대석의 호석을 두른 방형분이 보편적이었다. 이 방형분은 예종 1년(1469) 세조의 유훈에 따라 그의 무덤인 광릉에 병풍석 즉 사대석을 설치하지 않은 이후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런 방형분의 변형으로 사각형태의 커다란 봉분 앞에 ‘ㄷ’자 모양의 돌레석을 하단에 쌓은 독특한 형태의 봉분이 정탁 묘와 함부림 묘에서 확인된다. 파주의 황희(黃喜, 1363-1452) 무덤에서도 이런 변형식이 확인된다.

합장은 쌍분과 단분으로 구분되어, 쌍분은 아내의 봉분을 왼쪽에 두는 부좌(祔左)와 아래에 두는 부하(祔下)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부하 쌍분은 조인옥, 남은, 조건 무덤에서 확인된다.

곡장의 존재는 조건의 무덤에서만 확인된다. 조선 전기 사대부 묘에서의 곡장의 조성이 일반적이었던지는 현재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신도비는 고려 말기의 형식을 계승한 비액에 방형기대를 갖춘 액자형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경공 신도비가 대표적이다.

묘표는 옥개형과 원두형으로 구분되는데, 길쭉한 옥개형의 머릿돌을 올린 홍길민 묘의 묘표 형식이 원두형 이전에는 기본형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조선 전기에 유행한 하엽형은 적어도 조선 초기에는 등장하지 않았거나, 유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장명등은 높이 1m 이하의 소형으로, 옥개석의 형태가 사모형이며, 대석의 장식이 검박한 편이다. 김사형과 안경공 무덤의 장명등이 대표적이다.

상석은 계체석 바로 위에 설치하는 단순한 형식이 기본이었다. 조선 후기와는 달리 향로석과 혼유석을 상석 전후에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인석은 모두 복두공복형이나, 형식은 다양한 편이다. 고려의 유습이 남아있는 14세기의 남은(南園) 무덤의 문인석은 동자석 크기이고 고출한 조각 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유사 형식이 공양왕릉에서도 확인된다. 또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신돈의 개혁정치에 참여했던 김정(金鼎, 생몰년 불명)의 무덤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고출 단신의 문인석이 고려의 문인석 형식이었고, 그런 형식이 조선 극초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문헌기록과 문화유산을 통한 분석과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되지 않았거나 언급되지 않았던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성남향토문화대전(<https://seongnam.grandculture.net>), “조건 묘 및 신도비”

하나. 태종 6년(1406)에 처음으로 사대부 묘에서 석실 대신에 회격을 쓰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이로써 조선시대 회격묘의 등장 시점을 특정할 수 있다. 아울러 왕릉에서 회격의 등장은 예종 1년(1469)에 조성된 광릉부터이지만, 사대부 묘에서는 60여년 앞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 호석을 장대석으로 돌린 방형묘는 예종 1년(1469)까지 조선 전기 무덤의 전형이었다. 세조가 그의 능에 사대석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유훈이 방형분의 종말을 가져왔다.

셋. 조선 초기 상석에는 받침돌인 고석을 비롯하여 향로석과 혼유석이 부가되지 않았다. 구조는 계체석 바로 위에 상석을 올리는 아주 단순한 형식이었다.

넷. 조선시대의 묘제는 세종 6년(1424)에 골격이 마련되고, 성종 5년(1474)에 정비되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 석조 미술의 양식 변화는 상기 두 기점으로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 공양왕릉과 남은 묘의 문인석은 강화도 홍릉의 문인석, 춘천 김정 묘의 문인석과 크기와 양식에 상통한다. 이에 14세기 사대부 묘의 문인석은 1m 이상의 단신에 약부조(弱浮彫)의 고졸한 형식이 보편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글 김성태

경기문화재단에서 25년 근무하면서 경기도의 문화유산과 지역사를 조사, 연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 경험을 바탕으로 정년 후 경기지역학, 문중사, 고고학 관련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신·구 지적도 비교·고찰을 통한 지역 공간구조 변화 연구

-수원 구도심 북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고영창

1. 글을 시작하며

현행 지적법에서 정의하는 지적의 의미는 “국가기관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정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계속하여 유지, 관리하는 영속성을 가진 국가의 고유 사무”라고 한다. 이는 토지의 각 필지에 대한 위치와 형태, 종류, 면적 및 소유권의 권리 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이의 변동사항을 영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출처:www.gg.go.kr/ 토지정보과)

현행 지적법은 일제강점기 토지 및 임야대장 등록지 규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12년 제작된 북수동 일원의 『토지조사부』와 지적도 그리고 현행 지적도에 나타난 토지 지적도의 비교, 고찰을 통해 수원 구도심 북수동 지역 주요 지목의 변화와 건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주민 생활 또한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도첩류와 사진 그리고 지도 등이 활용되었다.

2. 주요 지목의 변화

1) 도로의 변화

화성은 도시 외곽에 성곽을 축성하는 중세 도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방 읍성 축조 방식과는 구별이 되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과거 지방도시들이 읍치의 방어와 중앙의 행정명령을 수행하는 기능에 맞추어 주로 산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곳에 자리를 잡는 경향을 가졌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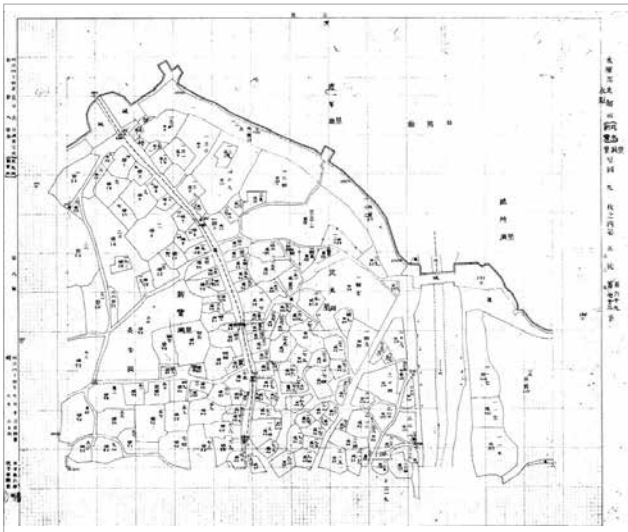
에 비하여 화성은 서울로 통하는 길목의 평탄하고 넓은 곳에 터를 잡았다.(출처: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2007), 기문당, p.296)

기존 도시 읍성의 중심 도로는 동·서 대로를 중시하는 ‘T’자형이었던 것에 비해 화성의 경우에는 ‘+’자형으로 계획하여 북문인 장안문과 남문인 팔달문 그리고 서문인 화서문과 동문에 해당하는 창룡문을 서로 연결하였다. 또한 남·북 대로와 평행하게 수원천을 파고 광고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북수문에 해당하는 화홍문을 거쳐 남수문으로 빠져나가게 설계를 하였다. 화성 내를 ‘+’자로 구획하고, 이때 생긴 4개 권역에는 각종 관방시설과 함께 민가 등을 배치하였다. 이는 화성 건설이 ‘방어’와 ‘수성’의 개념보다 외부와 소통하고 교류가 보다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중국적으로 나라의 살림을 보다 살찌운다는 개념에 충실히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사람과 물산이 교류되는 도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12년에 발행된 지적도에 나타난 장안문과 팔달문을 연결하는 도로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때 기록된 지적도상의 도로 또한 기존 옛 성안도로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제강점 초기인 1912년 근대측량 기술을 활용하여 측량되고 기록한 『토지조사부』상의 지적도는 당시 북수동 지역 일원의 토지 형태와 주거 상황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북수동 지역은 화성의 북문에 해당하는 장안문과 남문인 팔달문에 이르기까지 도로와 수원천이 평행을 이루며 형성된 지역이다. 주요 도로인 남·북을 잇는 도로 이외에 동서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들이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구조이다. 1912년 지적도에 나타난 당시 지적 현황과 비슷한 시기에 촬영된 영상 자료 등을 보면 성밖에서 장안문을 들어서면 비포장도로를 중심으로 좌우

로 민가들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성곽 주변은 당시 지목상 임야이며 대부분 국유지로 기록되어 있고, 연이어 민가(垵地)와 밭(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민가들은 도로를 따라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었고, 도로를 벗어나면 텃밭 형식의 밭이 전개되고 있었다. 즉 수원천변 쪽으로는 아직 대지로 개발되기 이전의 텃밭 형식의 밭들이 넓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수원천변 주변 넓은 공터는 시장터와 장날 땡감 등을 사고 파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국 주요 도시 주변으로 비록 허물어지고 보수가 필요하였지만 여전히 읍치를 중심으로 많은 성곽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1910년을 전후한 일제강점 초기 전국 주요 도시의 성벽들은 하나둘 허물어지고 철거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고유한 전통 도시 경관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12년 북수동 일원 지적도와 현재의 지적도, 도시경관 변화에 있어 도로의 변화로 인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었다. 우선 1912년에 발행된 지적도를 살펴보면 북문인 장안문에서 북수동 지역을 관통하여 남문인 팔달문에 이르는 옛 도로는 이 시기에 한 번의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감부와 총독부 시절을 거치면서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전주, 진주 등 전국 주요 대도시 성벽 철거를 시작으로 당시 정치 경제적으로 유명한 전국 주요 도시의 읍성이 철거되고 간선도로 확장과 신설로 인해 기존 도시의 틀은 상당수 훼손되고 파괴되었다.

하지만 수원 화성의 경우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성곽 철거라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위한 새로운 도시 개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화성 축성 당시 북문과 남문을 잇는 비포장도로는 이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옛 지적도(1912년 발행)에 표기된 도로는 현 북수동 166번지(지목: 대지) 일대에서 성안 옛길을 버리고 현 장안동 쪽으로 새롭게 개설되어 현 종로사거리를 지나 남문인 팔달문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수동 166번지 일원 현재 지적도, 흐린 색의 곡선 도로가 1912년 당시 도로로 추정된다.

이로써 북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도로는 수원천변을 따르는 길과 옛 성안 옛길 그리고 새롭게 개설된 도로였으며 이들 3개 도로가 주요 도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안문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간 활처럼 휘어지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던 도로는 현 북수동 166번지 지점에서 기존의 성안 옛길을 버리고, 약간 장안동과 신평동 쪽으로 휘어져 'S'자형을 그리며 북수동 천주교회 앞을 지나 현재의 종로사거리에서 행궁 앞 도로와 만난다. 이때 성안 옛길은 화홍문에서 남서



북문인 장안문에서 바라본 성안 내 전경(사진: 국립민속박물관)

향으로 내려오는 간선도로와 북수리 190번지(1912년 지적도 기준) 일대에서 만나고, 다시 한 번 동쪽으로 휘어지면서 수원천변 쪽으로 바짝 붙어 이어져 내려오다가 북수동 시장터를 좌측에 두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행궁 앞 도로와 다리 앞쪽에서 만나게 된다.

성밖에서 장안문으로 들어서 남문인 팔달문에 이르는 옛 성안 도로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으며, 도로폭 또한 지금에 비해 매우 협소하였으며, 도로 양쪽으로 배수로가 설치되었던 비포장 흙길이었다.

하지만 이 도로 또한 이후 현재의 도로 확장과 직선화 공사로 인하여 지금의 도로에 합병이 되었다. 현 북수동 189~190번지 일원에서 기존의 도로는 현재의 도로에서 벗어나 뒷골목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때 장안문 주변 일대와 새로운 도로와 분기가 되는 지점에 인접하고 있던 여러 필지의 민가들은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대부분 도로로 수용되어 헐려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도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가 있기 전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민가가 연결하고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초가지붕을 하고 있었으며, 낮은 흙담으로 서로를 구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로에 접해 있던 대부분의 민가들은 작게는 20여 평에서 크게는 100여 평을 초과하는 큰 평수의 집들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매우 밀접하게 지붕과 지붕이 서로 맞닿을 정도로 밀집해서 건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2년 당시 토지조사부를 살펴보면 성안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수동 지역 대부분의 대지와 전(田)의 소유자는 조선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일본인(북수리 124번지, 210번지, 지목: 전)과 불국(프랑스인으로 추정, 북수리 340번지, 지목: 대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성밖 매산동과 남창동, 수원역 인근 일본인 집단 거주지와는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성안에는 이미 많은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원역을 기준으로 화성으로 연결되는 신작로 주변으로 많은 일본인 상인과 농업 이주민들이 거주하며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성안에는 조선인, 성밖 신작로 주변에는 일본인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던 것이 당시 수원의 모습이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거주 형태가 당시 북수동 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북수동 지역을 포함한 수원 도시 경관구조의 획기적 변화는 1934년 제정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행령을 기반으로 10년이 지난 1944년 ‘수원시가지계획’이 결정되었지만 곧이어 광복이 되었고, 광복 이후 수원 도시계획 기본 설계에 있어 일제가 작성한 이 계획안은 1962년과 1967년 새로운 도시계획안이 수립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사용되었다.

1912년 조사된 토지조사부상 북수동 일대 지목의 대부분은 대지와 전이며 성곽 주위 토지는 임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지적 현황을 살펴보면 대지는 전체 312필지 27,510평, 전은 56필지 24,001평, 임야는 10필지 30,943평으로 전체 377필지 82,454평으로 기록되어 있다. 북수리 전체의 약 33%가 대지, 약 30%가 전이며 나머지 약 38%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었다. 평균적으로 대지는 1필지당 88평 규모였으며 대지와 함께 마당 또는 텃밭으로 경작되었던 전은 필지당 약 428평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목으로 하천부지와 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 말기인 1944년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수원시가지계획안 중 현 도로 정비와 관련한 가로(街路)의 경우 도로 폭과 관련하여 광로(廣路) 1개



1900년대 초 수원천변 주변 모습. 장안문과 화홍문의 모습이 멀리 보인다.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노선과 대로 3류 노선 2개 노선, 중로 51개 노선 등이 결정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북수동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는 광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광로의 경우 도로 폭이 50m 이상으로 계획된 가로이다.

북수동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원천변쪽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지금의 북문과 남문을 연결하는 직선화 도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도로로 수용된 집들은 철거되고 도로가 관통하는 도로 양옆으로 새로운 집들과 함께 상가가 형성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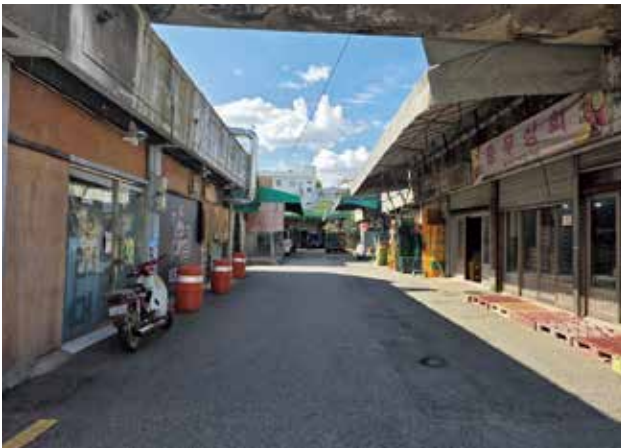
2) 주요 건물의 변화

① 북수동 시전 골목

정조가 화성에 신도읍을 건설하며 전국 각지의 부유한 상인과 가문을 대상으로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며 수원으로 이주를 권장하였다. 이로 인해 행궁 앞 옛 보시동 인근에 시전을 개설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안 대부분의 민

가가 초가집이었던 것에 비해 이곳 옛 보시동 지역에는 번듯한 기와집들이 여러 채 있었고 이들은 정부에서 허가해 준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을 개설하였다. 이때 형성된 시전으로 입색전(立色廛), 어물전(魚物廛), 목포전(木布廛), 미곡전(米穀廛), 유철전(鎗鐵廛), 관곽전(棺槨廛), 지혜전(紙鞋廛) 등이 었다.

상설로 개시된 시전으로 화성 건설 초기에는 시전 이외의 장시가 성안에 개설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른바 이들 시전에게는 정부가 인정하는 ‘금난전권’이라는 독점적 영업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오개혁 이후에는 사정이 많이 변화하였을 것이다. 시전 상인들에 의한 독점적 영업행위가 약화되고 일반 상인들의 점포 개설 행위가 점차 활성화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성문안장’으로 불리는 북수동(옛 보시동)에 장터가 개장되게 되었다. 5일장으로 열렸으며 인근에 우시장 또한 개설되어 성안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상인과 주민 모두가 이용하게 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북수동 시장의 현재 모습

② 북수동 천주교회

현 북수동 316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지금의 장소는 여러 필지의 대지를 합필한 결과이다. 우선 1912년 당시의 지적 도상에 나타나는 지적 현황을 살펴보자.

일명 보시동으로 불린 이 일대는 북수동 시장과 접해 있었던 지역이다. 또한 수원 팔부자 거리로 일컬을 정도로 부유한 상인의 집들이 밀집하고 있었던 곳이다. 당시 모든 민가들이 초가지붕 가옥들이었지만 이 일대의 민가들은 유일하게 모두 기와집으로 구성되어 있어 충분히 공감되는 대목이다. 북수리 340번지(지목: 대지(종교))를 중심으로 주변 많은 필지(주로 대지)의 민가들이 훗날 하나의 필지(현 북수동 316번지)로 통합된 듯하다.

현재의 북수동 성당이 처음 이곳 북수동 지역에 자리를 잡은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한제국 말기인 1890년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교우촌을 시작으로 교세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12년 일제가 작성한 당시 지적

도를 살펴보면 북수리 340번지(평수: 219평)의 소유자는 프랑스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현재 북수동 성당 사제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시점을 전후하여 사제관과 성당 건물을 봉헌하고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99년 성당 건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건축활동은 1900~1905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건립되기 시작한 서양식 성당 건축은 전국적으로 일정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전 초창기 전국 각지에 지어졌던 한양 절충식 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당시 조선인 시각에서는 매우 생소하고 이질적이며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고딕풍의 벽돌식 성당은 단층의 초가지붕 일색인 당시 경관에서 대단히 이질적인 경험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성당 건물 이전의 성당은 당시 유행하던 고딕 형식의 벽돌 건물이었다. 중앙의 종탑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적벽돌 조적도 건물이었다. 첨탑의 아치와 스테인글라스 창호



일명 보시동으로 불린 345번지 일대가 현재의 북수동성당 (수원 본당) 위치로 보인다.



옛 고딕 양식의 북수동 성당, 현재의 성당 건물을 대신하여 옛 성당으로의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사진: 수원 북수동성당 홈페이지)



옛 고딕 양식 성당 건물을 헐고 새롭게 건축한 현 성당 건물. 현재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목조 트리스 구조 위에 슬레이트 지붕 구조 건물이 었다. 1979년 이전의 고딕 양식 성당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금의 성당 건물이 다시 봉헌되었다. 현재는 옛 성당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 지역에 처음으로 생긴 본당인 북수동성당은 이후 급격한 교세 확장을 거쳐 ‘어머니 본당’이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로 수원 시내 여러 본당을 탄생하게 만드는 산파의 역할을 담당하며 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본당의 위치를 확고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였다.

③ 종로 감리교회

1900년대 초 옛 보시동(현 북수동 116번지) 일대 초가집 여러 채(약 13칸 정도)를 매입하여 신자들의 예배당 겸 처소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북

수동 천주교회의 성립 시기 및 활동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 1893년 스크랜턴 선교사의 뒤를 이어 1898년 스웨어러 선교사가 선교활동을 이어갔다. 부지 매입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07년 신유사육과 병인박해로 인한 순교의 터인 종로 4거리에 지금의 교회 터를 잡았다. 이후 선교 활동과 함께 교육활동 또한 활발히 전개하여 수원 근대 교육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삼일여학교를 설립하고, 더불어 국채보상운동과 삼일운동 등 일제 강압 정치에 항거하고 조선 독립과 자강을 위한 많은 활동을 이어갔다.

1912년 지적도에는 지번 북수동 375번지, 지목 대지(교)로 표기되어 있다. 평수는 550평이며 소유자로는 유홍준 외 2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로 옆 335번지는 국유지로 대지 평수 1,106평의 필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일제강점 초기에는 헌병대 주둔지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보인다. 교회 건물



북수동 375번지(1912) 일대 지적 현황,
(출처: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현 종로사거리 종로감리교회 일원 지적도,
(출처: www.gris.gg.go.kr/map/grisMapView.do)



현 종로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종로감리교회의 모습

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북수동 천주교회의 주변 여러 필지의 합필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종로감리교회 주변 필지는 그보다 훨씬 적은 필지의 합필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3.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1912년 제작된 지적도와 현행 지적도의 비교, 고찰을 통해 수원 구도심 북수동 지역의 경관 변화를 알아보았다. 지역 경관 변화의 핵심은 주요 도로의 변화와 그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 또한 연쇄적으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성 축성 당시 만들어진 옛 성안옛길은 1912년 지적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존의 옛길 대부분은 새로 형성된 도로로 인하여 뒷골목으로 바뀌어 버렸다. 또한 성안으로의 인구 유입으로 새로운 주거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 민가와 인근 텃밭으로 활용되던 토지는 늘어나는 인구와 주거 공간의 절대적 필요로 점차 대지화되고 토지 이용의 세분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대지 또한 여러 필지로 분필의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북수동 천주교회와 개신교 종로감리교회 부지에 있던 민가는 오히려 반대로 합필의 과정을 거쳐 부지의 면적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옛 성안 시전 골목과 북수동 우시장 터는 이후 성밖으로의 이전과 광복 이후 거주 여건 환경의 변화로 구도심 인구 유출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쇠퇴의 과정을 겪었다. 성밖으로 이전한 우시장 터에는 여러 상가 건물과 공동주택 등이 무질서하게 건립되었다. 이후 이들 지역 대부분은 성밖으로의 인구 유출로 지역 상권은 무너지고 많은 점포들이 타지로 떠나거나 영업을 하지 않고 빈 점포로 흉물스럽게 남아있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노인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과 여러 채의 집합 건물 등이 새롭게 건축되는 등 신·구 건물들이 혼

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 그리고 북수동 시장은 구도심 북수동 지역을 포함한 당시 성안에 거주하던 수원 도시민에게 매우 상징적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종교활동과 교육사업 그리고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당시 많은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북수동 지역 도시 경관 구조 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은 새로운 도로의 개설과 확장이었다. 이는 지역 개발로 인한 도시 경관 변화에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 도로의 개설과 확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 개발에 있어 새로운 도로 개설과 확장 등에 있어 문화유산 보존과 보호를 위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글 고영창

영남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전공. 2017년부터 파주 전통마을 기록화사업에 공동 참여 중이다. 『산경표』의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산들을 직접 탐사하고, 그곳의 인문지리를 공부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근대기 소방시설: 소방망루, 수총기, 사이렌탑을 중심으로

이지원

I. 들어가며

경기도 근대기 소방시설은 일제강점기부터 1960~70년대 초반까지 형성된 근대 소방 체계의 유산을 말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도입된 서양식 소방제도는 일본의 도시계획 체계와 결합되어 경성부와 경기도 각 도시로 확산되었으며, 이 시기에 설치된 소방망루(望樓), 수총(水銃), 사이렌탑 등은 단순한 방재 시설을 넘어 감시, 통보, 행정 통제의 물리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경기도는 서울과 연결한 곳으로 다양한 도시적 성격(행정도시, 공업도시, 군사도시, 교통도시)을 지닌 지역으로, 근대기 소방시설의 도입과 변천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서울 중심의 근대 소방제도 연구나 건축 유산 개별 사례 보고에 집중되어, 경기도 지역을 포괄하는 소방망루, 수총, 사이렌탑의 종합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에 현존하거나 기록으로 확인되는 근대기 소방시설을 대상으로, 특히 망루, 수총기, 사이렌탑의 구조적·공간적 특징과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지역 근대 소방체계의 형성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이 지닌 건축사적, 기술사적, 문화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보존 및 활용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근대 소방체계의 형성과 경기지역의 특징

1. 근대 소방제도의 도입과 전개

한국의 근대 소방제도는 개항기 이후 일본과 서구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화재 진압은 향·리 단위의 자발적 진화조직이나 군사 조직의 일부가 담당했으며, 별도의 전문 소방 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¹ 그러나 19세기 후반 개항과 함께 근대적 도시 기반 시설이 도입되면서, 외국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상설 소방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894년 경무청 소속 ‘소방국(消防局)’ 설치가 최초의 근대적 제도이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서양식 펌프차, 호스, 수조 등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1900년대 이후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일본 내무성 체계를 그대로 이식하였고, 1910년 병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소방조(消防組)’ 제도를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방체계를 구축했다. 이 제도는 일본의 ‘자치소방조(自治消防組)’ 모델을 모방한 것으로, 관할 경찰서의 지휘하에 소방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당시 소방시설은 행정·경찰 체계의 하위 구조로 기능했으며, 소방망루는 경찰망루와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도시 감시망의 일부를 구성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성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외곽 행정단위로, 일제강점기 도시계획과 행정체계가 빠르게 도입된 지역이었다. 1930년대 들어 수원, 인천, 개성, 안양 등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점가와 공장지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상설 조직과 시설이 필요해졌다. 총독부는 1935년 「조선소방령(朝鮮消防令)」을 공포하

¹ 태종 대에 설치된 금화도감(禁火都監)은 조선시대 최초의 소방 전담 기관으로, 도성 내의 화재 예방과 진압을 총괄했다. 이후 금화도감은 일시적으로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에 흡수되었으나, 조선 후기까지 ‘금화’는 주요 행정 업무로 유지되었다.

여 도·부·읍 단위의 소방조 편성을 의무화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 각 시·읍에도 소방망루, 수총, 장비고 등이 설치되었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경찰서나 면사무소 부지 내에 배치되어 행정·치안 기능과 결합된 형태를 보였다.

예를 들어, 수원은 1933년 「도시계획령(都市計劃令)」 시행 이후 화강석 기단 위 철제 소방망루와 수조(水槽)가 설치되었고, 인천은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근대식 벽돌 소방서와 망루형 사이렌탑이 세워졌다. 의정부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경찰서 망루와 겸용되는 감시탑이 존재했다. 이 시기의 소방시설은 단순한 화재 대응을 넘어 도시 감시, 치안 통제, 공습 경보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도시 통제 체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기존의 일본식 소방 조직은 미군정에 의해 해체되었고, 1946년 「소방기구령(消防器具令)」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때부터 소방은 경찰과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 기능으로 편입되었으며, 경기도 각 시·읍에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가 조직되었다. 초기에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일제강점기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개조한 경우가 많았다. 소방망루는 경보·감시 기능을 유지하였고, 수총은 상수도망이 부족한 지역에서 여전히 소화 용수 저장소로 활용되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을 거치며 사이렌탑은 공습경보와 민방위 기능을 겸하게 되어, 소방시설이 곧 국가 방재 시설의 일부로 기능하게 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내무부 산하에 소방국이 신설되고, 각 시·군 단위에 상설소방서가 설치되었다. 이 시기 경기도의 소방시설은 망루·사이렌탑을 포함한 종합형 소방서 건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 수원·의정부·인천의 구소방서 건물은 붉은 벽돌과 철제 망루탑을 결합한 근대 건축 양식을 보이며, 이는 근대기 소방시설의 집약적 형태로 평가된다.

2. 경기도 근대 소방시설의 지역적 특징

경기도의 근대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은 지역적 특징을 지닌다.

유형 분류	지역적 특징
도시 유형에 따른 시설 분화형	상업중심지(수원, 인천) : 대형 수총과 망루형 소방서
	행정중심지(의정부, 안양) : 관공서 부속 망루 및 사이렌탑
	공업지대(부천, 안산) : 공장 내 자위소방대 중심 구조
지형 및 기반 시설 중점형	평야도시(수원, 안양) : 수총 중심
	해안도시(인천) : 상수도 연결형 소화전 중심
기능 통합적 구조형	망루 상부에 사이렌 장착, 하부에 수총 배치 등 복합적 구조가 등장

1940~50년대 초에는 상업중심지인 수원과 인천의 경우 대형 수총과 망루형 소방서가 조성되었고, 의정부, 안양과 같이 행정 중심지에는 관공서 소방 망루 및 사이렌탑이 세워졌다. 반면 부천과 안산처럼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공장 내 자위소방대가 설치되어 화재를 예방했다. 또한 소방시설은 평야도시와 해안도시에도 차이를 보였다. 평야지대는 지하수나 저수지를 활용한 수총 시설이 많았다. 반면 해안지대는 바닷물 사용이 가능하나, 바닷물은 장비를 쉽게 부식시켜 상수도와 연결된 소방시설을 선호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근대 기술의 효율성과 도시 통제 시스템의 발전으로 망루 상부와 하부에 사이렌과 수총을 동시에 설치하는 복합적 구조가 등장했다.

곧, 경기도의 근대소방 체계는 일제강점기의 일본식 제도 이식, 해방 이후 지방행정 중심의 재편, 1960년대 국가적 조직화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방망루·수총·사이렌탑은 각 시대의 기술과 도시 행정 구조를 반영하며 단일 시설에서 복합 통합형 시설로 발전하였다. 이는 단순한 방재시설을 넘어, 근대도시의 안전관리와 사회통제 체계의 시각적 상징물로 기능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2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1919)을 본떠, 조선에도 적용할 도시계획법령을 공포하였다.

III. 경기도 근대기 소방시설 구성요소

1. 소방망루(消防望樓, Fire Watch Tower)

소방망루는 근대기 소방 체계의 상징적 시설로, 도시 내 고지대 또는 중심부에 세워져 화재 감시와 경보 전달을 담당했다. 대부분 철재 혹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10~20m 내외의 높이를 가지며, 상부에는 망원경·확성기·사이렌·등화장치가 설치되었다. 기단부에는 소방차고나 장비고가 결합된 경우가 많았고, 망루 내부에는 나선형 철계단이나 배치되어 감시원이 상주하거나 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적 측면에서 보면, 일제강점기의 초기 망루는 철골격자형 구조(일본식 관측탑 형태)를 보였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철근콘크리트 기단부+철계단 상부 구조의 혼합형이 등장했다. 이 시기의 망루는 단순한 감시탑이 아니라, 도시



안성 봉남 119교육센터 전경



안양 만안 119안전센터 전경

의 통신·지휘 거점으로서 기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원 구)소방망루(1930년대, 유실), 인천 중구 소방망루(연대 미상, 유실), 의정부 구)소방망루(1950년대 추정, 경찰망루와 병용), 안성 봉남소방서 망루(1970년 복원),³ 안양 의용소방대 망루(1977) 등이 있다.⁴ 이것들은 모두 도시의 중심가 혹은 행정 기관 인근에 설치되어, 도시 감시와 행정 통제의 이중 기능을 수행했다.

망루는 단순히 화재를 관측하는 시설을 넘어, 근대도시의 ‘감시체계’와 ‘행정 권력의 시각적 상징물’이었다. 도시의 상공을 내려다보는 구조는 근대적 통신기술의 공간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망루는 경찰서 망루나 교통관제탑과 함께 근대 도시풍경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수직 구조물이다.

2. 수총기(水銃器, 완용펌프)

근대 이전의 소방은 주로 인력 펌프나 인근 하천수를 이용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수도 공급망의 부족은 화재 진압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는 각 시·읍 단위로 수총(水銃), 즉 소화 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가 설치되었다. 수총은 대체로 지하 혹은 지상 콘크리트 구조물로, 내부에는 약 20~5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매설되었다. 상부에는 급수구나 펌프 연결구가 설치되어 소방차 또는 수동펌프(완용펌프)에 직접 연결 가능했다. 일부 도시는 수총을 망루 기단부에 통합하여 ‘망루 일체형 수총’ 구조로 설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원 행궁동 수총(1933, 유실), 인천 향만 구역 수총(1940년대까지 사용), 안양 자위소방대 수조(1960년대까지 존속)가 있었으나 모두 유실되었다. 수총은 단순한 물 저장시설을 넘어, 근대도시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수도, 배수, 방재 시스템이 통합된 초창기 형태로서, 근대도시의 ‘기초 인프라 체계’가 소방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총의 설치 위치는 도시 중심지나 시장, 공장지대에 집중되어 공공안전의 공간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⁵

이러한 수총 시설은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물을 빨아올리고 분사하는 수총기(완용 펌프)와 연결된다. 경기도에 유

3 1921년 안성중학교 인근에 설치 후 사라진 것을 1970년에 복원하였다. 높이 16m, 너비 약 2.6m의 구조이며 향토유적 지정을 위해 준비 중이다.

4 안양소방서 만안 119안전센터 소방망루는 1977년 6월 18일 안양소방서가 개서하면서 함께 세워졌다. 망루의 높이는 25m, 138개의 계단으로 되어있다.

5 수총과 수총기를 연결하여 사용했던 건물지의 도면이나, 현존 여부에 관한 조사는 추후 보완하기로 하겠다.



남양주 와부소방서 목제 수총기



안양 소방서 철제 수총기

존한 수총기는 남양주 와부소방서 수총기(1910), 안양소방서 수총기(1950)가 확인된다. 남양주 와부소방서 수총기는 1910년 제작된 것으로, 국내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목제 수총기’이다. 독도(뚝섬) 소방조에서 사용된 뒤 양주(현 남양주) 와부소방조로 이관되어 오랫동안 보관되었다.⁶ 안양소방서에서 사용했던 철제 수총기도 있다. 높이 140cm, 길이 245cm, 너비 60cm로 하단에는 제조사를 알 수 있는 철제 인장이 있다.⁷

3. 사이렌탑

사이렌탑은 화재나 공습 등 긴급 상황을 도시 전역에 신속히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로, 1930년대 후반 일본에서 공습대비체계가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경기도에서는 1940년 전후로 설치가 확대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민방위·소방 겸용 경보탑으로 재활용되었다. 사이렌

탑의 구조는 철제 혹은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에 전동식 공기사이렌을 설치한 형태로, 높이는 8~15m 정도이다. 망루와 결합한 복합형, 단독 철탑형, 건물옥상 부착형 등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

전기공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수동식 크랭크사이렌이 병용되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로 인천 중구 구)소방서 사이렌탑(철거), 의정부 사이렌탑(1950), 부천 자위소방대 탑형 사이렌탑(철거), 안양 119소방대(철거)가 있었으나 철거되었고, 경기도에 남아있는 것은 가평읍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했던 소방사이렌(1950),⁸ 새로 복원한 남양주 사이렌탑(건물 옥상부착형), 나팔이 부착된 연천 전곡 의용소방대 사이렌탑(1977)이 있다.

사이렌탑은 근대기 소방망루의 ‘청각적 확장체’라 할 수 있다. 망루가 시각적 감시체계라면, 사이렌탑은 청각적 경보 체계로 도시 전역에 신속한 통보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해방 이후 냉전기에는 사이렌탑이 국가 방재 및 민방위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전환되며, 근대 소방시설이 국가 안보 기능과 결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망루, 수총과 수총기, 사이렌탑은 각각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긴밀히 연결된 시스템이었다. 경기도 내 주요 도시는 이 세 시설을 한 공간에 집약하는 통합형 소방거점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근대도시 방재 체계가 ‘시각-청각-기술적 대응’의 3단계 구조로 발전했음



가평 사이렌탑(1950)



연천 전곡 의용소방대, 나팔부착형 사이렌탑(1977)

6 2024년 4월 경기도 등록문화재(경기도등록문화유산 22호)로 등재되었다. 현재는 경기도 오산 국민안전체험관 소방역사 사료관에 전시 중이다.

7 완용펌프의 제조사는 <한국방호기재공업주식회사>로 1954년경 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8 이 철제탑의 높이는 약 7m였으나, 실내 보관의 어려움으로 현재 약 2.6m로 축소하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소방 유물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오산시 국민안전체험관에 전시되었다.

을 보여준다. 이들 시설은 단순한 설비를 넘어, 근대도시가 안전과 통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려 했던 흔적이다.

IV. 근대 소방시설의 사료적 가치

근대기 소방시설은 단순한 화재 대응 장비나 구조물이 아니라, 도시 행정 체계의 시각적 증거로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본 글에서는 도시행정·기술사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 보존 및 문화재적 가치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도시행정·기술사적 가치

소방망루, 수총, 사이렌탑은 지방 경찰과 행정기관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던 식민지기 도시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근대 행정의 하부 구조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즉, 이러한 시설의 존재는 근대 경기도가 ‘근대도시관리체계의 실험장’으로 기능하였음을 입증하며, 공공안전과 통제의 이중적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소방망루의 배치 위치, 수총의 용량과 형태, 사이렌탑의 설치 높이와 재료 등은 그 시대의 도시계획 수준, 기술 역량, 행정조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근대 소방시설은 문헌 기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기반의 도시 행정 구조를 해석하는 실물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기술사적으로 근대 소방시설은 수리공학, 통신기술, 구조공학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복합적 유산이다. 망루는 주로 강철과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근대 건축기술의 확산을 보여주며, 수총은 상수도 기술의 보급 및 수자원 관리 방식의 발전 단계를 나타낸다. 사이렌탑은 단순한 경보기능을 넘어 전기통신의 대중화와 국가 경보망 형성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기술적 지표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시설들은 1920~60년대 사이의 공공기술발전사를 읽어낼 수 있는 물적 증거로, 동일한 시기의 도로·전신주·상수도 등 인프라 시설과 함께 근대 도시 기술체계의 유기적 구조를 파악하게 한다.

2. 사회문화적 가치

근대기 소방시설은 지역 주민의 자율적 방화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망루를 지키던 ‘의

용소방대’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의 상징이었다. 화재를 알리는 사이렌은 단순한 경보음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즉시 반응하는 집단행동의 신호음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소방시설은 근대도시에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문화유산이기도 했다.

또한 근대기 소방시설은 당시의 도시 이미지와 시각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망루나 사이렌탑은 도심의 가장 높은 구조물 중 하나로서, 도시의 상징이자 지역 정체성의 시각적 중심적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한 실용시설을 넘어, 근대도시의 경관 형성과 기억의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3. 보존 및 문화재적 가치

경기도의 근대기 소방시설은 현재 대부분 철거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남아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일부 지역(가평, 남양주, 안양, 안성, 연천)은 여전히 구조체 일부가 현존하며, 당시의 기술과 도시 공간 배치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러한 잔존 유산은 문헌기록, 사진, 행정도면 등과 결합될 때 근대도시 인프라 연구의 기본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단순한 산업유산이 아니라, 공공행정 유산으로서 재평가하고, 기록화·복원·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의 방법을 통해 사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근대 소방시설은 도시의 중심부나 관청가, 시청가 등 시민 생활의 핵심 공간에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망루나 사이렌탑은 한 도시의 ‘안전’과 ‘질서’를 상징하는 도시의 랜드마크로 작용하였다. 특히, 수원, 인천, 의정부, 안양 등지의 망루는 주민에게 ‘높은 곳에서 도시를 지키는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지역 주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러한 시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근대 도시의 시각적 기억과 공동체 정체성을 담은 생활유산으로서 의미가 있다. 즉, 망루나 사이렌탑의 존재는 경기도 각 지역이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시민적 감각을 보여주는 문화사적 지표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근대 산업 유산·도시 유산 등록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소방시설 역시 보존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2020년대 들어 구)소방서 망루

와 사이렌탑을 포함한 ‘근대 공공시설 유산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수원시 역시 구도심지 내 소방망루 흔적을 도시 기억 아카이브 사업에 포함시켰다. 또한 남양주 와부 목재 완용펌프는 경기도 등록문화재(2024)로 등재되었고, 안성 봉납 망루와 안양 만안 망루는 향토유적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경기도 전역의 유사 유산에 적용 가능한 선례로 평가될 것이다.

V. 향후 활용 방향과 교육·전시 콘텐츠로의 확장 가능성

지금까지 경기도의 근대소방시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경기도의 근대기 소방시설은 단순한 화재 대응 구조물이 아니라, 근대도시의 행정체계와 기술 수준, 그리고 시민사회의 형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복합적 유산이다. 소방망루, 수총, 사이렌탑은 도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물적 기반이자, 근대 도시공동체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존재였다.

이러한 시설은 오늘날 대부분 그 기능을 상실했지만, 남아있는 흔적들은 근대도시의 기억을 복원하고 시민과 과거를 연결하는 교육적 매개체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다. 특히 소방망루와 사이렌탑은 시각적 상징성과 장소성이 뚜렷하여, 이를 활용한 역사 교육 및 체험형 전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옛 망루를 복원하거나 디지털로 재현하여 ‘근대 도시안전 체험관’, ‘시민 기억 아카이브 전시관’ 등으로 활용한다면, 시민들이 일상의 공간 속에서 지역의 역사와 기술 발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보존과 재활용은 단순한 건축유산 보호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기억을 재구성하는 ‘도시문화 교육의 장(場)’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의용소방대, 시민안전단체, 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근대 소방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적 학습자원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의 근대 소방시설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교육·전시형 재활용, 시민참여형 보존운동의 세 축을 중심으로 발전시

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근대소방시설을 단순히 과거의 흔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문화와 근대도시 정체성을 함께 계승하는 새로운 역사문화 콘텐츠로 확장시키는 실천적 방향이 될 것이다. 결국, 소방망루와 사이렌탑은 ‘도시를 지키는 탑’에서 ‘기억을 지키는 탑’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며, 근대의 기술과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 시민 교육과 문화로 이어주는 살아있는 공공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이지원

명지대학교 한국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24년부터 안양시청에 근무중이며, 지역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다.

경기학센터 소개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는 경기도에서 경기지역학을 전담하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 개발, 활용, 교육, 전파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학센터 사업은 크게 경기지역학 연구활성화, 경기학 도서 발간·보급, 문화자원 기록·보존·관리 사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으로 지역학 강좌·교육, 경기학 조사와 연구, 경기지역학 네트워킹, 경기 역사문화총서 발간, 청소년 역사교재 제작·보급, 경기지역학 학술회의, 계간지 『경기학광장』 발간, 근현대 문화자원 아카이브, 자료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을 통하여 경기학센터는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밝히고, 경기학 발전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학센터의 성과물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www.library.kr) '경기도메모리'를 통해 PDF 파일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학광장』 원고 모집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계간으로 발행하는 『경기학광장』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경기학광장』은 지역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 마당'입니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집필할 수 있는 가벼운 소재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투고 원고에 대해서는 간단한 내부심사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른 결과물 또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적당히 짜깁기한 원고는 수록하기 어렵습니다.
- 다소 거칠더라도 직접 조사·탐방·취재한 내용을 원합니다.
- 다른 곳에 이미 발표한 글, 수록 예정인 글을 수정하거나 요약한 것은 가급적 배제합니다.
- 기존 『경기학광장』에 수록된 글과 비슷한 주제, 같은 자료에 대한 소개·서평·연구 등은 지양 바랍니다.
- 책자 발간 후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원고료 반납 조치 및 향후 글쓰기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글 감

분 야 :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주 제 : 마을, 자연, 인물, 민속, 음식, 생태, 여행, 사건, 답사, 자료, 르포, 축제, 책 소개, 칼럼, 연구노트 등 '경기'와 관련되면 무관

자 격

경기학에 관심 있으면 누구나 가능

분 량

일 반 : 200자 원고지 30매
심 화 : 200자 원고지 50매

원 고 료 200자 원고지 1매당 10,000원

모집기한 2026. 2.28 / 5.31 / 8.31 / 10.31

심 사 재단 내부심사 후 게재 결정

절 차 사전 접수 후 게재가 결정되면 투고신청서와 함께 완성본 제출

접 수 처 butwoo@ggcf.or.kr

문 의 031-231-8542(경기학센터)
* 구독 신청, 주소 변경, 중지 요청 등



People & Culture

칼끝으로 되살린 조선의 숨결, 무예사 박사 1호 최형국
도예가 방호식, 이상훈, 이종구, 김정옥 씨가 들려주는
막사발 실크로드를 개척한 도예가, 김용문
'사진신부'로 인연을 맺어 조국광복에 헌신한
'수원신부' 차인재와 '화성신랑' 임치호
추사 김정희와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만남,
어떤 일이 펼쳐질까?

Trip & Healing

이동갈비의 원조, 김미자할머니갈비
우리나라 첫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을 찾아서
오색찬란(五色燦爛)한 부천 자연생태여행

Research & News

경기도 시군의 '○○팔경'에 보이는 나무와 꽃
기전지역 조선개국공신의 무덤과 조선초기의 묘제
신·구 지적도 비교·고찰을 통한 지역 공간구조 변화 연구
경기도 근대기 소방시설: 소방망루, 수총기, 사이렌탑을 중심으로

